



## 제2편 분야별 성과와 계획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제1장 앞서가는 경기도

제2장 편리한 경기도

제3장 잘 사는 경기도

제4장 매력있는 경기도

제5장 행정지원 역량강화



## 제1장 앞서가는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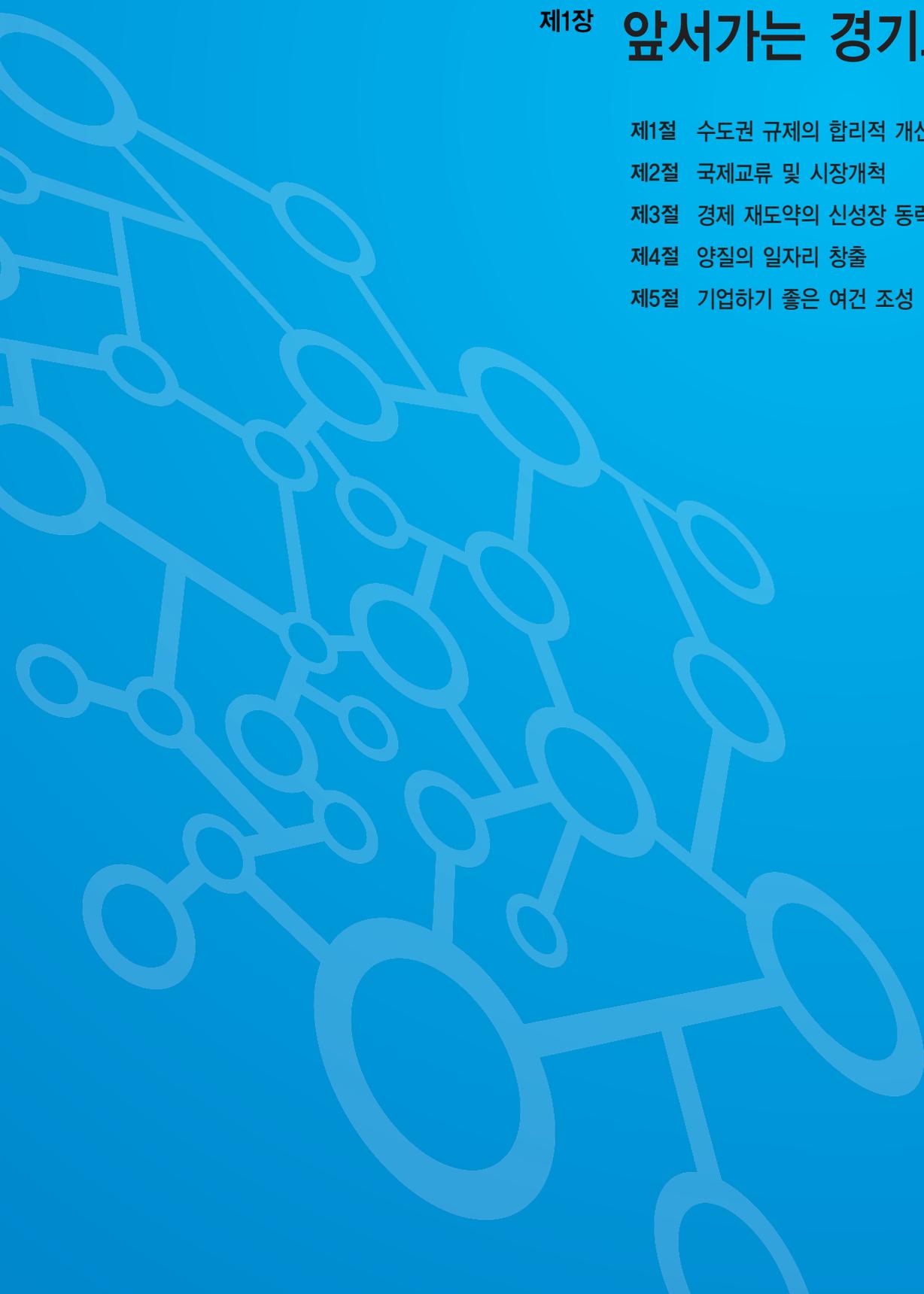
제1절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제2절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

제3절 경제 재도약의 신성장 동력 육성

제4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5절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제1절

#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1. 수도권 계획적 관리로의 전환
2.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 추진
3.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
4.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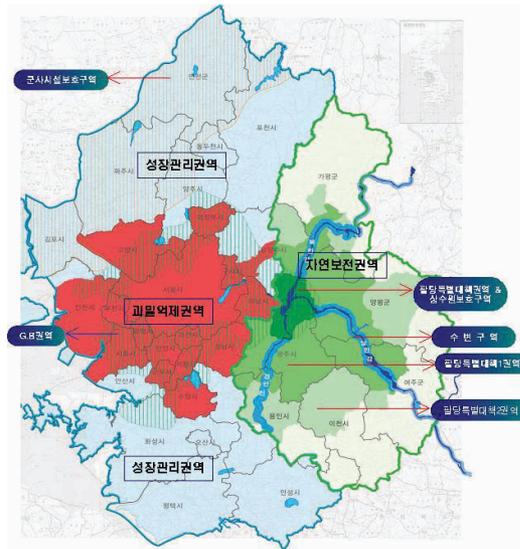


# 1. 수도권 계획적 관리로의 전환

## 가. 현황 및 실태

수도권은 인구가 2,447만명으로 전국대비 48.9%에 이르고 지역총생산은 408조원으로 전국의 47.6%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초광역권의 중심부이다. 특히 경기도는 2003년 이후, 서울의 인구를 앞질러 전국대비 22%에 이르고 있으며, 한반도 교통, 문화, 경제의 중심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서 도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묶여있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

경기도 규제 지도



1) 2008 도정주요통계집

특히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53.6%) 이하인 시·군이 양평, 가평, 동두천 등 21개 시·군임에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공장 설립을 제한받고 있으며, 전문 인력양성이 시급한 대학 신설 및 증원이 불가능하다. 환경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을 설정, 획일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 활동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첩된 규제로 수도권 일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과 가평, 양평 등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자치단체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규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도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등 자립기반을 상실하여 최소한의 생활여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불합리한 수도권 정책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제공하여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하여 도내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노력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공고히 하였다.

## 나. 성과

경기도는 중첩규제로 낙후되고 있는 도내 동북부지역의 규제개선을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및 국회 등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 입지적 여건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거듭 내고자 경제분야 규제개선을 병행 추진하였다. 더구나 미국의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등 수도권의 규제는 더 이상의 실익이 없음을 각인시켰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의지를 고취시켰다. 그 결과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로 균형발전과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나온 결과여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1) 정부와 공동으로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제도개선” 연구

정부는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조기에 종료되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을 수립, 시행하였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성장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의원입법을 통하여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제도개선”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를 통하여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토론회와 발표일정 등을 검토 중이다.

## 2) 규제개선 성과

### 《 기업 규제 》

- 산업단지 내 규모 ·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신 · 증설, 이전 허용('08. 10. 30)
  - 107개 산업단지 내 1만개 기업 증설 및 461개 전 업종 신설 가능
- 산업단지 이외 지역은 96개 첨단업종 공장증설 허용 범위 대폭 확대
  - 부천시 'F'사 등 기존 80개 대기업 투자 가능
- 미군 공여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공업용지(산업단지)총량규제 적용 배제
  - 공업용지 별도 확보(11.25km<sup>2</sup>)로 2,300개 기업 입지, 일자리 6,100개 창출
-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 연면적 상향조정(200m<sup>2</sup> → 500m<sup>2</sup>)
  - 도내 13,000개 기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로 잠재적 투자확대 예상
- 산업단지조성 시 관련 인 · 허가 기간 단축 : 4년 → 6월('08. 9. 5)
  -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08. 9. 5 시행)

### 《 상수원 규제 》

- 상수원 공장입지 제한 거리 대폭 축소('08. 12. 4)
  - 광역(20km) · 지방(10km)상수도, 취수장 15km 이내 금지 ⇒ 취수장 7km이내 금지
  -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 면적 축소(2,277km<sup>2</sup> → 934km<sup>2</sup> : 분당의 60배인 1,343km<sup>2</sup> 축소)
  - 규제면적 축소 : 남양주시 225km<sup>2</sup>(65%), 광주시 221km<sup>2</sup>(87%) 등 18개 시 · 군
  - ※ 용인 남사 신도시(6,521천m<sup>2</sup>) · 불리지역(1,055천m<sup>2</sup>) 등 친환경 개발 가능
- 오염총량제 실시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중복 규제 개선
  -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한 토지 확보 및 대규모 관광지 · 대형건축물 입지 가능
-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 용인 원삼면, 안성 삼죽면 일부

### 《 그린벨트 규제 》

- GB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재산세 등 세부담 완화('08. 2. 26)
  - ※ 재산세 32개 기업 9억여원, 종부세 1개 기업(광명 기아자동차) 14억여원 감세 혜택
- GB내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입지시설 기준 조정('08. 11. 28)

- 축사관리실 면적 완화(10m<sup>2</sup>→33m<sup>2</sup>), 농수산물 보관창고 면적 완화(100m<sup>2</sup>→150m<sup>2</sup>)
- GB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해제 가능 총량(104.2km<sup>2</sup>)
  - 도민의 재산권 행사 및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 등 개발행위 가능
- GB지정 이전에 설치·증축한 공장은 시설연면적의 1/2이하에서 증축허용
  - ※ 도내 GB 소재 기아자동차 등 도내 18개 기업 5,583억원 투자, 2,700개 일자리 창출

## 다.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 1)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지속 추진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조치로 자연보전권역 등의 일부 규제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오염총량 규제를 전제하고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개선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정부건의, 당정협의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 경쟁력 있는 수도권을 위해 성장관리 체제로 전환 추진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법 제정 취지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채 수도권내 특화된 토지이용과 광역적 공간관리를 저해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 규제일변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성장억제 중심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시·도(경기, 서울, 인천)가 공동으로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 연구결과를 통해 불합리한 권역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광역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계획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지역정책과 박성환 / ☎ 031-249-4894

## 2.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 추진

### 가. 현황 및 성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무질서한 도시 확산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및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02년 10월~11월까지 경기도 지역 항공시찰, 개발가능지 추정, 관련 자료 수집 등 기초조사를 하여 '02년 12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성장관리방안과 공간구조 개편 내용을 제시하여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06. 7. 25) 확정내용에 수도권 관리전략 및 광역도시개발전략이 부분 반영되고 주택·부동산안정화를 위한 택지 및 도시개발전략이 반영되었다.

1단계 연구인 “대도시권 성장 관리방안”을 '02년 12월부터 착수하여 '03년 2월에 예비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2단계 연구인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한 전략 및 기본구상”을 '03년 5월부터 '04년 2월까지 완료하여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다핵분산형 구조로의 개편과 도시간 기능연계 강화로 주요 성장축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였다.

또한 3단계 연구용역인 수도권 계획적관리 기본구상의 핵심내용이 담겨질 “수도권 계획관리기본계획”을 '04년 1월부터 '04년 11월까지 수립 하였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신도시 건설추진을 위하여 '04년 수립한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06년 11월부터 '07년 2월까지 수행하여 신도시 개발정책 및 계획기준을 재정립 하여 '07. 6. 1 첫 번째로 동탄2신도시를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발표하고 '07. 12. 2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08. 7. 11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 나. 문제점

주요 선진국은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고급인력, 정보통신 인프라를 잘 갖추어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책 및 중앙주도의 공영택지개발과 이에 편승한 민간개발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 미흡으로 국가경쟁력 저하 및 삶의 질 향상에 저해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로의 과도한 중앙집중 지속으로 수도권 도시공간 구조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수도권 삶의질 지표 국제비교('05. 12)

삶의질 지표		도시(권)				
환경	1인당 공원면적(m <sup>2</sup> )	베를린(24.5)	런던(25.7)	뉴욕(14.1)	파리(10)	수도권(5.9)
	비산먼지(μg/m <sup>3</sup> )	동경권(33)	런던권(37)	뉴욕권(21)	파리권(22)	수도권(70)
교통	차량밀도(대/km <sup>2</sup> )	동경(2.4만)	런던(1.0만)	뉴욕(0.9만)	싱가폴(2.7만)	서울(3.4만)
주거	주거밀도(명/km <sup>2</sup> )	동경(2.3만)	런던(0.8만)	뉴욕(1.2만)	싱가폴(1.2만)	서울(3.1만)
	1인당 주거면적(평)	일본(10평)	영국(13평)	미국(18평)	독일(13평)	수도권(6.6평)
인구	인구밀도(명/km <sup>2</sup> )	동경(0.6만)	런던(0.5만)	뉴욕(1.0만)	싱가폴(0.6만)	서울(1.7만)
	1인당 GRDP(달러)	동경권(4.0만)	런던권(2.8만)	뉴욕권(4.7만)	파리권(4.6만)	수도권(1.5만)

## 다.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부터 수도권을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구조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성장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의 참다운 의미를 ‘反성장’ (anti-growth)이 아닌 ‘관리된 성장’으로 받아들이고, 성장관리의 큰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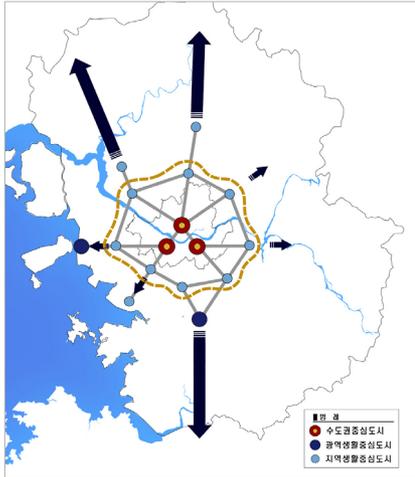
따라서 성장관리가 수도권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수요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계획적 도시개발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주택공급 위주의 택지개발 중심에서 탈피하여 교육·문화·녹지·여가·산업·광역교통·의료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전략으로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수도권 성장관리방안을 구체화 하였으며, 수도권이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계획관리를 위한 기본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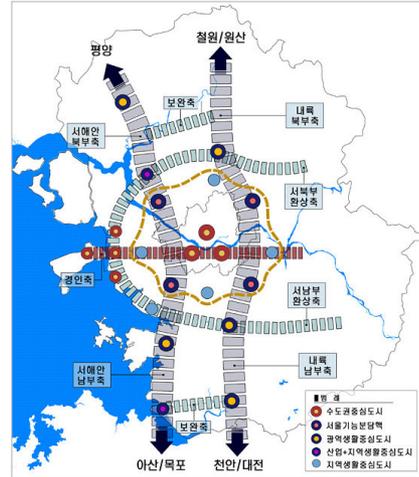
- 서울중심의 “일극집중형 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의 발전축인 경부축, 경인축 외에 경의축, 경원축, 서해안 축으로 하는 “다핵분산집중형” 공간구조로의 발전 방향 제시

현재 : 서울 일극집중형 구조



- 서울의존 심화
- 성장의 한계
- 서울인근의 교통혼잡 가중
- 남북 연결 종단축 부재

미래 : 다핵 분산형 구조



- 서울에 집중된 중추기능의 분산
- 남북종단축의 성장잠재력 확대
- 남북종단성장축에 선택적 집중개발
- 도시간 수평적 연계 강화

- 광역화· 교외화에 따른 도시확산의 체계적인 수용관리와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 추진



- 성장축을 기초로 수도권계획관리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일생활권, 도시개발과 광역 인프라확충을 연계 할 수 있는 발전축을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	해당지역	발전방향
경부축 권역	성남, 과천, 의왕, 용인, 수원, 화성동부, 오산, 평택동부, 안성	비즈니스거점 및 연구개발기지로 육성
서해안축 권역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안양, 군포, 화성서부, 평택서부	산업물류거점과 자동차, BTTKS업 연계개발
경의축 권역	고양, 파주, 김포	납북교류거점과 LCD 등 신산업중심지로 육성
경원축 권역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남양주, 구리, 가평	신생활중심 및 관광레저거점 구축
동부권역	하남, 광주, 이천, 양평, 여주	친환경적 레저/휴양벨트 구축

- 「다핵분산집중형」 도시공간구조로의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을 지원하고 수도권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용량 이면서 고속의 광역 전철망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버스 중앙차선제(BRT)와 경전철을 지선 또는 보완적 대중교통체계로 하는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담당자 : 택지계획과 오세현 / ☎ 031-249-3246

### 3.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

#### 3-1.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 가. 현황 및 성과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5개 용도지역을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여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은 물론 지구단위계획제,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부담구역제, 토지적성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서는 관리지역(종전 준농림·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추진하여 2009. 1. 6일 안성시를 마지막으로 17개 시·군에 대한 관리지역세분을 완료하였다.

수도권 삶의질 지표 국제비교 ('05.12)

시·군	면적(km <sup>2</sup> )	토지적성평가 실시	입안공고	도 결정신청	도 결정·고시	비고
17	2,747	17	17	13	6	화성 동부권은 관리지역세분 절차 진행중

※ 화성시 서남부권은 2008. 6. 4. 관리지역세분 완료되었음.

※ 동부권은 화성시장이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건교부(현 국토부)에 도시관리계획(도시지 역확장) 변경결정 신청하였으나 일부만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고 나머지는 유보되어 관리지역세분이 늦어진 것임.

한편, 비도시지역에서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체육시설,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8년 10건 1,640.51km<sup>2</sup>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며, 30만m<sup>2</sup>미만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권한과 계획수립의 결정권한이 이원화되어 당초 구역결정시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시장·군수 임의대로 계획수립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8.11. 5. 30만m<sup>2</sup>이상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권한을 도지사로 환수하였다.

구분	계	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비고
건수	10	8	-	2	
면적(만m <sup>2</sup> )	1,640.51	1,640.40	-	0.11	

## 나. 미흡했던 점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1-6-1의(6) 규정에 의거 경기도 17개 시·군은 2005년말까지 관리지역세분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적성평가를 이행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주민공람공고결과 본인 토지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된 개인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 등으로 2009. 1. 6일에 서야 관리지역세분이 완료되었다.

## 다. 발전방향 및 향후 계획

화성 동부권 및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해제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2009년 말까지 관리지역세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할 것이며, 골프장 결정기준 등을 정비하여 비도시지역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담당자 : 도시정책과 이창규 / ☎ 031-249-4865

## 3-2. 개발제한구역 관리

### 가. 현황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1971년 수도권부터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 까지 8차에 걸쳐 주로 대도시 14개 도시권역에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km<sup>2</sup>(약 16억평)를 지정하였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30일부터 1976년 12월 4일까지 4차에 걸쳐 21개 시·군 1,302km<sup>2</sup>(약 4억평)가 지정된 후 집단취락 우선해제 등으로 해제되어 현재 1,212km<sup>2</sup>이며 경기도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과천시 등 10개시는 행정구역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만5천 가구에 6만3천여 명이다.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임야 56.3%, 농경지 25.8%, 대지 1.4%로 나타난다.

### 나. 문제점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이후 약 36여년간 관리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도시주변에 미개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자연환경이 보전되고 휴식·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에 의한 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불만을 초래하였고, 특히 경기도는 주변의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지역임에도 과다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불법용도변경, 불법전용 등의 편법이 만연하여 녹지보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의 자족시설 확보가 어려워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존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 등의 불합리한 구역지정으로 다른 도시권에 비하여 상대적 피해의식이 큰 실정이다.

### 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성과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 일반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발전적 제도혁신 등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도 지역 특성 등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 등에 꾸준한 법령개정 건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법제화를 실현하였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 설치된 공장의 증축에 대하여 지정당시 연면적의 1/2만큼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① 지정당시 연면적의 1배 이하, ② 지정당시 연면적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증축된 면적을 합한 면적의 1/2배 이하로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08.11.28. 시행령 제23조 별표3 제29호 개정)

둘째 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건축법을 준용하여 적용함에 따른 법적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09.2.26. 개특법 제32의2 신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제도개선방안 법제화”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의 단기정책 과제로 채택·추진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언론홍보, 국회의원 방문, 제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건의 및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하였다.

첫째 경기도가 전국 훼손부담금의 80%이상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에 집행된 금액은 28%에 불과한 훼손부담금의 불합리한 배분방식 개선으로 지방의 건전한 재정확보와 맞춤형 주민지원사업의 활성화 기여하고, 주민 참여형, 맞춤형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직접지원 대상사업의 확대

둘째 관리계획 수립·승인권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추진 지연을 해소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등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차원의 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담당자 : 지역정책과 이정민 / ☎ 031-249-4863

### 3-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기반시설은 주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구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함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어 앞으로 정당한 보상이 없는 계획규제

는 어렵게 되었다.

또한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시계획법령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미 집행시설의 전면 재검토,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지목이 '대지' 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미 매수 시 건축물의 설치 허용, 재원조달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가. 미집행 시설 현황

경기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207.6km<sup>2</sup>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717.7km<sup>2</sup>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집행면적은 510.1km<sup>2</sup>(71.1%)이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원이 119.9km<sup>2</sup>(5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로가 49.8km<sup>2</sup>(24.0%), 유원지 8.3km<sup>2</sup>(4.0%), 녹지 8.3km<sup>2</sup>(4.0%), 기타 21.3km<sup>2</sup>(10.3%)이다. 그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면적은 138.2km<sup>2</sup>(66.6%)로 해당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19조3천억원이 소요된다. 이 중 약2.7km<sup>2</sup>(2.0%)가 사유대지로서 이에 대한 보상비는 약1조8,8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08. 12. 31기준)

구 분	합 계	10년미만	10-20년	20-30년	30년이상	비 고
구 모(km <sup>2</sup> )	207.6	69.4(33.4%)	31.6(15.2%)	51.1(24.6%)	55.5(26.8%)	소요액 =
소요액(억원)	390,325	196,884	60,145	60,318	72,978	보상비+공사비

※ 10년이상 미집행(장기) : 6,006개소 138.2km<sup>2</sup>, 사업비 19조3천억원

### 시설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08. 12. 31기준)

구 분	합 계	도 로	공 원	녹 지	유원지	기 타
구 모(km <sup>2</sup> )	207.6(100%)	49.8(24.0%)	119.9(57.7%)	8.3(4.0%)	8.3(4.0%)	21.3(10.3%)
대 지(km <sup>2</sup> )	6.8	4.5	1	0.2	0.3	0.8

※ 소유자 구분: 6.8km<sup>2</sup> (사유지 5.9km<sup>2</sup>, 국유 0.4km<sup>2</sup>, 공유 0.5km<sup>2</sup>)

### 매수대상사유대지 - 10년 이상 미집행

(’08. 12. 31기준)

구 분	합 계	도 로	공 원	녹 지	유원지	기 타
구 모(km <sup>2</sup> )	2.7(100%)	1.8(66.7%)	0.6(22.2%)	0.1(3.7%)	0.1(3.7%)	0.1(3.7%)
소요액(억원)	18,881(100%)	13,701(72.6%)	3,289(17.4%)	1,046(5.5%)	45(0.2%)	800(4.3%)

그동안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시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결정고시 후 20년 이상 미집행시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시에는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근원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종전에 결정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존치, 폐지,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내의 지목이 '대지'인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매수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한편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지목에 상관없이 2000년 7월 1일 이후 또는 시설결정 후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다.

## 나. 추진방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크게 두 가지로 정하여 추진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존치 또는 해제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매수청구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강구이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우선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한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2000년 3월말까지 완료하였고, 또한 미집행시설을 존치 또는 폐지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재원조달방안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정비의 합리화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도시계획변경 절차이행을 통해 미집행시설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006년부터 매년 400억원을 2019년까지 순증기로 합의(2004.12.31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되어 우리 도에 개발계정사업으로 2006년 81억원, 2007년 48억원, 2008년 43억원이 배분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1년 11월 9일 장기미집행 도

시계획시설해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도에 시·군 대지보상에 따른 도비지원금 100억원, 2004년 50억원, 2005년 36억원, 2006년 24억원, 2007년 24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다.

앞으로는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신규결정은 억제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자 : 도시정책과 구자균 / ☎ 031-249-4889

## 4.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추진

### 가. 현황 및 성과

경기도의 동·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된 규제로 재정이 열악하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였다.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가시적인 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북부 특화발전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경기도가 계획한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은 재정력이 취약한 낙후지역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한 사업으로 시·군별로 2003년 사업 발굴용역을 착수하여 2004년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4년 7월 9개 사업을 확정하게 되었다.

시·군 선정기준은 재정력지수가 50% 미만인 북부지역의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시 등 4개 시·군과 동부지역 가평, 양평, 여주, 하남, 안성시 등 5개 시·군이며, 시·군비 부담비율 없이 시·군별로 도비 100억원씩 총 90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경기도의 전략적 지원은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군별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설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군	사업명	추진현황
포 천 시	포천아트밸리(99천㎡)	'07.12. 11 준공
안 성 시	안성맞춤랜드(337천㎡)	'08. 3. 3 착공, 공정 40%
하 남 시	벤처기업집적시설(5천㎡)	'08. 8. 31준공
양 주 시	남면(208천㎡), 봉양(148천㎡) 산업단지	- 남면 : '07. 5. 31 착공, 공정 92% - 봉양 : 개발계획 수립 중
여 주 군	수생야생화생태단지(296천㎡)	'06. 9. 26 착공, 공정 67%
양 평 군	전통생태산촌마을(150천㎡)	'07. 1. 11 착공, 공정 87%
동두천시	사이언스타워(7.4천㎡)	'07. 4. 7 준공
가 평 군	호명호수공원(1,089천㎡)	'06. 9. 30 착공, 공정 80%
연 천 군	역사문화촌(50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 나. 미흡했던 점



양평 전통생태산촌마을 조감도



연천 역사문화촌 조감도



안성맞춤랜드 조감도



여주 수생야생화생태단지 조감도

2008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사업시행자 지정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연천군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양주시 봉양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지연되었으나 향후 철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 다.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2008년 착공하지 못한 2개 시·군에 대하여는 2009년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경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경기 동·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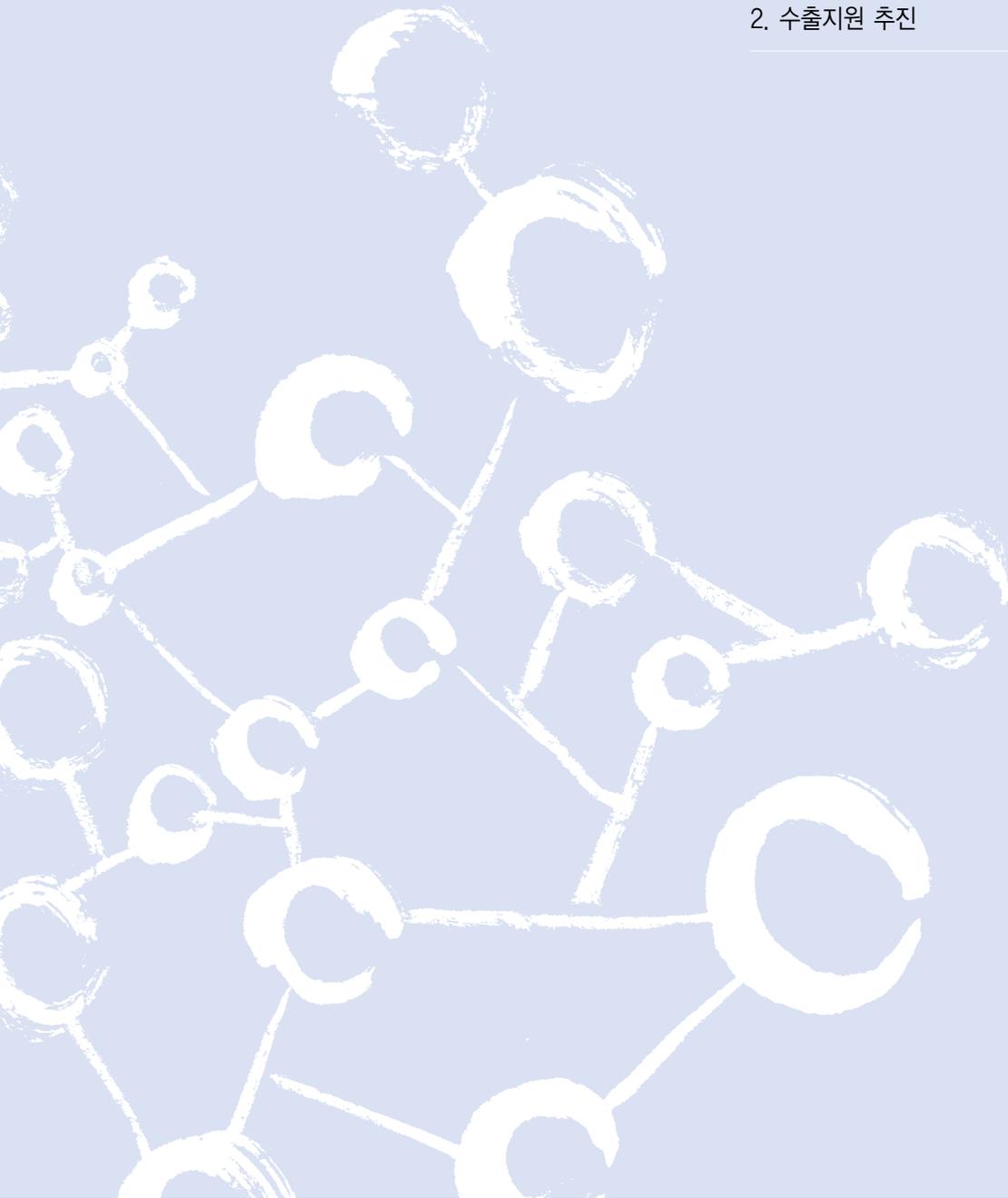
담당자 : 지역정책과 이상근 / ☎ 031-249-4838

제2절

#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

1. 국제교류협력 강화

2. 수출지원 추진



# 1. 국제교류협력 강화

## 1-1. 개요

2008년 경기도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은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 새로운 국제협력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지역과 구주·대양주 지역과의 국제교류협력의 외연 확대를 위한 다양하고 폭 넓은 교류를 시도했다.

우선, 현재 안정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일본 지역과는 관광·문화·청소년·스포츠교류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류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경기도·요녕성·가나가와현 3지역은 10월 「제7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를 요녕성에서 개최하여 도·성·현이 전면적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3지역 간 교류를 보다 확대하고 전 세계에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 문화, 교육, 청소년교류, 환경보호, 자연재해 대응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배기가스 감축,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보호 분야의 공동 연구와 교류를 적극 지원·추진하는 등 3지역이 공동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반조직간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미주·구주지역과의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외연 확대를 위해 지난 1997년 4월 경제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와 자매결연을 체결(08. 5. 19) 하였으며, 이후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한국사무소 개설(08. 6), 브리티시콜롬비아주 게임산업 대표단의 G-STAR 2008 참가 및 G-STAR 뉴미디어 설명회 개최, 그리고 2009년 경기국제보트쇼 자매지역 해양산업공동설명회 개최를 이끌어 냈다. 그 외 스페인 까탈루냐주와의 「과학단지 및 기술육성 협력 MOU」 체결(08. 12. 12)을 통해 양 지역 간 연구기관 및 대학의 기술개발, 기술의 상용화, 기업창업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에 합의 하였다.

도는 앞으로도 국제교류협력 지역 및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기해 글로벌 미래경기의 국제적 위상정립과 도정에 기여하는 실리추구형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 1-2.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교류협력

1990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이고 건실한 교류를 바탕으로 굳건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2008년도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5월에는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 대일 판로개척을 위하여 가나가와현의 협력하에 동경에서 경기도의 우수 농특산물 특별판촉전을 개최하여 일본지역에 경기도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었으며, 동 시기에 마츠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현지사와 2008한일교류학술대회와 중국 요녕성에서 개최되는 3지역 우호교류회의, 그리고 향후 도·현 간 더욱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관광·문화·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양 지역의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다.



2008. 5. 31 가나가와현과의 협력을 통하여 실시된 경기도 우수 농산물 특별 판촉활동(일본 동경)

또한, 도·현 양 지역간 상호 이해 증진과 보건·복지·의료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유학생 파견 사업에 따라 2008년에는 1명의 경기도 추천 학생이 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에 유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올해 선발된 유학생은 6개월 간 어학연수를 마치고 2009년 4월~2013년 3월까지 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수학할 예정이며, 현재 총 6명의 경기도 추천 유학생이 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나가와현 일한친선협회의 경기도 방문과 경기도 자치, 기획부서의 가나가와현 행정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등 양 지역은 새로운 교류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

담당자 : · 교류통상과 김남국 / ☎ 031-249-2760

## 1-3. 중국과의 교류협력

### 가. 광둥성과의 교류협력

2008년도 경기도와 광둥성간의 국제교류는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국제교류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실천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1996년 이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경기도와 광둥성은 2003년 10월 20일 양 지역 관계를 “자매결연”관계로 격상시킴으로써 경제, 무역, 투자,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와 광둥성은 한·중 양국의 경제중심지로서 양 지역의 경제적 위상과 규모에 걸맞게 경제협력 극대화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2008년 10월에는 「제4회 광둥성 국유기업 최고경영자 연수사업」을 경기도에서 실시하여 광둥성 국유기업 관계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시장과 산업·경제 환경,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육성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으며, 향후 경기도와 광둥성 간의 무역·투자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는 물론, 광둥성 내 기업의 對한국 진출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광둥성 외사판공실 간부, 도로관리국 국장 및 광둥성 동관시 대표단 일행등 여러 행정



2008. 11. 29 광둥국제문화제 각국 공연단 공연행사 시 경기도 대표단 태권도 시범

분야의 인사들이 경기도를 방문하여 선진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11월 광동성 개최 「제4회 광동성국제문화관광행사」에 경기도내 대학생으로 구성된 태권도 공연단을 파견하여 광동성 시민과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무술을 홍보하고 해외자매도시로서 광동성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광동성 정부로부터 깊은 신뢰와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김남국 / ☎ 031-249-2760

## 나. 요녕성과의 교류협력

요녕성은 1993년 10월 우리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행정기관은 물론 민간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2008년도에는 환경문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상호논의가 이루어졌다. 10월 요녕성에서 개최된 한·중·일 3지역 우호교류회의를 통하여 각 지역 대표자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실시할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경기도지사의 기초연설에서 한중 육로교통망 개설과 북한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제의하고 요녕성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2008. 10. 28 요녕성 개최 3지역우호교류에서 3지역 대표자 회의

특히, 경기도와 요녕성의 상호 우호교류 증진을 위하여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양 지역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2008년에는 경기도에서 공무원 1명을 파견하여 1년간 요녕성 정부에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류규현 / ☎ 031-249-2196

## 다. 산동성과의 교류협력



2008. 5. 29 경기도-산동성 도시연합 구성에 관한 합의서 체결

산동성은 2000년 4월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역으로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산동성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여 경기도 평택항과 산동성 청도, 위해, 연태, 일조 등 항구 간에 컨테이너선을 비롯하여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양 지역간 교류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양 지방정부는 5월에 산동성 칭다오에서 한·중 지방정부간 새로운 국제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12개 도시와 산동성 17개 도시의 대표가 배석하여 「경기·산동 도시연합」 창설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양 지역 협력사업으로 평택시와 위해시 간 카페리호 취항 협의서 체결, 화성시와 연태시간 우호협력 합의서 체결 등 활발한 협력사업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제1회 경기산동도시연합총회」를 향후 경기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상호보완적이고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는 산동성과 지속적으로 실질적이며 내실있는 교류협력사업을 확대 진행하여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의 모델사례를 만들고자 한다.

담당자 : 경제투자실 교류통상과 류규현 / ☎ 031-249-2196

## 다. 하북성과의 교류협력

하북성은 중국 교류지역 중 가장 늦게(2008. 10)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역이지만 향후 활발한 교류활동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하북성은 수도 북경시를 둘러싸고 있는 등 입지가 경기도와 비슷한 지역으로 동북3성과 서북지역

및 회복지역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또한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가진 중화문명의 발원지 중 하나로 국가급 문화유적이 88개소에 이르며, 연평균 약 500억 위안의 관광수입을 거두고 있고, 징진지(京津冀)경제권(북경, 천진, 허북성)의 한축으로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2008. 10. 29 경기도-허북성 우호교류 협약체결

2010년대에는 동북아지역이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2000년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축이 북경, 천진, 허북성을 중심으로 한 환발해만으로 급속히 이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서해안 지역과 유기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파트너가 될 때 양 지역 간 상승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환발해만 지역의 발전산업이 IT/BT, 자동차 등 첨단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 수도권의 경제구조와 부합됨에 따라, 10월 양지역 대표자에 의한 우호협력을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양 지역의 환경, 정보통신, 설비제조,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과 상생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류규현 / ☎ 031-249-2196

## 1-4. 미주·구주와의 교류협력

### 가.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와의 교류협력

BC주와는 지난 1997년 4월 경제교류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협력관계 격상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08.5.19), 이를 기점으로 현재 양 지역 고교간의 자매결연체결 추진, 경기도에서 개최된 G-STAR 및 BC주에서 개최된 BPN(Bio Partnering North America)에의 양 지역 관련산업 대표단의 상호 파견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향후 경기국제보트쇼를 비롯한 해양산업 분야, 녹색·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BC주에 위치한 밴쿠버는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어 이를 기회로 삼아 양 지역 간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북미지역 교류거점지역으로

서 BC주의 위상을 정립해 나아갈 계획이다.



2008. 5. 19 경기도 - 브리티시콜롬비아주 간 자매결연 체결

담당자 : 교류통상과 김남국 / ☎ 031-249-2760

## 나. 호주 퀸스랜드주와의 교류협력

지난 1997년 11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호주 퀸스랜드주와는 오래된 관계 만큼이나 깊고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4월에는 퀸스랜드주를 방문하여 환경분야 및 디지털 콘텐츠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함과 함께 2008년 경기국제보트쇼 홍보 및 해양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의 성과로 2008년 6월 경기도에서 개최된 경기국제보트쇼에 주 대표단이 파견됨은 물론, 행사기간 중 자매결연지역 주정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호주 퀸스랜드주의 해양산업은 물론 경제·문화 등 전방위적 교류강화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8. 4. 도 대표단 대양주(호주 퀸스랜드주) 방문

양 지역은 이러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2008년에 이어 2009년 경기국제보트쇼에도 퀴스랜드주는 비즈니스 대표단을 파견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올해 퀴스랜드주 단독 개최한 '주정부의 날' 행사를 확대하여 자매결연 3지역(경기도-퀴스랜드주-BC주)간의 해양산업 공동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김남국 / ☎ 031-249-2760

## 다. 기타 지역과의 교류협력

캐나다와 더불어 북미지역의 교류협력 거점지역인 미국의 경우 텍사스주·유타주·버지니아주·플로리다주와 자매결연 및 경제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향후 캘리포니아주와의 협력관계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1999년 3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스페인 까탈루냐주와는 그간의 양 지역 연구기관 간의 교류협력성과를 바탕으로 「과학단지 및 기술육성 협력 MOU」를 체결(08.12.12)하여 양 지역 간 연구기관 및 대학의 기술개발, 기술의 상용화, 기업창업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에 합의하였다. 특히 향후 교류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지역선정에 “선택과 집중”을 기해 도정의 글로벌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교류협력단계의 준수를 통한 무분별한 자매결연지역의 확대를 방지함과 동시에 기 체결된 국제교류지역과의 관계강화와 실질적인 사업영역확대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이희영 / ☎ 031-249-2773

## 1-5. 개발도상국 국제협력사업 추진

### 가. 현황 및 배경

경기도는 2003년 이라크전쟁 난민 지원을 위해 의료봉사단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지진피해지역, 동티모르 의료지원 등 지구촌 재난재해 지역의 구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 인프라 지원과 재외동포의 정체성 확립을 돕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아가 지구촌 상생과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나. 추진성과



2008. 8. 5 ~ 8. 8 몽골 국립과기대 자동차정비학과 교수진 교육



2008. 3. 26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전통약기·한국도서 기증식

2008년도에는 네팔, 라오스, 몽골, 우즈벡,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등 7개국에 주민복지센터 건립지원, 자동차정비교육, 한국문화 보급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앞선 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몽골의 경우 운행중인 자동차의 50% 이상이 한국산이기 때문에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정비교육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 대학에 한국어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동포 뿐 아니라 러시아 현지인에게도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08 경기도 대외원조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대상지역	사업비
소 계		644
한국문화교육 지원 및 전통문화공연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75
러시아 연해주고려인 모국방문초청사업 지원	러시아 연해주	9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재정지원	중국 쓰촨성	316
꾸린탈 지역 복지센터 건립	네팔 치투안시	60
비엔티엔시 청소년개발센터 건립	라오스 비엔티엔시	39
바이안헝거르 도시환경정비	몽골 바이안헝거르 아이막	30
몽골국립과기대학 자동차정비기술교육	몽골 울란바토르	15
볼고그라드사범대 한국어강좌	러시아 볼고그라드주	50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몽골, 우즈벡	50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는 경기도와의 우호협력체결(2008. 3. 26)을 기념하여 전통공연과 교육교구를 지원하는 등 한국문화보급에도 앞장서 왔다.

## 다. 발전방향

경기도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천연자원, 인적 네트워크 등 미래가치의 확보를 돕고 글로벌 경기의 브랜드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협력사업에 대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며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등 개발도상국 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엄기진 / ☎ 031-249-2453

## 1-6. 한·미 친선교류 사업

### 가. 현황 및 성과

경기도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평택이전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갈등해소 및 협력제고를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문화·산업시찰(3회), 한·미 가족 간 인연 맺기(2회), 한·미 어린이 문화체험(3회), 한·미 화합의 전통문화체험(1회), 한국 문화·역사 및 한국어 강



좌(25회), 한·미 화합의 한마당(2회), 한·미 친선교류지원(3회)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한국의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상호 이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초임 장병들을 대상으로 주한 미8군 사령부, 평택대학교와 협력 사업으로 운영하는 한국 문화·역사 및 한국어 강좌는 주한미군 당국으로부터 장병들의 한국군무 적응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08년 한·미교류사업 실적

구 분	회 수	참여인원
계		17,719명
한·미 문화체험	9회	924명
- 문화·산업시찰 (5~11월, 도내 일원)	3회	184명
- 한·미 가족 간 인연 맺기 (9~11월, 도내 일원)	2회	148명
- 한·미 어린이 문화체험 (5~10월, 도내 일원)	3회	392명
- 한·미 화합의 전통문화체험 (11월, 수원 패트리엇미사일부대)	1회	200명
한국 문화·역사 및 한국어 강좌	25회	1,395명
한·미 친선 문화교류	5회	15,400명
- 한·미 화합의 한마당 (9월, 평택시 안정리 및 신장 소핑몰)	2회	10,000명
- 한·미 친선교류지원 (8, 12월, 평택시청 및 수원시 일원)	3회	5,400명

## 나. 주한 미군의 참여 확대

주한미군의 훈련일정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미군 장병들만이 한·미 친선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주한미군 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한 미군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다. 동반자적 협력 관계 구축

경기도(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로 가시화됨에 따라 주한미군과 가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간의 갈등해소 및 협력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참여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양하고 유익한 친선교류 프로그램실시를 통하여 상호 동반자적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김정현 / ☎ 031-249-2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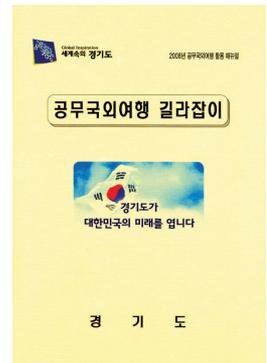
## 1-7. 공무국외여행 운영 개선

경기도는 2008년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모든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관광성 출장은 억제하고,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출장은 권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였다. 연 초에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해외출장 계획의 총괄심사 및 월별 개별심사를 통하여 출장의 중복성 및 관광성 여부, 방문 지역 및 기관이 출장목적에 맞게 선정되었는지를 심사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장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국제매너, 서바이벌 외국어 등을 수록한 해외출장 매뉴얼책자를 발간하여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러한 강화된 제도는 그 동안 우리나라 공무원 해외출장이 관광성이나 포상성으로 왜곡되고, 특히 출장결과의 활용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실용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무국외여행 길라잡이”책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간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운영계획 및 절차안내, 해외 지역정보 및 방문기관 섭외 방법 등 소개, 외국 방문기관 발신용 서한문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충실한 사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위한 표준 양식,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관계 법령도 포함하였다. 제2부에 해당하는 “여행의 기술”에서는 외국에서의 매너와 유용한 정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현지에서 유용한 외국어를 수록하여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2008년 하반기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인 경제상황 악화,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지표들의 급등락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특히 환율급등은 공무국외여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항공료를 포함한 국외출장 관련 각종 비용의 증가, 환율손실로 인한 여비의 절대적 부족 등에 따른 외화의 과다유출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이렇게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하여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공무국외여행의 자제를 촉구하여, 도,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총 96건 739명의 인원이 출장을 취소하였거나 연기하였다.



《환율급등에 따른 출장자제 실적》 : 총 96건 739명

- 출장취소 : 47건 379명 출장취소
- 출장연기 : 32건 202명 출장연기
- 인원을 축소하여 출장 : 7건 23명
- 해외출장의 국내출장 전환 : 9건 134명
- 출장기간 단축 : 1건 1명



또한 경기도는 이러한 우수한 행정 사례에 대해서 11월 7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한 『2008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 대회는 246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참가대상으로 국제교류, 내향적 국제화, 국제화 인력양성 3개 부문에 응모한 자치단체 중 1차 심사를 거친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본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경기도는 국제화 인력양성 부문에서 『Global Inspiration - Gyeonggi, 세계를 무대로 세계와 호흡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주제로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무원 해외출장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외여행 길라잡이 발간, 해외여행 결과에 대한 인터넷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무원외여행 운영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국제관계자문대사 및 공무원외여행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운영 사례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과 연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박의정 / ☎ 031-249-5287

## 2. 수출지원 추진

### 2-1. 경기 우수 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 가. 배경 및 현황

중국·인도 등이 신흥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점유율을 잠식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고 및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02년부터 경기우수상품전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경기우수상품전시회는 전시회 단체(개별) 참가 시 부스 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전문 전시장(호텔)을 임차하여 경기도 단독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며 동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전시장 임차료, 부스 설치비, 장치비, 제품 운송비(편도),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24회 개최하였으며 계약 가능액은 393백만불에 이른다.



동경 우수상품전시회(참가기업 환영만찬)



카이로 경기우수상품전시회(상담장면)

## 나. 추진성과

2008년도에는 도쿄, 부다페스트, 카이로, 싱가포르 4개 지역에 152개 기업이 참가하여 40백만 달러의 계약성적을 거두었다. ASEAN, EU와의 FTA 추진 및 중양아시아의 정치·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개최지를 선정하고 현지 텔레마케팅과 지속적인 언론 홍보를 통하여 다수의 유력 바이어를 유치함으로써 2008년도에는 높은 사업성적을 거양하였다.

## 다. 발전방향

2009년도에는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총4회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동유럽·동남아시아 및 선진 시장인 일본을 도내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 목표이다.

특히, 상담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사전 섭외된 바이어 및 광고를 통한 불특정다수 바이어가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담성과가 궁극적인 계약 및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업체 및 바이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심영린 / ☎ 031-249-2458

## 2-2. 국제무역박람회·전시회 참가

### 가. 현황 및 배경

세계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산업, 기업 내 무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BRICs 등 신흥시장의 부상에 따른 수출경쟁이 심화·증대됨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세계무대로 진출하려는 의욕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도내 많은 중소기업체는 자금난, 인력난, 기술부족 등으로 아직도 독자적인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도내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면서도 자력으로 해외시장 진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해외유망시장을 대상으로 국제무역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BRICs 등 시장성이 높은 유망지역에 대한 수출 상담회도 병행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과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 나. 추진성과

2008년도에는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을 통해 21회에 걸쳐 217개 업체를 파견하여 13억 161달러의 수출 상담과 2억 5,145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성과

일련번호	전시회명	개최기간	개최국	업체수	참가성과(건/천불)			
					건수	상담액	건수	계약가능액
	합 계			217	5,510	1,301,612	1,620	251,451
1	라스베가스 전자소비재 박람회	1.7-10	미국	15	216	32,186	97	4,719
2	하노버 국제 정보통신 박람회	3.4-9	독일	10	391	227,820	100	11,566
3	멕시코 국제 플라스틱 산업전	4.18-11	멕시코	10	187	61,618	104	27,123
4	대만 국제기기 보안전	4.16-18	대만	10	201	42,222	203	17,692
5	버밍햄 국제 보안장비전	5.12-15	영국	10	88	11,760	61	2,182
6	러시아 국제 금속산업기계전	5.26-31	러시아	10	232	36,194	66	13,198
7	브라질 국제 보안장비 박람회	5.27-29	브라질	5	138	25,190	-	7,524
8	브라질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	6.10-13	브라질	10	163	13,066	64	3,745
9	태국 국제 포장기자재전	6.11-14	태국	10	354	21,526	114	8,800
10	홍콩강성 무역상담회	6.15-19	중국	14	468	65,719	205	9,938
11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6.17-20	싱가포르	10	248	41,291	131	13,884
12	일본 국제 선물용품 전시회	7.9-7.11	일본	10	261	20,954	141	5,858
13	상해 한국기계전	7.9-7.12	중국	10	497	51,350	91	6,180
14	모스크바 자동차부품 전시회	8.28-9.1	러시아	10	174	12,948	58	5,889
15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박람회	9.16-21	독일	10	189	25,726	46	7,654
16	홍콩전자전	10.13-16	홍콩	10	317	22,840	7	4,786
17	두바이 정보통신 기술전	10.19-23	두바이	8	306	6,554	3	416
18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전시회	11.4-6	미국	10	168	46,989	81	16,591
19	상하이 아시아 전자전	11.14-17	중국	15	-	488,369	-	79,018
20	두바이 건축기자재 박람회	11.23-27	두바이	10	666	37,925	1	50
21	인도네시아 산업기계전	12.3-6	인도네시아	10	246	9,365	47	4,638

## 다. 발전방향

2009년 국제박람회 경기도관 참가는 총 18회 참가를 계획하는 한편 그간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한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 사업은 업체가 가장 필요한 박람회에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술력과 제품성이 우수한 유망수출상품의 해외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한명애 / ☎ 031-249-2461

## 2-3. 통상촉진단 파견

### 가. 현황 및 배경

통상촉진단은 1992년도부터 시작된 도의 수출 지원 사업으로 1998년도까지는 통상개척단으로 명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1999년부터 시장개척단으로 다시 2003년부터는 기존 시장개척지역의 내실 있는 통상 촉진을 유도하고자 통상촉진단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유망지역에 대한 판로개척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왔다.

특히 1999년부터는 이러한 시장개척단을 더욱 발전시켜 3~4개 업체로 소규모 시장개척단(미니세일즈단)을 구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출 틈새시장 공략을 적극 시도하였다.

또한 짧은 상담기간 동안 최대한의 계약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파견지역, 시기, 품목, 파견업체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KOTRA, 한국무역협회, 벤처협회 등 수출유관기관에 사전 시장조사를 의뢰하여 시장개척 전망이 뛰어난 업체를 중점 선발하여 왔다.

### 나. 추진성과

통상촉진단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163회에 걸쳐 374개 국가에 1,782개 업체를 파견하여 14억 1,117만 달러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두었으며, 2008년에는 16회를 파견하여 2억 3,092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업의 신규진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BRICs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시장 진출 시 필요한 현지의 각종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내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고자 3개 지역에서

“BRICs 지역 시장개척 단기연수 사업”을 실시하여 기업의 수출통상 활동을 촉진하였으며,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개척 경험이 적은 도내 중소기업체들에게 판로개척 및 시장 확대를 꾀하고 현지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여 새로운 품목개발, 판매전략 수립, 신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상품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세계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다. 발전방향

사전에 파견예정지역의 시장정보 제공과 무역환경, 상관습 등을 교육하여 상담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해외무역관,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하여 바이어 명단과 현지 시장동향을 참가기업에 제공하여 사전에 바이어와 상담이 이루어져 현지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담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할 것이다.

연도별 통상촉진단 파견·상담 실적

(단위: 천불)

구분 년도	파견회수 (국가 수)	참가업체	계약액	상담액
계	147(339)	1,782	5,193,084	6,948,884
1992	2 ( 8)	20	86,724	40,000
1993	4 ( 14)	44	220,937	85,834
1994	2 ( 7)	22	89,985	47,041
1995	3 ( 10)	35	70,017	47,121
1996	9 ( 21)	93	251,663	268,598
1997	7 ( 17)	72	126,330	202,378
1998	4 ( 16)	43	123,411	142,519
1999	4 ( 12)	44	55,186	132,167
2000	5 ( 15)	57	104,798	186,542
2001	6 ( 9)	67	159,263	240,651
2002	15 ( 29)	147	416,559	599,210
2003	18 ( 53)	185	791,707	1,000,000
2004	18 ( 39)	184	559,473	1,100,000
2005	16 ( 32)	213	802,869	1,060,000
2006	18 ( 36)	184	351,002	760,000
2007	16 (21)	198	443,283	805,904
2008	16 (35)	174	230,919	539,877

담당자 : 교류통상과 김근기 / ☎ 031-249-4661

## 2-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가. 현황 및 배경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나 해외진출 및 수출판로개척 경험이 미흡한 내수위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구매력 있는 해외 유망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도내 업체와의 상담기회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수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나. 추진성과

2008년도에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유망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수출상담회에는 도내 기업체는 283개사가 참가하여 2억 1,613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두었다.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상담장면)

### 2008년 해외유망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성과

연도별	도내상담참가업체	성 과 (천불)		비 고
		계 약	상 담	
2008	283개사	619건	216,131천 달러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유망 바이어 초청

## 다. 발전방향

KOTRA 등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적합하고 구매가 유망한 바이어의 선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술이전 및 현지부품 공장설립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김근기 / ☎ 031-249-4661

## 2-5. 무역전문인력양성

### 가. 현황 및 배경

도내 중소무역업체 임직원 및 관련기관의 무역실무 능력을 배양하여 국내외 급격한 무역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1995년부터 『무역 전문인력 양성강좌』를 운영하여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나. 추진성과

도내 중소기업체 임직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및 사례중심의 강좌운영을 통해 그동안 5,889명의 전문 무역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이들이 해당업무에 즉시 그 지식을 활용하여 수출증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무역 전문 인력 양성교육은 교육내용을 수요자들이 무역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역실무개요, 신용장개설, 무역계약, 통관 및 환급업무, 무역운송 및 해상보험, 무역연습 및 서식작성 등의 과목을 실무와 사례중심으로 강의하며 2008년도는 무역초급과정(6회), 무역영어과정(2회), 무역마케팅과정(2회), 무역클레임 예방과정 등(2회)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수강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개편운영(초급과정 → 무역영어 → 무역마케팅 → 통관 및 운송 → 무역클레임 예방)함으로써 무역초급실무능력배양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무역업무추진에 기여하였다. 무역초급과정은 도내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일간 총 21시간 집중교육을 실시하였다.

## 다. 발전방향

경기도에서는 2009년도에 무역중국어 과정을 추가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도 교류통상지원 사업 연계 및 대외무역환경 적응을 위한 세미나 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무역전문인력 양성실적

년 도	기 수	등 록	수 료	수료율(%)
합계	145개기	7,288	5,889	81
1995	4개기	255	148	58
1996	6개기	546	277	51
1997	8개기	315	280	86
1998	9개기	559	465	83
1999	14개기	984	799	81
2000	18개기	808	714	87
2001	15개기	1,036	790	77
2002	9개기	433	404	92
2003	9개기	460	410	89
2004	9개기	362	288	79
2005	9개기	346	284	82
2006	10개기	479	382	80
2007	13개기	316	296	95
2008	12개기	389	352	91

담당자 : 교류통상과 한명애 / ☎ 031-249-2461

## 2-6.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가. 현황 및 배경

세계 각국은 안전, 환경 등에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는 기술수준을 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상품만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유통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의 영세 중소기업체는 전문 인력 및

해외정보 부족 등으로 독자적으로 인증마크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0년부터 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CSA(캐나다), CE(유럽공동체), GOST(러시아), CCC(중국), JIS(일본), QAS(호주) 등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시 업체당 인증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나. 추진성과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년도별	예산액	지원기업	평균지원액
2000	100,000	20개사	5,000
2001	250,000	47개사	5,319
2002	250,000	41개사	6,098
2003	252,000	53개사	4,755
2004	500,000	89개사	5,618
2005	500,000	82개사	6,098
2006	600,000	99개사	6,061
2007	1,200,000	210개사	5,530
2008	1,200,000	273개사	4,396

## 다. 발전방향

수출지원 효과가 커 기업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술력이 있으나 수출기반이 취약한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의욕을 고취시켜 수출경쟁력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김근기 / ☎ 031-249-4661

## 2-7.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 가. 현황 및 배경

1998년까지 도에서 지원하여 오던 수출 지원 자금이 WTO(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직접보조금 지급규정에 저촉되어 폐지됨에 따라 1999년부터는 수출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소정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이 발굴 시행하게 되었다.

### 나. 추진성과

2008년도에는 단기수출보험, 선적 전·후 수출신용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등 7개 종목을 지원하였다.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851개 업체에 33억 2,50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400개 업체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업체들의 수출계약을 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09년도에는 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다. 발전방향

수출보험료는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자의 파산, 계약파기, 대금지급지연 등으로 인한 수출자의 손실을 보상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수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송 및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도내 수출보험 거래업체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보험보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김근기 / ☎ 031-249-4661

## 2-8. 국제비즈니스센터 운영

### 가. 현황 및 배경

경기도에서는 수출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신규 무역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국제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제비즈니스센터는 전문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외국어 통·번역, 무역계약서 작성, 카탈로그 및 수출홍보물 번역 등의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기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나. 추진성과

2008년도 지원실적은 1,202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수출홍보용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번역이 1,074건(89.4%), 외국어 통역 63건(5.2%), 무역투자 계약서 및 기타 상담이 65건(5.4%) 등으로 나타났다.

### 다. 발전방향

경기도에서는 국제비즈니스 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 각 언어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경기도내 모든 지역에서도 불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심영린 / ☎ 031-249-2458

## 2-9. 인터넷무역 활성화 지원

### 가. 현황 및 배경

컴퓨터와 통신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특징지어지는 인터넷시대는 과거의 무역 관행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샘플과 카탈로그를 들고 바이어를 찾아 나서는 일반 무역관행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어느 바이어와도 실시간(Real-time) 상담이 가능하고 판매 및 구매를 희망하는 제품의 검색이 가능한 사이버무역이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국경이 사라져 가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는 과거의 무역행태로는 기업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인터넷무역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 인터넷무역센터”를 중기센터에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나. 주요 지원시책

인터넷무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99년 5월 12일 경기인터넷무역센터(GIT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무역 지원대상 업체인 “인터넷무역프론티어기업”을 선정, 인터넷무역 마케팅대행 등 무역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GIT센터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해외바이어 발굴에서부터 무역업무 대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GIT센터의 주요 인터넷무역지원시책

- 인터넷무역프론티어기업
  - 프론티어기업이란 인터넷무역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전자카탈로그, e-book제작 및 해외바이어 발굴, 필요시 무역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출·입 활동을 One-Stop서비스로 지원받는 기업
-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운영
  - 전세계 거래알선 사이트에 자동으로 Selling Offer를 등록하고 Buying Offer를 검색해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 특히 검색된 Offer에서 바이어 정보를 추출해 E-mail로 전자카탈로그를 발송해 주며 Inquiry가 들어왔을 때에는 자동 응대 메일을 보내주어 신뢰 제고
- 기타 지원사업
  - 인터넷무역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무역 실무 교육 및 경기도 지원 전시회, 통촉단 참가 후 바이어 상담 및 수출계약체결에 필요한 후속관리를 지원

## 다.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지금까지 육성한 인터넷무역 프론티어 기업은 총 1,397개사이며, 2008년도에는 수출상담 및 거래 알선으로 813건에 6,301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활동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이며, 전자무역시대에 기업 스스로 생존하여 기업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교류통상과 한명애 / ☎ 031-249-2461

### 3. 외국인주민 종합 지원

#### 가. 현황

경기도 거주 외국인 수는 277,991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전국 891,341명의 31.2%를 차지하며 전국 최대 규모이다. 우리 사회는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진 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2007년 5월 제정하는 등 외국인 지원을 위 한 법·제도적 준비에 나서고 있다. 거주 외국인의 국내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책 수행의 모세혈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지원과 내국인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2007년 외국인 지원 총괄 조정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한 이후 거주 외국인지원 을 위한 인프라 구축, 외국인근로자 권익 신장,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주요 지역별 거주 외국인 수

순위	시군명	거주 외국인 수(명)
	합계(도)	277,991
1	안산시	36,387
2	수원시	25,019
3	화성시	24,119
4	성남시	18,344
5	시흥시	16,665
6	부천시	16,455
7	용인시	16,106
8	고양시	13,393
9	김포시	13,161
10	광주시	9,982
	기타 시군	88,360

주요 지역별 거주 외국인 수

지역별	거주 외국인 수(명)
합계(도)	277,991
중국	156,026
베트남	22,062
필리핀	18,897
태국	14,414
몽골	9,831
인도네시아	7,395
미국	7,290
기타국가	42,076

※ 자료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08), 행정안전부

## 나. 추진실적

광역시·도에서는 최초로 외국인 총괄 부서를 설치하였고(2007년 2월), 다문화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 11월 법무부-IOM-경기도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4개시에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화성시는 2009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로 건립하였으나, 대상 및 기능을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서 외국인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의료, 생활안내, 고충상담 등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거주 외국인의 정주 지원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24시간진료시스템을 경기 남·북부의 2개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 강좌 및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이동법률상담, 법률 지원 강좌 등 고충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내 영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무료 의료 지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노동 및 법률문제 상담, 귀환 준비를 위한 교육, 고용주 교육 등 실질적인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을 위해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지도사 1인당 3가정 지원, 1

경기도 내 외국인복지센터 건립 현황

명칭	사업비 (백만원)	시설규모	준공(예정)일	운영방식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화도읍 녹촌리 33-9)	2,143 (도비1,500, 시비643)	건물:577평대지 : 778평 ※지하1층, 지상4층	'05. 10. 23 개관 ※건물신축	민간위탁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72-2)	2,100 (도비1,500, 시비600)	건물:300평대지 : 90평 ※지하1층, 지상4층	'07. 3. 9 개관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민간위탁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 정왕동 1366-6)	2,226 (도비1,500, 시비726)	건물:417평대지 : 500평 ※지상4층	'07. 11. 11 개관 ※건물신축	민간위탁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1-1)	2,991 (도비1,500, 시비1,491)	건물:553평대지 : 766평 ※지하1층, 지상3층	'08. 3. 23 개관 ※건물신축	안산시 직영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24-2)	3,288 (도비1,500, 시비1,788)	건물:400평대지 : 320평 ※지하1층, 지상3층	'09년 준공예정 ※건물신축	민간위탁

가정당 주2회)와 아동양육지원(지도사 1인당 4가정 지원, 1가정당 주 2회)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소식지 발간 및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책자 제작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 다. 향후 계획

경기도는 전국 어느 광역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지원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정착하고 각자의 소양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토대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지원 관계자 및 전문가,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외국인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책위원회의 내실화 등 외국인지원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계획이며, 현재 4개소 운영 중인 외국인복지센터를 1개소(화성시) 추가 건립(도비 개소당 15억원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외국인주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과의 화합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앞으로 외국인주민 수의 증가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외국인주민 지원 체계 구축과 의료, 언어, 생활, 고용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가족여성정책과 김청수 / ☎ 031-249-2585

### 제3절

## 경제 재도약의 신성장동력 육성

1. 과학기술 혁신기반 조성
2.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3.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4. FTA에 대한 능동적 대응
5. 2008년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 1. 과학기술 혁신기반 조성

## 1-1. 경기북부 LCD클러스터 조성

### 가. 현황 및 성과

LCD클러스터는 파주시 일원에 TFT-LCD 패널 생산업체인 LG디스플레이 LCD파주공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품 및 소재에서 TV 등 완제품 생산업체까지 입주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LCD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가 2003년부터 추진하는 전략사업이다.

LCD클러스터의 총 규모는 4,506천㎡로 4개의 산업단지로 구성되며 2012년까지 27조원의투자과 42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에 획기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 LCD클러스터 개요

산업단지명		개발면적	입주업체
계		4,506천㎡	-
파주 LCD(본단지)		1,712천㎡(공장 1,120, 기타 592)	LG필립스 LCD외 협력업체 3개사
문산 첨단 (협력단지)	당동지구	641천㎡(공장 239, 기타 402)	외국인 LCD관련 업종 20여개사
	선유지구	1,313천㎡(공장 693, 기타 620)	국내 LCD관련 업종 80여개사
파주 월롱(LG 계열사 단지)		840천㎡(공장 567, 기타 273)	LG계열사 4개사 (전자·화학·마이크론·이노텍)

### 나. 주요 추진현황

경기도와 LG디스플레이사간 MOU를 체결후 약 13개월만인 2004년 3월 18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2008년 4월 산업단지를 준공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7세대 TFT-LCD 판넬 생산을 시작하여

2007년 기준 109,000장의 TFT-LCD 패널을 생산하고 있고 2008년 8월부터 8세대 공장의 설비를 투자하여 2009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력단지(문산첨단 산업단지)중 당동지구는 LCD관련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로서 2005년 7월 착공하여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99% 진행되었고, LCD용 유리 생산업체인 PEG(파주전기초자)가 2006년 6월 공장 준공 등 현재 4개 기업이 가동하고 있으며, 선유지구는 LCD관련 국내 중소기업 단지로서, 2005년 8월 착공하여 65개 중소기업에 분양되었으며 12개사가 가동 중으로 2009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LG전자 등 4개의 LG개열사가 입주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고 수도권 대기업 8개 첨단업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신·증설 허용된 월릉첨단 산업단지는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2월 18일 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2007년 10월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2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말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LCD클러스터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진입도로, 공공시설(단지내 도로 및 녹지 등),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 적기에 설치되도록 관련기관 협의 및 자금을 지원하였다.

※ 2007년도 자금지원 : 협력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지방비 140억원) 및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국비 92억원)

## 다.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2012년까지 약 27조원의 투자 및 42천명의 고용창출로 낙후되었던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와 수



파주LCD산업단지 조감도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



조감도문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월롱첨단사업단지(LG계열사) 조감도

도권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LCD 클러스터 구축을 통하여 국내 TFT-LCD패널업체 및 소재·부품 산업간 지리적 집적뿐 아니라 공동개발, 기술교류 등 강력한 파트너십강화가 예상된다.

또한, 지리적으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요충지로서 현재 남북관계 개선에 의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경제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 산업정책과 이상승 / ☎ 031-249-4617

## 1-2. 국립과학관 건립

### 가. 추진배경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 진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일반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관은 국민의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한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이나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양적·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과학관이 있으나 협소한 부지와 시설의 노후화로 첨단과학관의 신규 건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경기도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대국민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전담으로서 새로운 국립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 나. 추진현황

과천시 과천동 700번지 일원에 건설된 국립과학관은 243,970㎡ 부지에 건물면적 49,890㎡의 규모로서 총사업비 4,437억원 중 경기도에서 948억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489억원을 부담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6년 4월 25일 착공하여 2008년 11월 14일 준공되었다. 주변에는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과천경마장,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같이 여가 문화활동 목적의 방문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수의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관람객 유치에도 아주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존의 개념을 탈피하여 과학과 자연 및 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과학관으로 수도권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조성되었다. 국립과학관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과학관 본관 전시관은 자연사관, 전통과학관, 첨단과학관, 기초과학관, 자연사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기타 시설로 과학광장, 옥외 전시장, 생태체험학습장, 과학캠프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 다. 발전방향

첨단기술관 등 5개의 상설전시관을 채우게 될 총 700여 주제의 2,000여 전시품은 기존의 정적이고 단방향의 전시개념을 탈피하여 관람객이 직접 전시품을 작동하며 체험할 수 있는 쌍방향 전시개념이 강화되어, 새로운 과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교육의 인프라 시설로서



국립과천과학관 조감도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담당자 : 과학기술과한영조 / ☎ 031-249-3506

## 1-3. 경기도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육성

### 가. 추진개요

경기도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소요 재원은 총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30%를 부담하게 된다.

지원 분야와 사업과제는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텔레매틱스 복합단말기 핵심부품 개발사업, 지능형차량정보 관리용 복합 통신모듈 개발사업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분야에 Resonant Cavity형 차세대 나노 수·발광 집적 모듈 개발사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건식세정공정용 플라즈마 전원장치 개발사업, 50nm급 Photomask 기술 개발사업, 차세대 Digitalized Deposition System 및 소스 개발사업과 바이오신약 분야에 당뇨병 치료제 voglibose 생산 공정개발사업, 척추손상 및 루게릭병 치료제의 개발사업과 디지털콘텐츠 및 TV방송 분야에 다매체를 지원하는 양방향 디지털 TV시스템 개발사업, 차세대 전자상거래 콘텐츠 관리용 유비쿼터스 DRM 기술개발사업 등 5개 분야 10개 사업을 선정하고 기술개발에 주력하였다.

### 나. 추진현황

경기도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은 2008년까지 도내 12개 중소기업과 8개 이공계 대학교 그리고 1개 연구기관이 10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5년간 도비 88억원, 대학·연구기관·기업 39억원 등 총 사업비 127억원이 투자되었고, 특허출원 61건, 특허등록 20건, 논문발표 157건, 석·박사 인력배출 83명 등의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개발된 기술은 참여 중소기업에 이전되어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도내 차세대 선도 기술 기업을 발굴할 것이다.

## 다. 발전방향

경기도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의 추진 진도 등의 전문평가를 실시하여 원천기술과 참여기업의 상품화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담당자 : 과학기술과 김문수 / ☎ 031-249-4489

## 1-4.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육성

### 가. 추진개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sup>1)</sup>)는 기존 RRC<sup>2)</sup>사업 규모가 지역 특성상 기업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집중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소재 이공계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자원 연계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의 연구 활동 활성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기업 지원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기본 3년, 최장 9년(연구기관은 6년)으로 소요재원은 도 및 대학과 기업이 매칭펀드로 조성한다.

지정된 센터는 경희대 영상정보소재기술연구센터를 비롯하여 한경대, 아주대, 전자부품연구원, 한양대, 중앙대, 가톨릭대, 경기대, 한국외국어대, 성균관대, 한국항공대, 단국대, 수원대, 경원대<sup>2)</sup> 등 15개 센터를 지정하였으며, 대학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전략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신규 지정은 하지 않으나 GRRC 센터의 내실을 기할 계획에 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센터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인프라구축(1단계), 연구개발 활성화(2단계), 연구성과 활용(3단계)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집중 육성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맞추어 사업비도 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 GRRC : Gyeonggi-do Regional Research Center(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2) RRC : Regional Research Center(지역협력연구센터)

## 나. 추진현황

2008년까지 831개 관내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총 1,033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도비 지원금은 264억원이 투자되었고 특허출원 254건, 제품개발 225건, 기술이전 205건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 다. 발전방향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혁신기술의 선도적 위치에서 특화된 산업분야에 서 짧은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수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보다 많은 연구 성과가 도 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품화와 산업화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지원과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지역의 기술개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자 : 과학기술과 유응현 / ☎ 031-249-4671

# 1-5. 지역혁신센터(RIC) 육성

## 가. 추진개요

지역혁신센터(RIC)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에 따라 지역 전략육성 분야와 대학 특성화 분야에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간의 혁신역량을 높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10년으로 소요 재원은 산업자원부와 경기도, 대학과 업체가 매칭펀드로 조성하며, 우리도에는 천연 신기능소재 개발을 연구하는 명지대, 인터넷 정보검색 개발을 연구하는 항공대, 정보통신용 신기능소재와 공정을 연구하는 성균관대, 디스플레이부품소재기술 개발과 피부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경희대, 바이오 메디-테크산업육성을 위한 을지대 등 6개의 지역혁신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 나. 추진현황

2008년까지 669개 업체가 참여하여 989건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도비는 220억원이 투자되었고, 특허출원 370건, 제품개발 233건, 기술지도 2,089건 등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 다. 발전방향

지역혁신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내 부족한 연구 인프라의 확보와 기업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담당자 : 과학기술과 유응현 / ☎ 031-249-4671

# 1-6.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가. 추진배경 및 경위

정부는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 건설을 위해 제1기 신도시인 분당 등 5대 신도시를 건설하였으나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화 됨에 따라 교통·환경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후 경기도는 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택지개발사업에서 주거지역 뿐 만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자족기능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판교 신도시는 자족기능 확보는 물론,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Global Cluster로 육성할 계획이다.

### 주요 행정절차 이행사항 >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교부, 2001.12)
- 공동사업자 기본협약체결(경기도, 성남시, 토공, 주공, 2003.9)
-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2004.11)
- 판교테크노밸리 실시계획 승인(2006.3)
- 토지 계약체결(경기도→토공, 2006.4)
- 부지공급 승인(건교부, 2006.5)
- 입주예정기업 선정(2006.8)
- 부지매매 계약체결 완료(경기도 ↔ 입주기업/38필지, 2007.2)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는 총 면적 661,915㎡이며, 판교 신도시 전체면적의 7.1%로,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자족기능인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지 조성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06년 5월 2일 테크노밸리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말 현재 약 49%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부지조성비 1조 4천억원, 건축공사비 2조 4천억원 등 총 3조 8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판교 테크노밸리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약 8만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약 8만 4천명의 간접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총 1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9조 7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16만 4천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향후 추진계획

프랑스의 세계적인 바이오 연구기관인 파스티르연구소를 한국에 유치하기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협력,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국파스티르연구소(IP-Korea)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판교 테크노밸리 단지 입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2007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2009년 4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판교 테크노밸리 BT분야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판교테크노밸리 조감도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단지에는 2012년 12월까지 총 292개 첨단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지원 및 관리시스템을 조성하고, 각종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첨단 연구개발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과학기술과 첨단단지담당 김성완 / ☎ 031-249-4606

## 1-7.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가. 추진배경

첨단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중심지로 우수한 혁신역량 및 지리적인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광교테크노밸리는 국가간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미래의 먹거리 창출,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경기도의 비전과 의지를 담은 전략적 투자이



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산업적 집중도와 역량을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의 하이테크 산업구조로 재편하고 선택과 집중의 틀에서 R&D분야의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나. 추진현황

'08년 3월 2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개원을 끝으로 광교테크노밸리 1단계 조성이 완료되었다. 경기도가 5,700억원을 투자하여 269,404㎡부지에 건축연면적 223,440㎡의 규모를 자랑하는 광교테크노밸리는 기존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외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바이오센터, 경기 R&DB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5개기관이 잇따라 개원함으로써 국내를 대표하는 연구 중심의 첨단 R&D클러스터로서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지식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것이다.

### <광교테크노밸리 현황 >

-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 시설규모 : 부지 269,404㎡, 건축연면적 223,440㎡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 R&DB 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사업기간 : '04. 6 ~ '08. 2
- 사 업 비 : 5,700억원

## 다. 향후 추진계획

광교테크노밸리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R&D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각 기관별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산학연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주요 인프라 통합관리 모델 정립 등) 구축, 재정자립화,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전략 목표를 수립,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설관리, 홍보 등 공동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 가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고급 전문인력 (미래의 CTO/CEO)양성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내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 정규 석사학위 과정인 E-MBA과정과 국내 최초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하여 2009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광교테크노밸리 조감도

담당자 : 과학기술과 한은영 / ☎ 031-249-4634

## 1-8.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유치 및 건립지원

### 가. 추진배경

경기도는 바이오관련기업 및 제약업체와 그 부설연구소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우수한 인재 확보가 가능한 대학들이 산재한 생명공학산업의 중심지로, 글로벌 R&D센터를 경기도에 유치하여 산·학·연간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바이오기술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경기도의 생명공학산업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자 다양한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을 구상하였다.

그 일환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기초의과학 및 생명과학연구소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판교테크노밸리에 유치하게 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3자간 연구협약을 통하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건립과 함께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도내 IT, BT, NT기업의 응용기술을 접목하여 국내 신약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소장 : 울프 네바스, Ulf Nehrbass)는 생물학, 화학, 핵심기반기술 3개분야에

18개 연구그룹이 있으며, 이 연구분야에 101명의 순수 연구인력(박사급 41명, 해외 연구인력 12개국 28명)이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게놈에서 신약개발까지(Genome to Drug)”를 모토로 하여, 우수한 생물학의 기초연구성과를 신약개발로 발전시키는 “중개(전환)연구(Translational Research)”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나. 사업 추진경위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2003년 한국분소 설치를 위한 MOU체결(KIST-파스퇴르연구소)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내에 위치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나 2005년 경기도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경기도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MOU를 체결하고 이전기획위원회를 구성, 이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2006년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에 따른 3자(도, 과기부,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간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을 위한 건축비, 연구지원을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유치 및 건립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3,053억원으로 국비(1,600억원), 도비(809억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자체예산(64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판교테크노밸리내 삼평동 696번지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14,287㎡(4,322평), 건물연면적 15,199㎡(4,597평), 지상 7층 규모로 2007년 3월 기공식 이후 '08년 말을 기준으로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 다. 향후 추진계획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2009년 5월 개원함에 따라 더 확장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세계적인 연구개발시스템과 산업화의 노하우가 도내 기업 및 대학과 접목되어 경기도가 동북아 생명공학 R&D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판교테크노밸리내 설립한 나노소자특화랩센터,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R&D지원 기능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등 산업화 촉진 기능이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간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벤처기업 창출, 고급 연구인력 양성, 고용 증대,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 연구 역량 상승 등 경기도의 산업적 학술적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전경사진

담당자 : 과학기술과 정의정 / ☎ 031-249-4571

## 1-9.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 가. 사업추진 배경 및 특징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연구개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으로 기술과 신기술을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기청과 경기도, 중소기업이 재원을 공동투자하고 기술과제 해결을 중소기업 및 대학이 주도하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일반과제 1년(1억원 한도), 신기술, 신제품 등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선도과제(2년, 4억원 한도)로 구분되어 운영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추진 절차는 중소기업청 공고에 따라 기업에서 인터넷 접수 후 과제평가, 현장평가, 선정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과제는 중기청과 경기도, 중소기업간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 나. 추진현황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6년간(제16차) 4,123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산학 공동기술개발 사업은 국비 527억원, 도비 312억원, 업체 323억원 등 총 1,162억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4,061건의 기술과제를 수행하였다. 사업추진 성과로 특허·실용신안 등 1,068건의 산업재산권 출원과 제품개발 2,768건, 공정개선 2,225건 등 기술개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산학 기술혁신대전 등을 통하여 우수과제를 발표하고 연구책임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도 실시하고 있으며, 권역별 발표회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다. 향후 추진방향

산학 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중점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부터 일반과제와 선도과제로 구분되고 기존의 사업기간(1년 이내)에서 벗어나 연구기간이 1년에서 2년 이내로 기간이 늘어났으며, 사업비도 4억원 이내로 대폭 증액되면서 이에 따른 도비의 지원규모도 증가하였다.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및 성과

(2009. 4.30)

연도별	업체수	과제수	사 업 비 (백만원)					개발실적 (건)		
			계	국비	도비	업체	대학	특허실용	제품개발	공정개선
계	4,123	4,061	125,218	52,684	31,209	32,370	8,955	1,068	2,768	2,225
1993	38	36	598	200	199	199	-	1	23	13
1994	99	97	1,410	400	440	475	95	4	54	43
1995	137	137	2,355	591	799	844	121	16	75	62
1996	132	131	2,481	706	900	764	111	20	71	60
1997	168	167	3,299	1,000	1,000	1,040	259	27	85	82
1998	174	170	3,577	1,200	1,100	1,058	219	53	89	84
1999	216	212	4,606	1,500	1,300	1,412	394	62	106	73
2000	240	231	5,700	2,170	1,400	1,479	651	85	162	69
2001	355	343	9,321	3,990	2,100	2,352	879	114	226	149
2002	411	400	11,076	4,800	2,400	2,821	1,055	97	282	226
2003	414	402	11,562	4,770	2,720	2,926	1,146	84	331	237
2004	414	412	12,625	5,374	2,960	3,155	1,136	114	353	266
2005	377	375	12,218	4,731	3,265	3,219	1,003	153	295	257
2006	385	385	13,506	6,256	3,128	3,128	994	130	311	328
2007	355	355	15,284	7,196	3,598	3,598	892	108	305	276
2008	208	208	15,600	7,800	3,900	3,900	사 업 추	진	중	

이에 따라 과제별 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도정시책에 대한 기여도를 엄정 평가하여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추진을 활성화하여 산학 공동기술개발 사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산실이 되도록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자 : 기업지원과 김일수/ ☎ 031-249-4632

## 1-10. 경기과학멘토사업 추진

### 가. 추진개요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동기부여와 과학적 탐구능력, 창의력 계발 지원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멘토(Mentor)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기과학 멘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과학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특색사업이다. 과학멘토의 프로그램은 과학의 원리와 현장체험 중심의 실험교육 위주로 운영되며 학습기호에 맞추어 일상생활 소재를 구성하고 체험적인 학습을 통하여 과학적인 지식을 축적한다. 대학 등 주관기관의 전문인력과 인프라 등 교육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 나. 추진현황

2008년 경기과학멘토사업은 수원대학교 등 6개 대학을 비롯하여 부천산업진흥재단,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송암천문대 등 9개 기관이 멘토(Mentor)가 되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교수 및 연구원 등 574명이 참여하여 5,337명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동 사업은 과학교실 494회, 현장견학 18회, 과학캠프 5회 등을 실시하였고 전 기관 모두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 사업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3.5%, 수업만족도 83.5% 등 멘티들의 만족도와 사업성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참가학생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동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험 등 체험중심 프로그램으로 재미와 학습의욕을 제고하고 학습효과 또한 높아 학생보다도 학부모들이 더욱 더 참여에 열성적이다.



경기과학멘토사업 수업장면

##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인원이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학적 탐구능력 및 창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실시 및 주관기관간의 다양한 학습정보 공유와 교류를 통해 학습효과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과학기술과 강선희 / ☎ 031-249-4019

## 1-11. 경기과학축전 개최

### 가. 추진개요

경기도는 과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생활속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체험중심의 과학발견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학문적 접근성을 높여 우수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과학축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과학축전은 과학탐구·체험마당, 과학매직쇼 및 전시 등 과학의 원리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과학의 즐거움을 느껴보는 기회 제공은 물론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도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부를 창출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나. 추진현황

2008년 과학축전은 「상상·창조·미래 광고테크노벨리에서 만나는 과학체험」이라는 주제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경기도가 주최하고, 과학기술 공공기관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총 32개 기관 참여와 8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약 60,000여 명이 관람하였다. 이 축전은 경기 과학멘토사업 주관기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역혁신센터(RIC), 과학기술 공공·연구기관, 서울대 등 15개 대학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축전의 규모를 넓히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다.

축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74%, 과학인식도 92%로 높게 나타나 축전의 외연적인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 다. 향후 추진계획



과학매직쇼 및 우주과학 에너지 체험



과학탐구·체험활동 및 풍성한 볼거리 제공으로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동 사업은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 및 차별화를 통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가족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이며, 경기북부 청소년들의 과학문화에 대한 접근기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과학문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과학기술과 양경화 / ☎ 031-249-4006

## 2.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 2-1. 성장유망 국내전시회 지원 육성

#### 가. 추진배경

전시·컨벤션산업은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국제 규모의 전시회 개최나 컨벤션의 유치는 전시·컨벤션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발전 등 지대한 파급효과를 지니며,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 숙박 등 연관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시·컨벤션산업이 갖고 있는 파급효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전시·컨벤션 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전시·컨벤션센터 신규 건립 및 시설확충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전시·컨벤션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확충은 물론 전시회 및 컨벤션의 규모와 질적 수준을 국제수준 이상으로 제고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고양시, KOTRA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5년 4월 개장한 국내 최대 규모인 KINTEX(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를 동북아 대표 전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INTEX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의 전문화, 국제화, 대규모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06년부터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 나. 추진현황

2008년도에 경기도는 국내전시회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1,430백만원(국비 574, 도비 856)을 확보하여 KINTEX에서 개최예정인 전시회를 대상으로 경기도의 산업정책적 특성과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 26개 전시회를 선정하여 전시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홍보 및 바이어 유치, 참관객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한 예산을 전시주최자에게 지원하였다.

2007년에 이어 2008년 KINTEX 개최 도 지원 전시회(15개) 성과분석 결과 전시면적은 전년대비 8.8%, 참관객 수는 6.3%, 참가업체 수는 11% 등 각각 증가하여 계량적으로 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시회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2,257억원의 생산유발과 3,434명의 고용창출, 901억원의 소득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26개 전시회에 총 6,971개사가 참여, 2조 1,096억 원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중 경기도 소재 기업은 7,407억 원의 계약성과를 거두었다. 각 계량 비교지표별 지원성과는 다음 표와 같다.

### 2008 지원성과와 개최현황

구 분	전시면적(㎡)	참관객(명)	참가업체(개)
2008년	510,436	948,360	6,971



KINTEX 전경



2008 서울국제공작기계전 개막식

특히, KINTEX 개장에 따라 COEX, SETEC 등에서 KINTEX로 개최장소를 옮겨 국제규모의 전시회로 성장하는 등 KINTEX 개장이 국내 전시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KINTEX는 2008년 중 전시회 등 전시회 행사 90회, 컨벤션 398회를 개최하여 2,396,000명이 KINTEX를 방문하였으며 핵심산업 중심의 국내 최대 전시회(모터쇼, 경향하우징페어, 기계전, 전자전, 공작기계전 등)를 유치함으로써 국내 전시회의 대형화, 국제화를 선도하며 전시산업의 성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 2008 킨텍스 방문객 및 회의개최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가동률	49.70%	50.90%	53%	51%
전시회	58회	92회	89회	90회
컨벤션	215회	365회	376회	398회

## 2008 국내 전시회 지원현황

연번	전시회명	기 간	주최/주관
1	2008 경향하우징페어	2. 22 ~ 2. 28	(주)경향하우징
2	2008 오토모티브워크	3. 6 ~ 3. 9	KINTEX, 주유소협회 등
3	2008 자원및폐기물 관리 전시회	3. 25 ~ 3. 28	KINTEX, KOTRA, PORT J
4	제19회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 전시회	3. 26 ~ 3. 30	(주)한국이앤엑스
5	2008 서울국제공작기계전	4. 8 ~ 4. 13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6	칠드런 엑스포 2008	5. 1 ~ 5. 5	동아사이언스, KINTEX
7	2008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5. 14 ~ 5.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8	제13회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	5. 27 ~ 5. 30	(주)경연전람
9	2008 대한민국물류산업대전	5. 27 ~ 5. 30	KINTEX, 한국물류협회 등 5
10	2008 국제 부품소재산업전	6. 10 ~ 6. 13	KINTEX, (주)경연전람 등
11	국제LED EXPO 2008	6. 24 ~ 6. 27	엑스포엔유, 엘이디엑스포닷컴, KINTEX
12	2008 경기국제보트쇼(컨퍼런스, 투자설명회)	6. 10 ~ 6. 15	KINTEX
13	제6회 국제나노기술전시회	8. 27 ~ 8. 29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14	2008 한구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8. 28 ~ 8. 31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15	2008 시니어 엑스포	9. 3 ~ 9. 6	KINTEX
16	2008 ATEM FAIR	9. 24 ~ 9. 27	KINTEX
17	2008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9. 25 ~ 9. 28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8	제16회 국제인쇄산업전시회	9. 25 ~ 9. 28	(주)한국이앤엑스
19	랜덱스 2008	10. 2 ~ 10. 5	YTN
20	제5회 한국국제테널/도로/교량/철도 및 신교통전시전	10. 23 ~ 10. 25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21	200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10. 28 ~ 10.31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2	G-FAIR 2008(경기우수상품박람회)	10. 29 ~ 10.31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23	2008 국제음향산업전·국제공연산업전	11. 5 ~ 11. 7	(주)젠코리아
24	G★2008(국제계엄전시회)	11. 6 ~ 11.09	(사)지스타조직위원회
25	경기국제관광박람회	11. 13 ~ 11.16	경기관광공사
26	2008 한국전시산업전	12. 4 ~ 12.5	한국전시주최자협회

경기도는 지속적인 국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008년에도 전시회의 3요소(전시주최자, 참가기업, 관람객)를 이루는 참가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23개 시·군 380개 업체 지원, 760백만원)

### 다. 추진계획

또한 경기도의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을 위하여 2009년 1월 전시 및 산업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2009년도 지원대상 26개 전시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각 전시회에 대하여는 해외홍보 및 해외바이어·해외업체 유치활동을 위주로 지원할 계획으로, 그 효과로 해외업체 참가 및 해외바이어 방문자 수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9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 심사위원회



2008 경향하우징페어

담당자 : 경제정책과 장향정 / ☎ 031-249-2451

## 2-2. KINTEX 전시장 건립

### 가. 사업 추진 배경

전시산업은 무공해,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형 산업으로 인식이 확산되어 각국은 경쟁적으로 전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참가업체 또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마케팅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

다. 최근 전시산업의 세계적 추세는 국제화의 확산, 전시 마케팅 강화, 전문성과 브랜드화 추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특히, 전시회와 이벤트 및 컨벤션의 복합화 현상 등으로 단순 상품교역 범위를 벗어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정보교류 및 관광산업의 범위로 접목 또는 확대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존자원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여건이 현저히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산업자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전시산업에의 집중적인 투자 및 개발은 새로운 시장개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전시산업을 육성하고자 1999년 4월 28일 고양시에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유치를 확정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 의견수렴, 예산반영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3년 4월 15일 I 단계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5년 4월 29일 개장하였다.

개장과 함께 개최한 서울 모터쇼는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KINTEX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장에 걸맞게 2만㎡이상 대규모 전시회를 집중 개최하여 2005년도 가동률 49.5%, 2006년도 51%, 2007년도 53% 등 당초 예상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KINTEX는 일산신도시 건설 당시부터 전시산업단지로 부지확보가 검토 계획되었으며 세계우수의 전시장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어 국제무역 촉진 및 교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능 및 규모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동북아 대표 전시장으로 건립하여 21C 국가경쟁력 강화 및 무역중심지(Trade hub)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나. KINTEX 제2전시장 건립 추진

한국국제전시장은 국제교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수도권내에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 일환으로 2001 마스터플랜에 의해 2013년까지 부지 33만㎡, 연건평 27만㎡, 전시면적 총 17만㎡를 기준으로 건립하도록 산업자원부(KOTRA), 경기도, 고양시 3자간 1999년 9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I 단계부지조성 완료와 전시면적 54,000㎡ 전시장이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II 단계부지조성 및 전시장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와 함께 2009년 3월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I 단계 한국국제전시장은 개장 초인 2006년과 2007년의 가동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2010년을 전후하여 수도권 지역 전시수요대비 전시시설의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국가 타 전시장과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도 전시산업이 열악한

수준에 있어 국가대표 전시장으로서 KINTEX 전시장을 국제적 수준의 대규모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10만㎡ 이상으로 확충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Ⅱ단계 부지조성과 전시장 건립규모는 아래와 같으며 2007. 7. 31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완료 하였으며(타당성 인정), 건립규모 등을 확정, 2009년 1월 토공사 시작, 3월 기공식 개최 등 순조로운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 사업규모

단계별	KINTEX1단계(완료)	KINTEX 2단계(추진중)
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조성(753천㎡)</li> <li>○ 전시시설 238천㎡</li> <li>○ 도시기반시설 235천㎡</li> <li>○ 지원·활성화시설 280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확장조성(744천㎡)</li> <li>○ 전시시설 320천㎡</li> <li>○ 도시기반시설 34천㎡</li> <li>○ 지원·활성화 시설 390천㎡</li> </ul>
전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건립 (116천㎡)</li> <li>○ 전시장 면적 54천㎡</li> <li>○ 회의장 면적 8천㎡</li> <li>○ 부대시설 등 54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단계 건립 (214천㎡)</li> <li>○ 전시장 면적 54천㎡</li> <li>○ 회의장 면적 6천㎡</li> <li>○ 부대시설 등 154천㎡</li> </ul>

### KINTEX 제1전시장 건립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계	231,555	23,800	27,600	38,660	96,012	45,483
경기도	78,119(33.73%)	9,400	9,400	11,500	31,312	16,507
고양시	78,119(33.73%)	9,400	9,400	11,500	40,700	7,119
KOTRA	75,317(32.52%)	5,000	8,800	15,660	24,000	21,857

### KINTEX 제2전시장 건립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비고
계	359,082	14,800	101,000	140,200	103,082	
경기도	120,414(33.53%)	-	36,000	48,000	36,414	
고양시	120,414(33.53%)	1,000	35,000	48,000	36,414	
KOTRA	118,254(32.94%)	13,800	30,000	44,200	30,254	

## 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999. 4. 28 : 한국국제전시장 고양시 유치확정
- 1999. 9. 30 : 산업자원부(KOTRA), 경기도, 고양시 3자간 건립협약서 체결
- 2001. 10. 13 : 한국국제전시장의 기본계획(Master plan)수립
- 2003. 4. 15 : 1단계 사업착수
- 2003. 12. 9 :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당초3.4단계) 부지확보 방안검토
- 2005. 4. 29 : 서울모터쇼를 시작으로 KINTEX OPEN
- 2005. 10. 22 : 1단계 사업준공(부지조성 완료)
- 2006. 5. 26 : 2단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승인
- 2006. 8. 24 : 2단계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고시
- 2006. 10. 11 : 2단계부지 토지매입 착수
- 2006. 12. 4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기획예산처)
- 2006. 12.~2007. 7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기획예산처 → KDI)
- 2007. 6. 11 : 2단계 도시개발계획 심의(고양시 도시계획위)
- 2007. 7. 31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보(기획예산처 → 산업자원부)  
※ 종합평가(AHP)=0.509로서 타당성 인정 (0.5이상일 경우 타당)
- 2007. 10.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07. 12. : 2단계 건립 경기도 지원 조례 제정 · 공포
- 2007. 12 ~ 2008. 6 : 마스터플랜변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 2008. 6 ~ 12 : 기본설계 시행
- 2008. 12 ~ 2011. 2 : 실시설계 및 제2전시장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

담당자 : 경제정책과 장향정 / ☎ 031-249-2451

## 2-3. 글로벌 도정을 위한 국제회의 활동

### 가. 추진배경

국제회의 산업은 첨단정보 및 지식교류를 통하여 산업 발전과 함께 개최국가와 지역의 위상제고에 기여하는 21세기 지식기반시대의 “세계화의 꽃”으로 불리는 미래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이다. 세계 각국은 각종 국제회의의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로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다음으로 3위(2007년도 268건)를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컨벤션 개최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경기도는 1990년 동아시아경제인회의(EAES)의 창립 멤버로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 8개 국제회의에 가입하여 도정 각 분야의 글로벌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킨텍스 개장으로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짐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 및 참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 《경기도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인 국제회의》

- 세계국제회의전문협회(ICCA) (2006)
- 세계대도시정상회의(METROPOLIS) (2003)
-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1996)
- 세계도시대중교통기구(UITP) (2006)
-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UCLG) (2003)
-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1996)
- 동아시아경제인회의(EAES) (1990)

### 나. 추진현황

#### 1) 국제회의 능동적인 참석 및 경기도 홍보활동 전개

2008년은 경기도의 국제회의 참가 및 활동의 기반을 다진 해로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회(UCLG), 세계국제회의전문협회(ICCA), 세계도시대중교통기구(UITP) 등 경기도정의 전략 분야인 컨벤션, 대중교통, 경제분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2008년 3월에 개최된 NEAR 방재분과위원회와 세계대중교통연맹(UITP) 아태 전체총회에서는 경기도 소방현황 및 시스템 소개 및 통합요금시스템 등의 경기도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선진 경기도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했다.

## 2) 국제회의 경기도 유치 및 개최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2008년 9월 산둥성에서 개최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에 참석하여 2010년 총회유치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총 5개국 50개 단체 200여 명이 참석한 NEAR 총회에는 행정부지사는 총회유치 이외에도 2009 경기국제보트쇼 홍보, '07년 개최된 제 1회 경기과학기술분과위원회 결과보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2009년에는 9월에는 NEAR 총회사전 실무위원회와 과학기술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21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발전과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1996년 설립된 동북아 역내 최대의 국제협의체로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6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서, 경기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 개최를 계기로 킨텍스 2단계 개장을 대비한 대규모 컨벤션 유치 개최를 위한 역량을 다지고자 한다.

2008년에는 한 단계 발전된 민간부분의 컨벤션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사업”을 신설 추진했다. 동 사업은 경기도관광공사에 위탁하여 경기도의 관광을 연계한 지역과 급효과를 도모했으며 지원규모는 최대 2,000만원이다. 선정된 국제회의로는 대한안과학회, 한국농촌사회과학회, 한국상품학회, 한국재료학회, 한국항공대학교학회,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 등이 있다. 이처럼 경기도는 전 방위적인 국제회의 유치개최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전시컨벤션산업육성의 기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행정 1부지사 총회 유치발언



산동일보와의 인터뷰

### 3) 국제회의 활동의 성과

우선 경기도가 가입한 국제회의는 도정의 전략 역점분야로서 분야별 세계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이 한자리에 모여 트렌드 주도, 정보공유 및 전 세계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기회를 제공한 점이다.

둘째, 전략적인 지역 마케팅으로 세계속의 경기도 인지도를 제고한 점이다. 국제회의를 통해 경기도의 투자, 관광, 주요산업 홍보 등 경기도의 전략적 마케팅 기회로 활용하였으며 국제회의 참여시에는 경기도 소개 PT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셋째,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로 인한 경기도의 컨벤션 산업 육성에 기여한 점이다. 경기도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통한 컨벤션 산업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다. 추진계획

경기도가 유치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과학기술분과위원회와 2010 NEAR 총회 사전실무회의를 2009년 9월 합동 개최예정이며 이 회의에는 5개국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도내 과학기술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조방안모색 및 성공적인 2010 NEAR 총회 개최를 위해 관광, 문화, 산업 등의 도의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켜 경기도의 국제적 역량과 동북아 지역발전 허브(hub)로서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개최가 계획되어 유치 추진중인 민간 주관 국제행사(회의·세미나, 이벤트 행사 등) 중 전략적 유치사업을 선정,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내 컨벤션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전시컨벤션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지금까지 가입한 국제회의를 기반으로 도정 각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경기도정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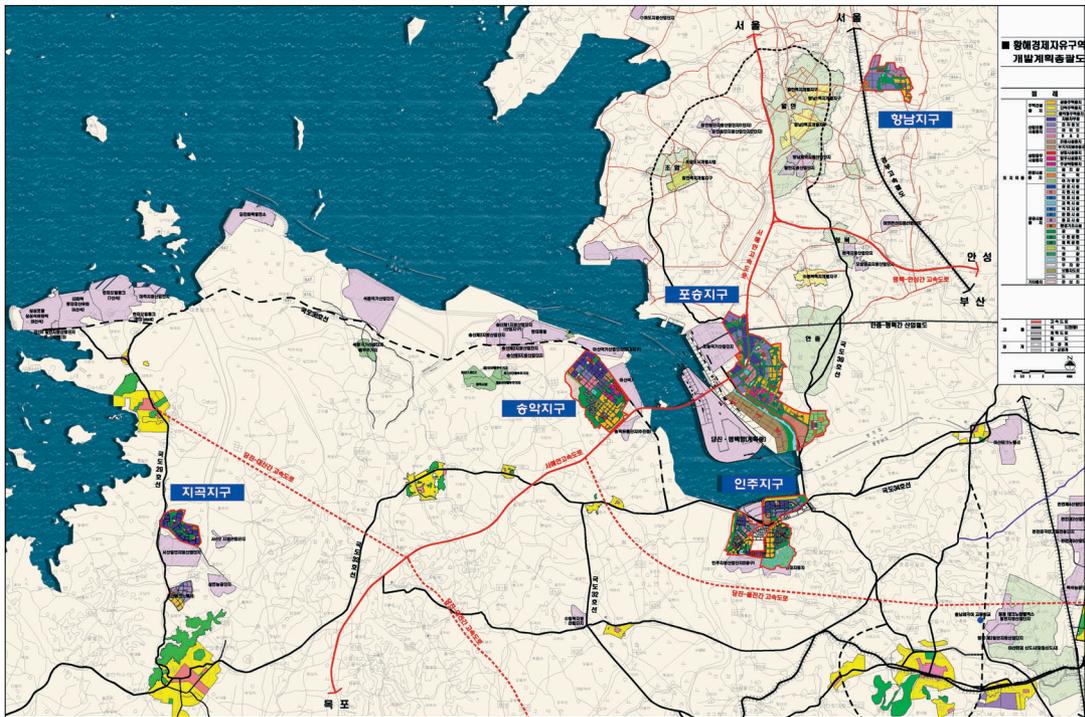
담당자 : 경제정책과 운영경 / ☎ 031-249-2191

# 3.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 3-1.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4월 25일 지정되었다.



개발 위치도

지정지역은 경기도 평택항과 충청남도 당진항 주변에 있는 5개 지구이다.

5개 지구 개발면적은 총 5,505.1만㎡이며 지구별로는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 2,014.8만㎡, 화성 향남지구 530.5만㎡와 충청남도 당진 송악지구 1,303.0만㎡, 아산 인주지구 1,302.5만㎡, 서산 지곡지구 354.3만㎡이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7조4,458억원(경기도 4조3,379억원)을 투입하여 이들 지구에 첨단산업(생산 + R&D), 국제물류, 자동차부품산업, 레저·휴양도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나.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법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화성·아산·서산시, 당진군 등 관련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경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민관합동법인, 민간(또는 외국)기업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 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지구 및 단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3-2. 황해경제자유구역 필요성 및 기대효과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개발효과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유하고, 산업단지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기성과 실현이 가능한 선제투자의 최적지이며 경기도와 서해안 여타 지역(새만금, 서남권)으로 개발효과 확산을 통해 중국 동부 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첨단산업 중심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국제비즈니스·물류 중심의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보완적·차별적 기능 분담으로 경쟁력을 배가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추진경과

- (1) 2007. 12. 21 :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발표(재정경제부)
  - ※ 대상지(3개지역) : 황해, 대구·경북, 군산·새만금
- (2) 2008. 1. 9 : 황해FEZ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충남 협약체결
- (3) 2008. 3. 24 : 황해FEZ 지정신청(보완)
- (4) 2008. 4. 16 : 황해FEZ청 설립·운영관련 兩道 협약체결
- (5) 2008. 4. 25 : 황해FEZ 지정(관보고시 '08. 5. 6)
- (6) 2008. 6. 3 : 정원 승인 129명
- (7) 2008. 7. 14 : 송악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예비선정(당진테크노폴리스)
- (8) 2008. 7. 22 : 황해FEZ청 개청식(당진문예회관)
- (9) 2008. 12. 29 : 송악지구 개발사업 협약체결(당진테크노폴리스)

## 《국내 경제자유구역 연혁》

- (10) 재정경제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보고 : '02. 4
-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2. 12. 30
-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03. 6. 30
- (1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위원회 발족(재경부) : '03. 7
- (14) 1차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경부)
  - ※ 인천('03. 8. 6), 광양만권('03. 10. 30), 부산·진해('03. 10. 30)
- (15)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 인천('03. 10. 15), 광양만권('04. 3. 24), 부산·진해('04. 3. 30)
- (16) 2차 경제자유구역 지정 ('08. 4. 25. 지경부)
  - ※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특별법으로 개정 : '09. 1. 30

### 3-3. 개발구상

#### 가. 비전 및 개발목표

비전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High-Tech Industry)의 국제협력거점 조성” 목표국제수준의 첨단 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b>비 전</b>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High-Tech Industry)의 국제협력거점 조성	
<b>목 표</b>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
<b>기 본 방 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교역 복합형 + R&amp;D기반 + 첨단산업 클러스터 + 지식네트워크</li> <li>•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기능적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진해권, 광양만권(물류·교역형)</li> <li>- 인천(국제교역형)</li> </ul> </li> <li>• 수도권「자본 + R&amp;D기능」과 지역의 「첨단생산기능」의 상생적 결합</li> <li>• 기 지정 3개 경제자유구역과 기능적 역할분담 및 지식네트워크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중부권 수출입 화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항만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중부권의 산업입지 지원항만으로 서의 기능 강화</li> <li>- 대중국 물동량의 53%가 수도권·중부권에서 발생하나, 대부분이 부산항 등에서 처리</li> </ul> </li> <li>• 동북아 부가가치물류의 지역중추 항만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중국부품 + 국내첨단부품」의 조립가공 → 對중국 수출</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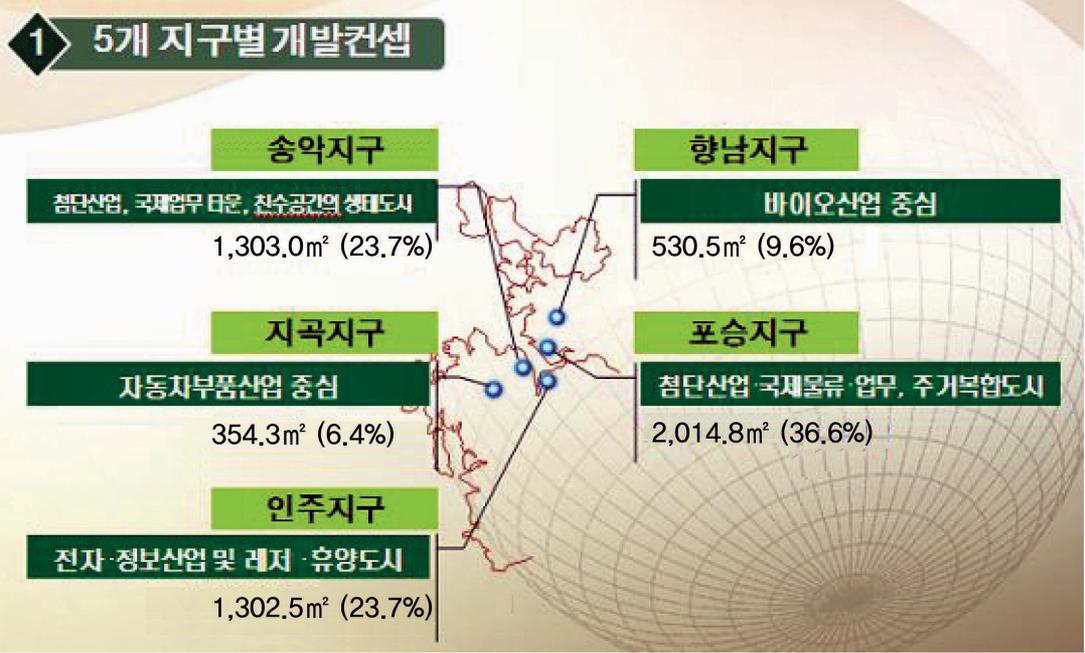
#### 나. 개발방향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의 투자 적지로 개발하여 R&D, 물류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주거·의료·여가·문화 등 외국인 정주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부품과 국내 첨단부품을 조립가공하여 수출하는 등 동북아 부가가치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수준의 R&D기능 확충과 첨단생산 기지화를 통해 국가 성장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다. 지구별 개발컨셉

경기 포승지구는 첨단산업, 국제물류·업무, 주거복합도시로, 향남지구는 BT산업 글로벌 메카로 개발할 계획이며, 충남 송악지구는 상업·업무의 국제 및 복합도시, 친수공간의 생태도시로, 인주지구는 레저·휴양의 관광 및 자족도시, 지곡지구는 첨단 자동차산업 도시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지구별 컨셉

### 3-4. 지구별 · 단계별 시행계획

2025년까지 3단계로 시행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1단계에 해당하는 2008년~2013년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첨단산업 기능과 국제물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다.

2019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에는 1단계 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한 후 필요한 기능을 추가 보완하고, 2025년까지 추진되는 3단계에는 예비지를 설정하여 수요의 가변성에 대응하고자 한다.

지구	1단계 ('13년까지)	2단계 ('19년까지)	3단계 ('25년까지)
포 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시설(156만㎡)</li> <li>자동차부품단지(109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부품단지(78만㎡)</li> <li>IT부품단지(64만㎡)</li> </ul>	-
향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정보(59만㎡)</li> <li>바이오단지(10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오단지(50만㎡)</li> <li>R&amp;D단지(10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지개발(18만㎡)</li> <li>바이오단지(30만㎡)</li> </ul>
송 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부품단지(98만㎡)</li> <li>R&amp;D단지(57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지개발(62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부품단지(56만㎡)</li> <li>IT부품단지(18만㎡)</li> </ul>
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부품단지(35만㎡)</li> <li>관광시설(217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지개발(56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부품단지(62만㎡)</li> <li>상업·업무지구(40만㎡)</li> </ul>
지 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부품단지(97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부품단지(72만㎡)</li> </ul>

### 3-5. 재원소요 및 조달

기본 인프라, 지구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7조4,45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은 아래와 같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계없이 타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인프라 구축사업의 사업비는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했다.

구분	국 고	지자체	민외자	총 계
계(억원)	475	4,779	69,204	74,458
(%)	(0.6)	(6.4)	(93)	(100)
- 경기도 (포승, 향남)	-	2,674 (55.9)	40,705 (58.8)	43,379 (58.3)
- 충남도 (송약, 인주, 지곡)	475 (100)	2,105 (44.1)	28,499 (41.2)	31,079 (41.7)

### 3-6. 향후 추진절차



### 3-7. 경제적 파급효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총 7조4,458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이곳은 반도체·IT·BT·자동차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민선 3기 이후 경기·충남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총 165건 281억불에 달하는 전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투자선도 지역인 동시에 재원조달이 용이한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성에 따라 전국적으로 생산유발액 7조420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9,250억원, 고용은 6만9,809명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별로는 경기의 경우 생산유발액 2조3,920억원, 부가가치 유발 9,700억원, 고용 2만4,217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생산유발액 1조8,970억원, 부가가치 유발 8,090억원, 고용 2만1,81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라 전국적으로 37조7,000억원의 생산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12조5,380억원, 고용은 21만4,239명 유발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경우 생산유발액 15조1,82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4조7,720억원, 고용은 6만7,265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은 생산유발액 7조6,97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조1,170억원, 고용은 3만393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우리나라 경제의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기존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의 보완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을 이룩하여 서해안지역의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기능 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수도권-비수도권의 공동개발로 개발효과 공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국 동부해안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투자를 함으로써 타지역으로 개발효과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지원담당 박준용 / ☎031-249-4596

## 4. FTA에 대한 능동적 대응

### 4-1. FTA 추진배경

FTA<sup>3)</sup>는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하고 있으며,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2008년 12월 현재 WTO<sup>4)</sup>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건수는 총 230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4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통상환경이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불가피하였다.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추진코자 하는 정책 의지에 따라 우리나라는 칠레(04. 4. 1), 싱가포르(06. 3. 2), EFTA(06. 9. 1), 아세안(07. 6. 1 상품무역) 4건이 발효중이며,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권역<sup>5)</sup>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

3) FTA (Free Trade Agreement) : 양국간 또는 지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경제통합의 초보적 단계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종류

4)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5) 경제규모 순위 : EU 15,2조 달러, NAFTA 15,1조 달러, 한국-미국 14,1조 달러

## 4-2. 경기도 추진현황

한-미 FTA 협상 타결(07.4.2)에 따라 경기도의 FTA 대응방향 정립 및 산업별 세부 지원 방안·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미FTA 대책위원회』(위원장 : 도지사)를 구성·운영하였다. 한편 한-미 FTA와 한EU FTA의 체결에 따른 경기도 차원에서 수혜업종의 경쟁력 강화 대책 및 피해업종의 피해보전과 구조조정 지원대책 등의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미 FTA 및 한EU FTA에 대한 경기도 대응 방안』(07.7~'08. 2,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경기도는 한-미 FTA 이행으로 GRDP 7%성장, 무역수지 1억2천만 달러 흑자, 6만4천명의 고용창출(경기개발연구원 '07. 6)과 한-EU FTA 이행으로는 GRDP 1.6%성장, 무역수지 6천만 달러 흑자, 2만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경기개발연구원 '08. 2) 되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주요경제항목		전 국	경 기 도	비 고
GDP / GRDP (%)		0.3~6.0	0.14~7.09	
후생수준 (억달러)		17~209	3.7~45.9	
교역 (억달러)	대미수출	13.2	3.7	
	대미수입	8.6	2.5	
	무역수지	4.6	1.2	
	제조업	7.4	1.6	
	농수산업	△2.8	△0.4	
외국인직접투자 (억달러)		23~32	3~4	
고 용 (천명)		336	64	
농업생산 (억원)		△10,362	△1,480	

현재 여건 조성중에 있는 한-일 FTA<sup>6)</sup> 및 한-중 FTA<sup>7)</sup>의 효과 극대화를 통한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북아 FTA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FTA 추진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능력을 함양하고자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기반 마련을 위하여 경제 포럼과 경제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6) 한-일 FTA (제2차 실무회의 개최, '08.12..4)

7) 한-중 FTA (제5차 산학관 공동연구 회의, '08. 6.11~13)

### 4-3. 향후 추진계획

정부의 FTA 정책 추진전략은 ①동시다발적 FTA 추진 ②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지향 ③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지향 ④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 및 ⑤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있다. 정부는 2007년도까지 4건의 협상타결을 비롯하여 2008년 12월 현재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ASEAN, GCC<sup>8)</sup> 6개국과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터키, 페루, MERCOSUR<sup>9)</sup> 8개국과는 공동연구 및 사전실무협의 등과 FTA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



동북아 FTA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



경제정책 실무자 워크숍

경기도는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FTA 추진에 대비하여, 「한미 FTA 및 한-EU FTA에 대한 경기도 대응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등 부문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병행하고, 한-미 FTA 체결로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서비스업 부문의 수혜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수출 진흥 시책 개선 등 '한-미 FTA 대응 경기도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FTA관련 피해산업 지원 및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의회와 협의하여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EU FTA 체결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 기업인·농업인 및 이해 관계인들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도, 시·군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FTA 대응 정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경제정책과 양진혜 / ☎ 031-249-4980

8) GCC :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의 걸프만 협력 협의회

9) 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의 남미 공동시장

## 5. 2008년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 5-1. 2008년 행사개요

2008년 6월 11일부터 15일 까지 5일간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및 안산시 탄도항에서 제 1회 경기 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열렸다. 참여기관은 경기도, 화성시, KOTRA, 킨텍스, 경기도요트협회가 하였으며 후원기관으로는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산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화건설, 중소기업연구원,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 BMF(영국해양협회), WMRT(World Match Racing Tour)가 참여하였다.

주요 행사로는 요트·보트 및 관련 장비 전시와 세계요트대회, 컨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투자상담 등이 있었으며 요트시승 체험, 모형배 조립키트 대회, 갯벌 조개잡이 체험, 낚시어선 승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가. 국제 보트쇼 (Korea Int'l Boat Show (KIBS))는 해양레저용 보트, 요트, 선박엔진, 부품, 관련 장비 등을 전시, 판매·수출하기 위한 행사로 고부가가치 소형 레저선박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행사이며 세계 4대 보트쇼는 런던, 마이애미, 파리, 뒤셀도르프가 있다.

나. 세계 요트대회 (World Match Racing Tour - Korea Match Cup)인 WMRT는 세계 최대 요트 대회인 아메리카스컵 출전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이 참가하는 상업적 성격의 세미프로대회로서 90개국에 생중계, 110개국에 3~4회 녹화방송 되었다.

## 5-2. 경기 국제보트쇼 성과

경기국제보트쇼의 참가규모는 38개국 430개 업체(요트·보트 211척, 관련제품 88개사)이며 전시 참가업체가 22개국 240개 업체 (해외 119, 국내 121), 투자자·바이어가 30개국 19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참관인원은 35만 명이었다.

수출상담·계약은 2,405건 383백만불로 수출상담이 2,204건 3,228억원(323백만불), 계약 및 현장판매가 201건 601억원(60백만불)이었다.

## 5-3.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세계랭킹 10위 이내 6개팀 및 아메리카스컵 참가팀 등 세계 최정상 12개팀 60여 명의 선수와 심판이 참여하였으며 세계 100여 개국에 TV방송 되었고 국내에서는 KBS 1TV를 통해 70분씩 2회 녹화중계하였다.

※ 대회 결과 → 1위 : 세바스찬 쿨( 프랑스), 2위 : 이안 윌리엄스(영국)

## 5-4. 보트쇼·요트대회 경제적 파급효과

가. 단기적 추정(3개월) : 생산유발 1,651억원

구 분	경제적 파급효과 (백만원)		고용유발(명)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전 국	165,074	54,472	923
경기도	107,074	34,412	553

## 나. 장기적 추정(3년/매년 보트쇼와 요트대회 개최 조건) : 1조원

- 요트·보트 산업 분야 : 4,000억원
- 요트대회·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 : 4,000억원
- 마리나 등 SOC 분야 : 2,000억원

### 5-5. 이번 행사의 성과

고부가가치 블루오션 개척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한민국(경기도)의 소형선박산업 가능성과 세계요트대회 개최지 우수성 등 전 세계에 홍보하였으며 우리 국민들에게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 5-6. 해외업체들의 평가

한국 해양레저산업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큰 만족을 표시하면서 2009년에도 참가의사를 표명하였고, 세계적으로 보트쇼와 요트대회가 동시에 개최된 사례가 없으며 유럽에서는 보트쇼만 개최하여 참관객 유치에 많은 고민을 하여 왔는데 이번 행사가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개막식(6. 11)



행사장 전경(항공사진)



실내전시장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담당자 : 경제정책과 해양산업담당 박영일 / ☎ 249-4564

## 〈참고자료〉

### 가. 전세계 조선산업 시장규모

구 분	대형조선	해양레저 소형선박
전세계 시장규모	57조원	48조원
연간 생산척수	2천척	80만척
주요 생산국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한국 수출액	19조원 (33%)	100억원 (0.02%)

### 나. 국내 해양관광 참여인구 및 전망 (국토해양부)

구 분	2000년	2003년	2010년
인구(천명)	47,280	48,430	50,620
전체관광 참여횟수(천명/년)	326,232	343,853	369,526
해양관광 총참여횟수(천명/년)	84,404	92,060	116,431
(백분율, %)	(25.9)	(26.8)	(31.4)

### 다. 해양레저장비 수요 전망 (해양연구원)

구 분	2003	2006	2009	2012	2012('03~'12)
해양레저장비(척)	3,570	8,000	10,500	25,700	24.5%

## 라. 인구 천명당 요트 보유 대수 (척)

북유럽	미 국	호 주	일 본	한 국
143	62	32.3	3.6	0.043

## 마. 국가별 요트 생산업체 및 마리나 수

구 분	미 국	영 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요트생산업체 수	1,100	400	114	770	40	20
마리나 수	824	215	122	494	424	3

## 바. 국내 마리나 현황

구 분	지 역	건립연도	계류능력	시 설
부산 요트경기장	부산	1986	1,364척 (육상:1,000, 해상:364)	계류장/계측실/동력실/프레센터
통영 금호 마리나 리조트	경남	1994	130척 (육상:40, 해상:90)	계류장/클럽하우스/적치소/ 스포츠센터/수리소 등
진해 마리나 리조트	경남	2004	50척 (해상:50)	계류장/클럽하우스/콘도/ 스포츠센터/수리소 등

## 사. 해외 주요 보트쇼 (IFBSO)

구 분	Genoa 국제보트쇼	뒤셀도르프 보트쇼	런던 보트쇼 국제보트쇼	일본 요코하마 국제보트쇼	두바이
개최 월(기간)	10월 (9일간)	1월(8일간)	1월(10일간)	3월(4일간)	3월(5일간)
전시방법	육상+해상	육상	육상	육상+해상	육상+해상
방문객(2007년)	327,000	270,000명	130,000명	56,000명	27,420명
총전시업체 (2007년)	1,500개사	1,641개사	505개사	221개사	514개사
해외참여업체 (2007년)	555개사	653개사	40개사	7개사	616개사
전체면적 (2007년)	300,000㎡ (해상 100,000㎡)	221,000㎡	66,000㎡	20,000㎡ (해상 12,000㎡)	80,000㎡
전시면적(2007년)	-	106,842㎡	43,151㎡	9,765㎡	23,501㎡
투자자/바이어 참가수	-	-	15,902명	-	-
비고	1962년 시작	1970년 시작	1958년 시작	1961년 시작	1998년 시작

## 아. 국제보트쇼 추진 성과 (KOTRA)

### 1) 참가규모 : 총 38개국 430개 업체

- 전시 참가업체 : 22개국 240개 업체 (해외 119, 국내 121)
- 투자자, 바이어 : 30개국 190개 업체

### 2) 참관인원 : 350,100명

### 3) 수출상담 · 계약 : 2,405건 383백만불

- 수출상담 : 2,204건 3,228억원(323백만불)
- 계약 및 현장판매 : 201건 601억원(60백만불)
- 품목별 내역

(단위 : 백만불)

구 분		계	보트.요트 (완성품)	보트부품 및 장비	마리나 관련 산업	수상의류 악세사리	엔진	기타
상담	건수	2,204	1,547	370	24	29	170	64
	금액	322.8	228.17	47.66	35.87	0.2	5.9	5
계약	건수	177	138	8	1	0	12	18
	금액	56.74	39.93	0.27	16	0	0.4	0.14
현장 판매	건수	24	24	-	-	-	-	-
	금액	3.4	3.4	-	-	-	-	-

### 4) 전시 참가업체 내년 참가여부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개사, %)

구 분	참 가 업체수 (A)	설문참여 업체 수 (B)	'09 참가의향 (C)	회 수 율 (B/A)	재참가율 (C/B)
계	240	166	125	69	75
해 외	119	81	55	67	68
국 내	121	85	70	70	82

※ 해외 보트쇼 최초 개최 전시회 후 재 참가율 : 40 ~ 50%

### 자. 국내외 업체들의 재 참여의향 (경기개발연구원)

특성	응답	조사수(개)	있다(%)	없다(%)
	전 체	160	81.3	18.7
	국 내 업 체	113	82.3	17.7
	해 외 업 체	47	78.7	21.3

### 차. 보트쇼 일반 참관객 표본조사 결과 (경기개발연구원)

구 분		표 본 수	%
전 체		782	100
성 별	남 성	379	48.5
	여 성	403	51.5
연 령 별	10 / 20대	130	16.6
	30대	286	36.6
	40대	225	28.8
	50대 이상	141	18
직 업 별	화이트칼라	381	48.7
	블루칼라	34	4.3
	자영업	90	11.5
	농업 / 어업 / 임업	18	2.3
	전업주부	197	25.2
	학생 / 무직 / 은퇴자	62	7.9
광 역 별	경기도	628	80.3
	(서울인접권지역)	-89	-11.4
	서울시	93	11.9
	인천시	37	4.7
	대전 / 충청도	9	1.2
	대구 / 부산 / 경상도	9	1.2
	기타	6	0.7



## 제4절

#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경기도 고용동향
2.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3. 직업교육훈련 강화
4.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
5.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



# 1. 경기도 고용동향

‘고용없는 성장’ 과 인력수급 불일치의 심화로 체감하는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실업난은 실제 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며, 2008년도 경기도 실업률은 3.2%로 전국실업률(3.2%) 과 같게 나타나고 2007년 실업률 3.4%보다 0.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현황

(단위 : %, 천명)

구 분		2008. 1월	2008. 2월	2008. 3월	2008. 4월	2008. 5월	2008. 6월	2008. 7월	2008. 8월	2008. 9월	2008. 10월	2008. 11월	2008. 12월
실업자	도	192	197	194	202	185	176	199	180	179	163	166	183
	전국	775	819	810	784	753	764	769	764	722	736	750	787
실업률	도	3.5	3.5	3.4	3.5	3.2	3	3.4	3.2	3.1	2.8	2.9	3.2
	전국	3.3	3.5	3.4	3.2	3	3.1	3.1	3.1	3	3	3.1	3.3

※ 자료 : 통계청

또한 기업의 경력직 선호경향과 청년층의 자신이 원하는 눈높이의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구조적 인 문제로 2008년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6.5%로 전체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기업 신·증설 제한, 공장건축총량제, 대학 신·증설 제한 등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노력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과 투자유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인력수급상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는 시책을 통하여 인력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도내 일자리는 13만 1천개가 증가하여, 전국 일자리 수 증가분 14만 5천개의 90%를 창출하였다.

### 전국대비 청년층 실업자 수 및 실업률 현황

(단위 : %, 천명)

구 분		2007. 4/4	2008. 1/4	2008. 2/4	2008. 3/4	2008. 4/4
실업자	도	71	72	75	72	74
	전 국	312	328	327	303	300
실업률	도	6.2	6.3	6.6	6.4	6.7
	전 국	7	7.3	7.4	6.9	7

※ 자료 : 통계청

### 전국 대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전기운수 통신금융
도	2007년	5,398	167	1,076	406	1,257	1,777	714
	2008년	5,529	176	1,077	401	1,258	1,912	701
	전년대비	131	9	1	△5	1	135	△13
전 국	2007년	23,433	1,727	4,137	1,850	5,726	7,600	2,393
	2008년	23,577	1,686	3,963	1,850	5,675	7,633	2,770
	전년대비	144	△41	△174	0	△51	33	377

담당자 : 고용정책과 홍승수 / ☎ 031-249-4640

## 2.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 2-1. 경기청년뉴딜사업

#### 가. 현황 및 성과

최근의 경기침체, '고용없는 성장' 및 경력직 선호경향 등 고용여건의 악화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부터 「경기청년뉴딜」사업을 도입·추진하게 되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전국 최초의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구직참여자 개인별로 취업전문 서포터즈를 배치하여 밀착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특성과 적성, 취업에 적합한 업종 등을 분석·파악하여,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전문교육,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지식 습득, 다양한 경력 형성 등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고용가능성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였다.

2008년도에 2,4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결과 1,706명을 취업시켜 70.5%의 취업률을 달성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및 도내 기업체에 우수 인력을 지원하였다.

#### 나. 문제점(미흡했던 점)

2008년까지 경기청년뉴딜 사업은 13개 권역으로 나뉘어 운영중이며, 그 중 포천권역은 참여자의 이동불편 및 인구감소에 따라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 다.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2009년에는 권역을 재조정하여,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던 포천권역을 의정부 권역으로 통합하고, 남양주 권역을 신설하여 구직참여자 모집 및 밀착 취업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담당자 : 고용정책과 정미엽 / ☎ 031-249-3077

## 2-2. 경기재취업지원사업

### 가. 현황 및 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상시적인 구조조정 및 한미FTA 체결 등으로 산업내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력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경력자 재취업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경기재취업지원사업」은 만 30세 이상 55세 미만의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심층개인상담, 직업의식 및 구직스킬 교육, 취업알선 등 개인별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 이들의 Know-how가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내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8년도에는 9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결과 627명(65.3%)이 재취업에 성공하였으며, 미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 나. 문제점

경기재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결과 상담권역 소재 시·군 중심으로 참여자의 편중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었다.

## 다. 발전방향 및 향후 계획

2009년에는 상담권역 확대(안양권, 평택권 추가)를 통하여 참여자의 접근성 및 편익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각각의 권역별 특성에 맞는 자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의 실효성 및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또한 담당 컨설턴트가 사후관리 단계까지 미취업자 취업알선을 수행토록 하여 사업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담당자 : 고용정책과 박정미 / ☎ 031- 249-4648

## 2-3. 경기여성뉴딜사업

### 가. 현황 및 성과

경력단절 및 자녀양육 등으로 취약한 취업조건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경기여성뉴딜」사업을 2006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7년도에는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경기여성뉴딜」사업은 구직여성에게 대하여 개인의 특성 및 적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전문교육, 인턴근무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구직 및 창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맞춤형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2008년도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325명을 취업시켜 66.8%의 취업률을 달성 여성 일자리 지원에 기여하였다.

### 나. 문제점(미흡했던 점)

2008년 경기여성뉴딜 사업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사회서비스 분야와 전문취업과정을 함께 운영함에 따라 타지원사업과의 차별화에 어려움이 있어 구직자 맞춤형 종합취업프로그램으로 밀착 상담 및 인턴, 교육훈련지원을 통한 맞춤지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다.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2009년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자신감 강화 및 직업의식 고취 교육 강화로 성차별 장벽을 스스

로 극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자 : 고용정책과 오현미 / ☎ 031-249-3085

## 2-4.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사업

경기도는 과중채무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신용회복대상자를 돕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2004년 9월부터 사)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신용회복대상자 지원은 취업취약계층인 신용회복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인정보망과 취업알선 시스템을 통하여 신용회복대상자와 기업을 연결함으로써 인력난에 시달리는 도내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 신용회복대상자에게는 소득의 원천을 마련해 주게 되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대상자 채용기업에는 채용장려금을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고 있으며, 신용회복대상자 개인에게는 취업 시 교통비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고 신원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08년도에는 신용회복 대상자 560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자중 71.4%인 400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담당자 : 고용정책과 장미애 / ☎ 031-249-4649

## 2-5. 채용박람회

취업취약 계층은 물론 청년층 미취업자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19회(특성화 3, 권역별 16)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김포시민회관에서 64개 기업이 참가하고 1,9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는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채용박람회를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은 물론 청년층의 젊은 인재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유망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취업난 해소는 물론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하였다.

아울러 이들 채용박람회의 개최를 통해 경기도 고용시책으로 추진중인 경기청년뉴딜사업, 경기재취업지원사업, 경기인재포털 사이트(www.intoin.or.kr) 안내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참여구직자와 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인·구직자간 상시적인 채용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연도별 채용박람회 운영 실적

(단위: 명)

구 분	운영회수	운 영 실 적				비 고
		참여업체	구인자수	구직자수	채용인원	
2003년	15회	1,222	10,525	19,726	6,463	
2004년	24회	1,809	13,281	50,804	2,387	
2005년	22회	1,978	15,738	48,179	3,336	
2006년	23회	3,516	19,486	74,253	4,351	
2007년	21회	2,979	15,608	60,054	3,017	
2008년	19회	1,104	6,403	17,314	735	

담당자 : 고용정책과 장명주 / ☎ 031-249-3075

## 2-6. 공공근로사업

### 가. 현황 및 성과

2008년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 507억을 투입하여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내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

#### 1) 저소득 실업자에게 임시적 일자리 제공

총사업비 507억 원을 투입하여 1일 평균 5,197명(연인원 116만 명)의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근로능력 함양은 물론 실질적 생계지원효과를 거두어 보완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였다.

## 2) 주민숙원사업과 사회복지분야 사업 추진

주민 쉼터 조성 and 도로변 꽃길조성, 공원 개·보수 등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가정방문 도우미사업, 장애인단체 재활사업, 푸드뱅크 지원사업, 이동목욕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저소득층 불량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2,255개소의 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부족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다.

2008년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선발자(성별, 연령별) 현황

신청자 수	선발자 수	성별 현황(명)		연령별 현황(명)					
		남	여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34,773	20,560	7,156	13,404	233	2,688	2,747	4,652	7,034	3,206

### 나. 문제점(미흡했던 점)

공공근로 참여자의 성별 분포가 65%가 여성이고, 50대 이상 고령자가 50%로 나타나는 등 여성 및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성별·연령·학력 등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의 발굴·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다.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공공근로 참여 대상자 중 여성 및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파견 사업 등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역점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를 위하여 청년층에 적합한 행정정보화 사업, 관광안내 도우미 등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지원을 통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고용정책과 양준영 / ☎ 031-249-3071

## 2-7. 창업 멘토

### 가. 사업 추진배경

우수창업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한 밀착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보육센터 입주 지원, 기술·경영컨설팅, 아이템 개발·운영비 지원, 일자리 창출지원금 등 기업의 창업을 독려하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 나. 추진현황

2008년도에는 64개 아이템을 심사하여 16개 아이템을 선정, 모두 창업을 성공시켰으며, 고용 58명, 매출 2,008백만원, 특허등록 및 출원 3업체, 벤처기업 인증 2업체, 기업부설연구소 1업체, 산업재산권 8업체, ISO 인증 4업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창업업체의 주요 아이템을 살펴보면 반도체 스테퍼용 광학필터 내재화, 환경친화적 다기능 환원촉진제, 유저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에디터 솔루션, 액체 냉각기술을 이용한 LED 면발광 자연 조명 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공급효과와 고용 창출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멘토사업 추진현황

(08.12.31 기준)

연도별	지원업체 (개소)	창업업체 (개소)	고용 (명)	매출 (백만원)	특허등록 및 출원(건)	벤처인증 (건)	비 고
2005	14	14	59	2,560	2	3	
2006	14	14	34	715	3	2	
2007	18	18	82	6,480	8	6	
2008	16	16	58	2,008	3	2	여성기업 2

※ 2007년도 특기사항

- 나노렉스(2006년도 지원) : 2007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수상
- 심비오즈코스메틱(2006년도 지원) : 2007.10월 Beyond Beauty(Paris), 뷰티워드상 수상

※ 2008년도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성별영향평가 선정과제로 되어 있어 '08년 목표 15개 아이템 중 2개 아이템을 여성기업으로 선정

- '08년 지원대상 16개 업체 사업만족도 조사결과 4.2점(5점 만점)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 향후 추진방향

'09년도는 사업비의 증액(2.6억→3억)과 더불어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의 보완을 통한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만족도 조사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대다수의 업체에서 사업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도에서도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담당자 : 기업지원과 김일수 / ☎ 031-249-4632

## 2-8.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 가. 현황 및 성과

경기도내 31개 시·군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구인·구직자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실업난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외 경제위기로 구직의욕이 있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 희망자들이 각종 취업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도 및 시·군·구 취업정보센터를 민원실에 배치하여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역민에게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내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

(단위 : 명)

구분	구인	구직	알선	취업
2004	67,025	87,617	161,874	44,406
2005	49,165	69,800	140,752	27,116
2006	33,573	55,127	130,485	17,804
2007	25,289	48,494	139,023	12,377
2008	21,715	52,823	139,531	13,208

## 나.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경기도내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 수를 확대하고, 시·군 취업정보센터의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담당자 : 고용정책과 장미애 / ☎ 031-249-4649

### 3. 직업교육훈련 강화

#### 3-1.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경기도는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으로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005년부터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8년에는 총 사업비 1,005백만원(도비 800백만원, 시·군비 90백만원, 대학 자부담 11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별 사업계획에 의거 교육과정이 진행되었으며 8개 학교에 26개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총 825명의 인력을 양성하였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인근지역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개설되었으며,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건축디지털디자인 실무인력 양성과정, 임베디드&유비쿼터스 소프트웨어, PCB설계 등 도내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8년도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실적

(단위 : 명)

구 분	모 집 (B)	수 료(실적)			취업인원	취 업 률	비 고
		재학생	미취업자	소계(C)			
합계	825	725	69	794	494	62.20%	26과정
경민대학	100	92	5	97	69	71.10%	3과정
국제대학	105	85	16	101	76	75.20%	"
수원여자대학	100	85	13	98	60	61.20%	"
안산1대학	105	93	12	105	56	53.30%	"
안양과학대학	105	93	7	100	73	73.00%	"
유한대학	110	99	10	109	57	52.30%	"
산본공고	100	86	4	90	53	58.90%	4과정
평택기계공고	100	92	2	94	50	53.20%	"

2009년도에는 사업주관을 증기센터 위탁추진 방식에서, 도·시군 직접추진 방식으로 변경하여, 도·시군의 역할분담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담당자 : 고용정책과 정미엽 / ☎ 031-249-3077

### 3-2.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비진학청소년, 농어민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한 필요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훈련비용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직업훈련이다.

2008년도에는 도내 공공 직업훈련시설과 사설학원 등 79개 훈련기관에 552명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한 결과 453명이 수료하여 249명이 취업하였다.

2008년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추진 현황

(단위 : 명)

훈련기관	위탁인원	훈 련 내 용		취 업
		수료인원	중도포기	
79	552	453	99	249

담당자 : 고용정책과 장명주 / ☎ 031-249-3075

### 3-3. 도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기능인의 저변확대 및 기능 존중의 풍토 조성과 우수 기능인을 발굴·육성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천시 이천제일고등학교 등 5개 경기장에서 정보기술 등 51개 직종에 836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8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각 시·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2008년 9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경상북도에서 개최한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금메달 4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5개를 획득하

여 서울시에 이어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였으나, 경기도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최다 우승 및 최다 입상자를 배출하는 등 기능최강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 경기도 역대 전국대회 우승기록 : 우승 14회, 준우승 10회, 3위 3회

-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 입상인원 : 965명 (전국 6,452명의 14%)

담당자 : 고용정책과 홍승수 / ☎ 031-249-4640

## 4.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

### 4-1.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확충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도내 300만 근로자의 숙원사업인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35,956백만원(국5,644 도24,163 기타6,149) 지원되어 지상7층 지하2층으로 건립되었다.

회관내부 시설로 근로자 교육장은 물론 어린이집, 노동상담소, 대강당, 소회의실, 은행, 웨딩홀, 식당,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근로자들의 교육은 물론 문화욕구 충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내 근로자 종합(노동)복지관은 2008년말 현재 15개소(근로자종합복지관 9개소, 노동종합복지관 6개소)가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고, 2개소가 건립중이다.

오산시 가장동에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 790 도 1,000, 시비 6,210)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평택시 장당동에도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 2,500 도1,250 시4,250)을 들여 지하1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 등 '09년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근로자 복지시설 현황

시 설 명	규 모	준공일	투 자 비	운영주체
1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3)	• 대지 16,480㎡ • 건평 13,134㎡ (지하 2층, 지상 7층)	'08	• 사업비 : 35,956백만원 (국비 5,647 도비 24,160 기타 6,149)	한국노총 경기본부
2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22)	• 대지 1,679㎡ • 건평 4,628㎡ (지하 1층, 지상 5층)	'05	• 사업비 : 7,933백만원 (국비 1,606 도비 1,303 시비 5,024)	한국노총 수원지부
3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중원구 상대원1동 197-6)	• 부지 : 7,401㎡ • 건평 : 4,347㎡ (지하 2층, 지상 4층)	'96	• 사업비 : 3,515백만원 (국비 677 도비 523 시비 2,315)	한국노총 성남지부
4 부천시 노동복지회관(1) (오정구 오정동 611)	• 부지 : 2,357㎡ • 건평 : 2,621㎡ (지하 1층, 지상 3층)	'90	• 사업비 : 1,859백만원 (국비 311 도비 473 기타 1,075)	실업극복 부천시민 운동본부
5 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2) (원미구 중동 1093)	• 부지 : 2,710㎡ • 건평 : 3,391㎡ (지하 1층, 지상 3층)	'00	• 사업비 : 8,174 백만원 (국비 1,070 도비 1,835 시비 5,269)	한국노총 부천지부
6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안양8동 377번지)	• 부지 : 2,555㎡ • 건평 : 2,155㎡ (지하 1층, 지상 3층)	'88	• 사업비 : 988백만원 (국비 284 시비 514 기타 190)	한국노총 중부지부
7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단원구 선부동 1076-9)	• 부지 : 2,528㎡ • 건평 : 5,249㎡ (지하 1층, 지상 4층)	'04	• 사업비 : 6,050백만원 (국비 1,608 도비 1,299 시비 3,143)	한국노총 안산지부
8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김량장동 407)	• 부지 : 1,841㎡ • 건평 : 1,841㎡ (지하 1층, 지상 3층)	'91	• 사업비 : 905백만원 (국비 200 도비 300 기타 405)	한국노총 용인지부
9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평택시 장당동 산 10-12)	• 부지 : 5,776㎡ • 건평 : 2,999㎡ (지하 1층, 지상 3층)	'09	• 사업비 : 8,000백만원 (교부세 2,063 도비 1,250 시비 4,687)	건립중
10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오산시 가장동 376-6번지 일원)	• 부지 : 2,730㎡ • 건평 : 3,473㎡ (지하 1층, 지상 3층)	'09	• 사업비 : 8,000백만원 (교부세 789 도비 1,000 시비 6,211)	건립중
11 시흥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정왕동 1366-13)	• 부지 : 3,497㎡ • 건평 : 3,937㎡ (지하 1층, 지상 3층)	'04	• 사업비 : 6,445백만원 (국비 1,338 도비 1,750 시비 3,357)	한국노총 시흥지부
12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군포시 당동 제2지구)	• 대지 : 2,357㎡ • 건평 : 6,059㎡ (지하 3층, 지상 3층)	'06	• 사업비 : 15,115백만원 (국비 1,605 도비 2,000 시비 11,510)	한국노총 군포지부
13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태안읍 안녕리 20-1)	• 부지 : 3,481㎡ • 건평 : 3,325㎡ (지하 1층, 지상 3층)	'97	• 사업비 : 3,078백만원 (국비 1,050 도비 658 군비 1,370)	한국노총 화성지부
14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부발읍 미암리 104-6)	• 부지 : 9,983㎡ • 건평 : 4,981㎡ (지하 1층, 지상 4층)	'03	• 사업비 : 6,759백만원 (국비 2,007 도비 1,300 시비 3,452)	한국노총 이천지부
15 안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성시 석정동 265-4)	• 대지 : 694㎡ • 건평 : 1,256㎡ (지하 1층, 지상 3층)	'04	• 사업비 : 848백만원 (도비 330 시비 518)	한국노총 안성시지부
16 의정부 노동복지회관 (의정부2동 511-10)	• 부지 : 1,497㎡ • 건평 : 2,099㎡ (지하 1층, 지상 3층)	'92	• 사업비 : 1,345백만원 (국비 287 도비 400 시비 658)	한국노총 중북부지부
17 남양주 노동복지회관 (와부읍 덕소리 474-1)	• 부지 : 2,651㎡ • 건평 : 978㎡ (지하 1층, 지상 4층)	'95	• 사업비 : 337백만원 (도비 253 시비 84)	남양주시

담당자 : 고용정책과 이지현 / ☎ 031-249-4663

## 4-2. 노동복지기금 사업추진

노동정책 개발 및 안정된 근로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100억원을 조성하였다.

조성된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2004년도에는 노동단체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7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노동문화 예술제 및 노·사·정 등반대회 등 6개 사업에 4억23백만원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근로자가족 체육대회 등 6개 사업에 4억2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7년도에는 노·사·정 조찬포럼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연간 참석자 520명에게 노동교육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 협력방안을 논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2008년도에는 경기북부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7개 사업에 4억 6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내년에는 연구사업에 대하여도 예산을 지원하여 단순한 행사지원이 아닌 연구사업에까지 기금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담당자 : 고용정책과 김기옥 / ☎ 031-249-4662

## 4-3.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도내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및 노사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1999년 12월 31일 조례 제정)

지난 2004년도에는 노·사·정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노동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소속 위원을 대폭 확대 위촉하였으며(10인 → 17인)

2006년도에는 국비의 지원을 받아 노·사·정 시범사업으로 ‘청년실업해소 의제 노사정학협의 회’ 사업, ‘지역노사정공익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역노사정공익 지도자과정 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노·사·정간 지역경제 주체로서의 협력과 화합의 마인드를 다지고 경제활성화와 지역민의 발전을 위한 협의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2007년도에는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중소기업, 농협 기관장등도 함께 지역문제를 논하는 협의체로 탄생시켰다. 2008년도에는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을 해촉하고 노동계와 사용자계 대표위원수를 확대하여 16명으로 재구성하였다.

담당자 : 고용정책과 김기옥 / ☎ 031-249-4662

## 4-4. 노동단체 및 근로자 지원 확대

지속적인 노사불이(勞使不二)원칙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아울러 다각적인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하였다.

근로자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장학기금 108억원을 조성하여 매년 약 800명의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006년도는 714명에게 7억 3,280만원의 장학금을 2007년도에는 733명에게 7억 3,546만원을, 2008년도는 718명에게 7억 3,732만원을 지급하였다.

2008년도에는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온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모범근로자 등 88명에게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등 90명을 발굴하여 도지사표창을 수여하여 근로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켰다.

도는 특히 노동단체의 체육행사와 등반대회, 노동가족음악회, 노동가족예술제 등도 도지사가 참석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담당자 : 고용정책과 이지현 / ☎ 031-249-4663

## 5.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

### 5-1.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 가. 투자유치 정책 추진방향 수립

2008년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실업률증가, 미달러 엔화가치 상승, 노사문제, 인건비 상승, 반외자정서 등 대·내외 외국인 투자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에서 물류, 유통, 테마파크 등 서비스 업종으로의 다변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프롤로지스, 린데코리아, TESCO,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25건에 25억달러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켜 민선4기 목표액 40억달러를 초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 민선4기 연도별 투자유치 현황 (MOU체결 기준)

(단위 : 백만불)

합계		'06년		'07년		'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5	11,149.5	7	149	23	8,426	25	2,574

민선 4기 전반기('06.7~'08)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업종으로의 유치업종 다변화, 투자유치활동에 민간의 전문역량 최대한 접목, 시·군과 연계한 프로젝트 추진,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외투기업의 사후관리 등을 중점정책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광, 물류, 유통 등 서비스 분야 등 신규분야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중앙정부, 유관기관, 시·군과의 공동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프롤로지스, TESCO 등 대형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투자유치 촉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자리잡았다.

'08년의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09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 바이오 제약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투자유치와 서해안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마케팅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기업 R&D센터 유치 공간 확보와 임대단지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과 탄력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여건 조성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나. 탄력적인 투자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개선

투자유치 공무원 및 민간기여자에 대한 투자유치 동기부여 및 성과거양을 위해 실질적인 포상금 지급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민간 3억원, 공무원 2억원, 총 5억원의 투자유치 포상금액을 투자유치 도착금액의 0.1% 범위내에서 투자유치 기여율에 따라 민간인 및 공무원 65명에 대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불평등한 외투기업 입지지원 및 외투단지 업종제한 규정 개선, 외국인학교 증설 및 외국교육 기관 유치 규정개선, 황해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물류단지 유치를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 및 GB개발 제한 완화 등 외국인투자유치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 국무총리실, 각급 기관 등에 규제완화를 위한 기관방문 등을 통한 건의사항을 수시로 개정 요구하였다.

## 다. 투자유치 전문성제고

경기도는 투자유치전문성 제고를 통한 핵심인재의 육성이 투자유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하고 투자유치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전문가 초청강좌 및 전문영어강좌 등을 개설 추진해 왔다. 또한 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시·군 공무원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 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다.

투자유치전문가 초청강좌는 '08년 총 22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에 관한 마인드 제고 및 각 산업분야별 정보교환의 기회로 활용하였고 투자유치공무원등의 실무협상 및 제반업무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제고를 위해 도 공무원대상 전문영어강좌를 주 3회 실시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투자유치의 분야별 전문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산업별(LCD, 자동차, 물류 등), 지역별(미주, 유럽, 일본 등), 분야별(금융, 정책, 홍보 등)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 자문단을 '06년 기 구성한바 있으며, 산업별잠재투자가 발굴, 투자유치관련 각 법률, 금융 등 자문, 해당 전문 분야 초청강좌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였다.

### 경기도 민간 투자유치 자문단 현황

분야	성명(나이)	소속	직위	주요경력
LCD	김명국(53)	삼성전자(주)	상무	삼성자동차(주) 근무('99)
LCD	이한상(51)	LG, PHILIPS LCD	상무	LG전자(주) 근무('97)
자동차	이경수(51)	현대자동차(주)	이사	구매지원실장(현) 부품원가관리팀장('06)
반도체	황득규(47)	삼성전자(주) 반도체 총괄	상무	삼성물산 근무('97)
바이오	조중명(58)	Crystal Genomics, Inc	대표이사	LG화학 바이오텍연구소장('00)
전자기기	김종현(45)	(주)황금에스티	대표이사	미국 조지아공대 연구교수('92)
디지털콘텐츠	이원화(41)	보스톤 창업투자(주)	상무	무한투자(주) 이사('05)
SOC	이정은(46)	산업은행 PF실	부부장	BTL 및 SOC PT담당(현)
물류	오창권(60)	한국항공대	겸임교수	(주)평택당진항만 대표이사('07)
관광개발	백호열(43)	산업은행 김포지점	팀장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펀드실무위원(현) 산업은행 투자업무개발실 부부장('07)
미주	김명룡(48)	캐나다 INNOVAN Consulting Group	수석자문 위원	서울대학교 초빙교수('01)
유럽	크리스찬리 (49)	덴마크 Atomistix사	부사장	덴마크 CR Consultant CEO('04)
일본	하야시 테쯔사부로(57)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센터(JETRO)	소장	일본무역진흥기구 근무('06. 6)
법률	이송희 (43)	법무법인 화우 국민대 법학강사('02)	변호사	미국 뉴욕 변호사 취득('01)
금융	이원영 (48)	BNP PARIBAS (한국지점)	투자금융 본부장	삼성전자(주) 전략기획실 투자담당부장('98)
정책	김영곤(51)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국제경영학회 부회장(현)
노사	이화수(53)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부위원장(현)
홍보	유영석 (37)	Rainbow Communication	대표이사	세계도자기비엔날레 홍보추진('05)
정책	박태호 (55)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투자전문가 그룹(IEG)의장('00)
정책	이원영 (57)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 연구부	초빙수석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정책연구단장('98)

담당자 : 투자진흥과 유소정 / ☎ 031-249-2762

## 5-2. 투자유치 활동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된 2008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하락추세 등 어려운 투자유치 여건속에서도 민간분야의 전문성 적극 활용, 신규프로젝트 발굴 및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증액투자 유도, 외투기업 사후관리 적극 추진 등 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강구하였다.

민선3기에는 과거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M&A형 투자유치에서 벗어나 외국의 첨단기술 이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부품, IT산업 등 첨단제조업 위주의 ‘공장설립형(Greenfield형)’ 투자유치로 전환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4기에 들어서는 관광, 물류, 유통 등 서비스업종으로 유치업종을 다변화하여 새로운 투자유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별로는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R&D센터 유치 등 기술이전을 위한 폭넓은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 R&D, 물류, 콘텐츠, 개발사업 등 투자유치 다변화를 추구하였다. 아울러 KOTRA Invest Korea, 경기도 투자유치 뉴욕사무소, 투자유치 자문단과의 수시 협의를 통해 유치전략 점검 및 기 투자업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재투자를 유도 하였으며 유럽지역 투자유치는 주로 독일지역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영국 등을 중점 타겟으로 자동차부품, 반도체, TFT-LCD, 전자부품에 집중되어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BT 및 R&D 등 유럽의 강세업종 투자유치에 중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 현대·기아자동차 등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국내 완성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유치 타겟 업체를 선정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민선4기 중반인 2008년도에는 투자유치다변화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투자유치 추진전략별 실천방안을 이행하고자 민관합동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회의를 5회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도지사가 직접 수렴하고, 투자유치 점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에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투자진흥 조직의 전문화 및 투자유치 능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산업별로 15개 전문분야 20명의 민간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재구성 및 중요정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기능 및 성과지향의 투자진흥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8개팀 31명의 전문인력을 확충하였다. 아울러 잠재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14회 개최하였으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투자유치 대표단 파견 4회, 맞춤형 실무 투자유치단 19회 파견 등 총 23회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였다.

이외함께 투자유치와 관련한 불합리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 건의하여 성장관리지역내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도록 하였고, 외국인축진법상 투자환경개선시설에 기

숙사를 포함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2008년 한해동안 물류분야에서 12억달러 등 총 25개사 26억달러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루어냈다.



미국 ProLogis社와의 MOU 체결식



2008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회의

담당자 : 투자진흥과 한보영 / ☎ 031-249-2183

### 5-3. 다각적인 투자환경 홍보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경기도의 입지적 우월성과 Business Friendly 의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투자환경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외투기업 투자설명회를 비롯한 국내외 IR(Investor Relations)활동을 적극 펼쳤으며, 경기도 투자환경, 서해안 개발 프로젝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 외투기업 경영지원 등 각종 투자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는 언어별(국문, 영문, 일문) 브로셔 및 리플렛, 영상물을 제작하여 투자가 방문상담과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외국기업 및 기관에 배포하여 국내외 투자자와 외투기업의 투자 및 기업경영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2008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서울 COEX에서 개최된 지식경제부 주관의 지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하여 경기도관을 설치하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기업 지원정책, 주요 투자유치프로젝트 및 산업입지 현황, 지역별 핵심전략산업 및 기업지원 시스템 등 경기도의 투자환경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와 투자상담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를 통하여 경기도는 부천시 소재 LED 제조업체인 화우테크놀로지사와 1,000억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8년 10월 31일에는 서울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소속 해외 한인 CEO 10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내 유망중소기업과 해외기업간의 상호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도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세계한상연합회는 1993년 세계 한인상공인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세계 68개국 240여개의 한인단체, 상공인, 경제인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 투자설명회에서는 중국 북부해안지역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3대 신발전 전략', 환황해시대를 대비한 서해안 개발 프로젝트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경기도 입지의 우수성을 해외 한인상공인에게 소개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기도는 또, 경기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통해 경기도의 투자환경이나 입지경쟁력이 평가되고 홍보되는 점에 착안, 2008년 12월 12일 수원 IBIS 엠베서더 호텔에서 『외투기업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의 CEO를 초청하여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경기도와의 협력관계를 확인, 다짐하는 장(場)을 마련하였다. 이 행사에는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인 150여명과 지식경제부, KOTRA, 경경연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시군의 투자유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외투기업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투자유치우수시군, 투자실적우수기업 포상제도를 신설 운영하여, 평택시, 성남시, 이천시와 아반스트레이트코리아주식회사, 삼성테스코주식회사, SB리모티브주식회사가 수상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세계가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투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함으로써 도내 외투기업 경영인들에게 경기도의 기업 지원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국내외 기업의 경기도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매력적인 입지조건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Korea Times, Korea Herald 등 국내영자지와 경제전문지, 기내지, 투자전문지인 Invest Korea Journal 등 지면광고와 인천공항 멀티큐브 동영상 광고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경기도 투자환경과 외투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집중홍보를 하였다.

2009년도에는 중점유치 대상 업종별·기업별 맞춤형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전문기관과 연계한 공동 투자유치 홍보, 잠재투자고객 중심의 홍보물 제작, 투자환경 가시화를 통한 기획보도 등 효과적인 홍보수단과 광고전략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자 : 투자진흥과 오세화 / ☎ 031-249-2184

## 5-4.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 및 관리

### 가. 현황 및 성과

경기도에서는 해외첨단기업 유치로 당면한 실업문제 극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1999년부터 7개소의 외국인전용 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성면적은 204만6천㎡로 미국의 첨단기업인 3M사 등 93개사가 167만3천㎡ 면적에 임대·입주(입주예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경기도 외국인전용 임대지구 현황

단지명	조성시기	면적(천㎡)	소재지
어연·한산	'93~'99	324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추팔산업단지	'94~'00	89	평택시 팽성을 추팔리
포승산업단지	'91~'98	96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현곡산업단지	'96~'06	500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장안산업단지(1단지)	'04~'07	418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당동산업단지	'04~'08	239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장안산업단지(2단지)	'05~'09 예정	380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단지별 현황으로 1999년부터 임대를 개시한 32만4천㎡ 규모의 어연·한산 산업단지에는 24개사로부터 2억 256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로 3,9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00년부터 임대를 시작한 8만9천㎡ 규모의 추팔산업단지는 8개사로부터 3,69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379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2003년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한 9만6천㎡ 규모의 평택포승산업단지는 쿠제 등 4개사로부터 5,82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로 27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004년 5월부터 임대를 시작한 현곡산업단지 경우 총 9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50만㎡ 규모의 임대지구를 조성하여 29개 첨단외국기업으로부터 8억4,52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2,483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파주LCD 본단지의 협력업체인 외투기업을 위하여 23만9천㎡ 규모의 파주 당동 산업단지는 파주전기초자 등 8개사 1억3,01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576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아울러 입지수요에 대비한 공장용지 적기공급을 위해 '06.12.26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로 지정된 화성 장안첨단일반산업단지(2단지) 경우 총 1,4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8만㎡ 규모의 공장용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08. 12월 현재 7개의 외투기업이 입주 계획 중에 있다.

### 그 동안 추진 성과

(단위: 천㎡, 백만달러)

단지명	조성면적	임대면적	잔여면적	입주기업	유치금액	사업비
계(7)	2046	1530	516	93개사	1,475.1	5061억원
어연·한산	324	324	0	25개사	238.6	314억원
평택 추팔	89	89	0	10개사	30	109억원
평택 포승	96	96	0	4개사	61.2	345억원
평택 현곡	500	433	67	28개사	452.5	934억원
화성 장안1	418	310	108	13개사	379	854억원
파주 당동	239	101	138	7개사	117.8	1,098억원
화성 장안2	380	177	203	6개사	196	1,407억원

### 나. 임대단지 입주기준 및 지원

외국인투자자가 경기도내 임대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주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업체를 엄격히 선발하여 입주시켜 왔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대상(고도기술수반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결정을 받은 업체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의 업체로서 ① 외투비율이 30/100 이상 ② 외투금액이 1천 평당 2백~3백만 달러 이상 또는 고용창출·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있어 그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업이 입주할 경우 지원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대상(고도기술수반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결정을 받은 업체로 ① 법인세, 소득세에 대하여는 5년간 100%면제하여 주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 ② 취·등록세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15년간 전액면제 시켜주고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는 투자신고 후 3년 이내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100% 면제 ③ 기술도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는 계약에서 최초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도입되는 기술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있다.

고도기술 수반산업 및 투자금액 등에 따라 임대료(100%~50%)를 감면하여주고 있다. ①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에 외투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 및 외투금액이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등은 임대료 100% 면제 가능 ② 외투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과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300명

인 사업 등에 대하여는 75% 감면이 가능③ 외투금액이 5백만 달러 이상인 사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1일 평균 200명인 사업 등에 대하여는 50% 감면이 가능하다.

## 다. 발전방향 및 향후 조성 계획

경기도는 임대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애로사항 청취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기존 단지 내 외투기업의 입주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원할 경우 적기에 부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단지를 연차별로 입주 수요에 맞게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외국인임대지구 조성계획

단지명	조성면적(천㎡)	소재지	입주시기
평택 오성산업단지	329	평택시 오성면 일대	2010년

담당자 : 투자진흥과 이영우 / ☎ 031-249-2735

## 5-5. 외국인투자기업 사후지원사업 추진

### 가. 현황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2005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잠재력은 140개 국가 중 18위이나 성과순위는 107위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력의 미발휘’에 대한 원인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사문제와 비합리적 행정규제를 들고 있다.

2008년도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 잠재력의 미발휘’ 상태를 외투기업에 대한 사후지원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려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노사문제, 기업경영, 외국인생활·문화 지원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나. 사후지원사업의 추진

### 1) 외투기업경영업무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경기도는 외투기업 경영분야 지원을 위해 ‘외투기업경영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외투기업경영업무지원시스템’이란 법률, 회계, 노무, 인력, 특허, 금융의 6개 분야 민간전문가에 의한 온라인 자문과 기업지원 및 생활·문화 정보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도내 외투기업에게 투자유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분야	체결업체 수	협약 체결 법인
인력지원	3	미래세계, 케리어케어, 엔터웨이파트너
법무	4	서정, 한결, 세화, 아주
특허	2	C&S로고스, 한양
회계·세무	4	삼정, 딜로이트, 성도, 총정
노무	4	우리, 신한, 정안, 천지
금융	1	외환은행

### 2) 사적조정지원제도의 운영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 불식과 안정된 기업의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는 「사적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분쟁이 현실화된 후 조정절차에 진입하는 국가의 공적조정제도와는 달리 예방적 조정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노사간의 잠재된 갈등 상태에서 조정을 시작함으로써 공적조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 최초의 민간차원의 노사분쟁 조정단체로써 (사)한국조정중재협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노사담당자 대상 집체 교육, 순회상담, 기업별 전담 조정제를 추진하였다.

### 3) 경기도외투기업지원센터의 역할 증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은 관주도의 사업 추진보다는 외국인투자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것은 정책의 수혜자에 의한 사업추진이 정책의 순응도를 높이고 현실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사업의 파트너로서 외투기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외투기업에서 대기업의 구매전략을 이해하여 국내 적응능력을 제고하고자 외투기업과 반도체, LCD, 자동차 분야 대기업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사소통 문제로 진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와 굿모닝병원이 협약을 체결하여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외투기업지원센터의 역할과 활동영역이 확대된 한해였다.



'08. 5. 2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간담회



'08. 8. 8 굿모닝병원과 협약체결식

#### 4) 기 추진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

2008년도는 2007년도 사업을 내실화한 시기였다.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14개 외국인투자기업의 388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75명의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외투기업의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영·일 어학프로그램'에 286명이 참여하여 외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한국어 강좌에는 문화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한국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도 외투기업 임대단지 순환버스 운영, 구인·구직 서비스 지원, 단지별·지역별 실무자 모임, 외투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의 해결, 정보레터 발간, 동호인 활동 지원 등 수요자의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다.

## 다. 외투기업 사후지원사업의 방향

2008년도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어학프로그램 지원, 구인·구직서비스, 실무자 모임의 활성화, 외투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수요자인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유롭고 안정된 여건 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개발 등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가 IMF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사회기반 시설이 크게 부족한 현실이며,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의 투자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 업종의 고용 비중 감소 현상의 극복을 위하여 물류, 유통,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서비스업은 제조업 고용비중 감소에 비해 일자리 창출의 견인역할을 하고 있으며, GDP중 서비스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담당자 : 투자진흥과 은연정 / ☎ 031-249-2781

## 5-6. 시·군 대규모 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 가. 배경

○ 외국인 직접투자도 제조업에서 물류, 유통, 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으로 이동

※ 제조업/서비스산업 비중(%) : GDP 42.4/57.6%, 고용 33.3/66.7%

※ FDI 구성비 : 1970년대 25% ⇒ 2000년대 70%

## 나. 서비스 분야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지원

### 1) 산업 연계 및 선택과 집중에 따른 유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식정보

- 산업(IT)과 문화·관광이 결합된 『복합 개발 프로젝트』를 선택과 집중으로 시군과 연계하여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추진
- 신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콘텐츠와 관광·테마파크가 융합된 복합도시개발 프로젝트, 의료특화단지 등 집중 개발 지원
- 새롭게 부상하는 레저 수요에 맞는 테마형 개발프로젝트 투자유치

### 2) 서해안 지역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상품화하여 중점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지역 서비스 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 대부도 일원 해양·생태 관광단지 개발 사업타당성 조사 국비 지원사업 선정
- 군자매립지, 시화 MTV, 평택항만 및 배후물류단지, 전곡항 개발 및 해양 복합산업단지 등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

### 3) 도-시·군간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전담T/F팀을 편성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다.

- KINTEX 지원시설 부지, 김포 시네폴리스,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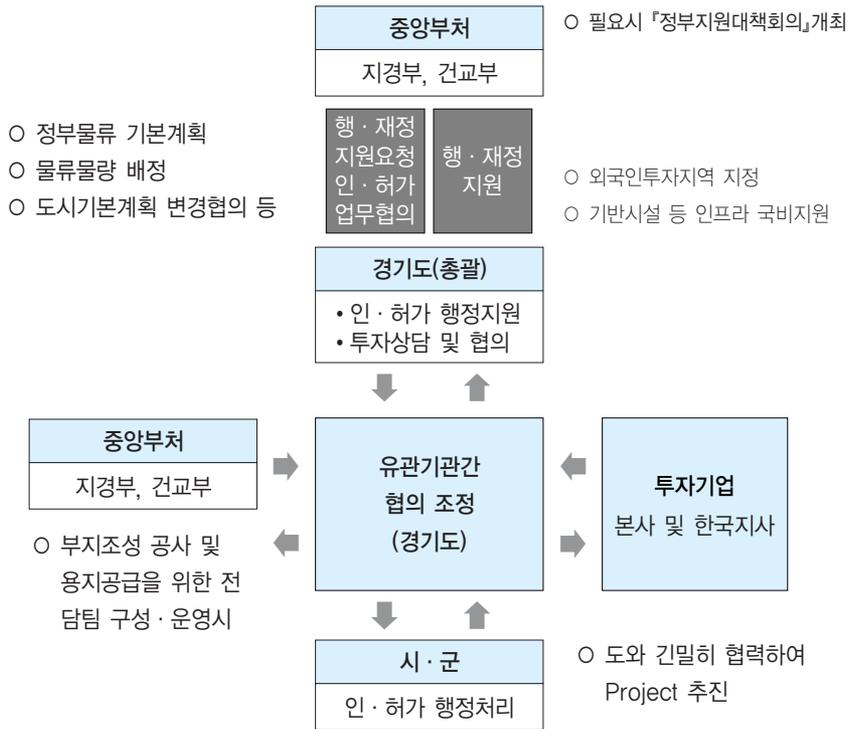
### 4) 시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컨설팅 지원』업무를 추진하여 시군별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시켰다.

- 프로젝트 자문 및 제반 행정절차 지원, 투자자 신용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지원, 공동 투자유치단 파견 등

### 5) 신성장 동력인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투자 환경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 복합 도시개발 등의 공급 유연성 확보  
⇒ 외측법상 부지 공급에 대한 『특례규정 확대』 등 개정

## 중점 지원 대상 프로젝트 T/F팀 운영도



### 다. 대규모 개발사업 외자유치 지원 성과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다변화 정책에 따라 기존의 제조업 분야 중심의 투자유치에서 제조업, 물류, 서비스, 복합단지 등으로의 투자유치 다변화에 성공한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군간 대규모 개발사업 외자유치의 전략적 추진에 따라 2008년도에는 총 11억불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으며, 관련 시군과의 개발 프로젝트 해외 투자 홍보 및 MOU 체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8회의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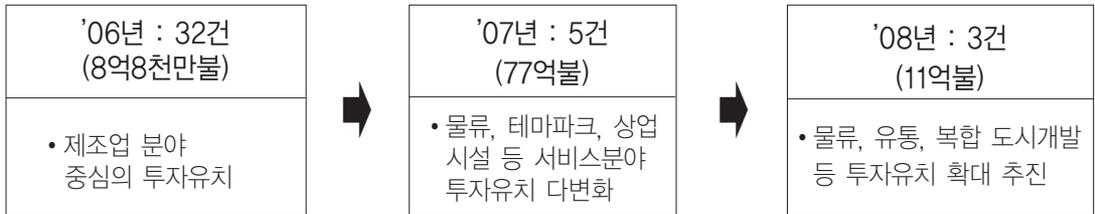
특히, 2008년 4월에는 경기도 투자유치 대표단과 지식경제부 정부대표단이 공동 개최한 투자설명회(이명박 대통령 및 김문수 지사의 KeynoteSpeech)의 IR 및 ProLogis사와의 MOU 체결(10억불)은 경기도의 물류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라. 향후 추진계획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그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도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계획 초기부터 도·시·군의 긴밀한 협력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협조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및 시·군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평택항 및 배후단지의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유니버셜스튜디오,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대부·선감도 개발사업 등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광, 유통, 물류, 복합단지 등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도 서비스팀 실적(MOU)

구분	시군	Project명	분야	투자내역			MOU 일 자
				투자자	지역	금액(백만불)	
계		5건				7,760	
1	화성	송산그린시티 内 U社 테마파크 조성	테마파크	USK Property Holdings	미국	3,100	11.27
2	포천	포천 에코그린시티 건립 프로젝트	복합개발	RedWood Group	영국	3,600	12. 6
3	부천	부천 오정 대규모 첨단 물류단지 조성	물 류	ProLogis	미국	500	12.12
4	안성	안성 원곡 대규모 첨단 물류단지 조성	물 류	ProLogis	미국	500	12.12
5	고양	KNTEX 지원시설 内 스포츠몰 건립	상업시설	LaSalle	미국	20	12.2
		KNTEX 지원시설 内 아쿠아리움 건립	상업시설	Oceanis	호주	40	12.2

## 2008년도 서비스분야 실적(MOU)

구분	시군	Project명	분 야	투자내역			MOU 일 자
				투자자	지역	투자금액(백만불)	
계		3건				1,100	
1	평택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투자유치	항만물류	ProLogis	미국	500	4.16
2	평택 등	남양주 및 평택포송 물류단지 투자유치	내륙물류	ProLogis	미국	500	4.16
3	안성	TESCO社 물류센터 투자유치	내륙물류	TESCO	영국	100	5. 7

## 2008년도 도-시·군 합동 투자유치단 파견

프로젝트명	실무단	파견지역	파견기간	비 고
중동자본 투자유치 실무단 파견	도	UAE	2.1~2.4	투자상담
TESCO사 투자유치 실무단 파견	도-안성	영국, 중국	2.27~3.4	LOI접수
『미주지역 투자유치대표단』참가	도	미국(뉴욕, LA)	4.15~4.19	MOU체결
개발사업 시군 합동 투자유치단	도-평택	일본	5.28~5.31	투자상담
중동 오일머니 투자유치 실무단	도	UAE, 카타르, 쿠웨이트	6.27~7.5	투자상담
EXPO REAL 투자유치실무단	도-안산	독일(뮌헨)	10.6~10.10	투자상담
미주 서부지역 투자유치 실무단	도-김포	미국(LA, SF)	10.19~10.25	투자상담
미주 LA지역 투자유치단	도-김포	미국(LA)	12.2~12.6	투자상담

※ 시·군 주요개발프로젝트 투자 가이드북 제작(08. 12월)

- 서해안 주요개발 프로젝트 투자가이드북 제작(4,000부 - 영어, 일본어, 한글판 / 60,000천원  
⇒ 국내·외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6개 도 및 시·군 주요 개발프로젝트 소개

시·군 대규모 개발사업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가시적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선정, 중점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개발프로젝트 투자 가이드북 및 홍보 브로슈어 제작, 도-시·군 해외 공동마케팅 활동,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 시·군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규제에 의해 해외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가 어려운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제도개선을 위해 지식경제부, KOTRA,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규제개선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자 : 투자진흥과 정성찬 / ☎ 031-249-2770



제5절

#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1. 산업입지 조성
2.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3.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4. 서민 경제생활 안정화



# 1. 산업입지 조성

## 1-1. 공장건축총량제 효율적 운영 및 제도개선

### 가. 공장건축총량 개요

공장건축총량제도는 수도권에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건축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199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매 3년 단위로 수도권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물량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 설정하고 이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장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공장 내 제조시설뿐 아니라 일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이상인 경우 모두 규제 대상이었다.

공장건축총량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경기도에서는 이 제도의 폐지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09년부터는 총량적용면적은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이상으로, 용도는 부대시설을 제외한 제조시설만 적용되는 것으로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공장총량 연도별 집행실적 및 집행량

(단위 : 천㎡)

연도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배정량	129	299	304	344	329	223	392	260	268	268	333	291	4,295	3,222	3,222
집행량	110	252	294	227	79	223	392	260	268	268	331	228	3,543	2,725	3,220
과부족	19	47	10	117	250	△58	△198	△70	△63	△114	2	63	752	497	2

※ '94~'03년까지는 매년단위로 총량을 설정·운영, '04년부터는 3년마다 3년간 총량을 설정 운영  
'06년에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계획기간('06~'20)과 일치되도록 재 수정



## 2) 공장총량 부족에 따른 문제점

기업들은 공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상황에서 공장총량 부족으로 건축허가를 장기간 기다리게 되어 기업들의 초기 투자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내수경기가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공장건축허가를 규제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심지어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물량이 증가함에도 공장증설을 적기에 하지 못하여 수출품의 공급차질을 빚음으로써 국가 신인도 저하 및 계약취소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건축자재 가격상승분까지 기업에 부담시켜왔다.

## 라. 제도개선 노력

경기도에서는 공장건축 총량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장건축총량 적용대상 면적을 산집법과 일원화(200㎡→500㎡)하고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사무실·창고 등 부대시설을 공장건축총량 대상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동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 공장건축총량제 개선을 위한 노력

-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건의(재경부, '07. 3. 19)
- 건교부장관 방문시 규제개선 정책건의('07. 4. 10)
- 대통령직 인수위에 규제개선 건의('08. 1~2월)
- 도지사, 대통령 면담시 건의('08. 3. 13)
- 국무총리, 장관 등 경기도 방문시 건의('08. 3월)

그 간의 경기도의 제도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어 '09. 1.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09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용도는 제조시설에 국한되어 기업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제도의 실효성이 적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장건축 총량제의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산업정책과 김미성/ ☎ 031-249-4601

## 1-2.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규제 개선

### 가. 규제개선 추진배경

정부는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에 대한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규제하여 왔다. 특히, 인구유발 요인이 적고 친환경적인 첨단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투자기업까지도 대기업의 신설을 원천금지하고 증설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기업성장 저해는 물론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수도권 주요 규제내용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	• 총면적내 대체지정	• 제한적 공업지역 지정 ※ 442만㎡('06~'08), 전국 20%이내	• 6만㎡이하 공업용지
외투기업	• 신·증설 금지	• 산업단지 : 25개 첨단업종 신·증설 ('10년 말까지)	• 신·증설 금지
국내기업	• 첨단업종 신·증설 (1천㎡이내) • 첨단기존공장 증설 (3천㎡이내)	• 14개 첨단기존공장 100% 증설 ※ 기존공장 3천㎡이내 증설	• 산업단지·공업지역 - 3천㎡이내 증설(도시형 기준) - 1천㎡이내 신·증설(첨단) • 기타지역 - 1천㎡이내 신·증설(첨단)

※ 대기업 : 중소기업법에 근거 자본금80억 이상, 상시근로자 300인이상(1,000명 이상은 무조건)  
 ※ 기존공장 : 산집법시행령 '94.7.4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득하고, '96.7.19현재 등록된 공장

반도체, 자동차, 정보통신 등 R&D의존도가 높은 기술집약적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연구활동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확보 및 고급정보의 확보 그리고 시장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조건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업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수도권의 입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특히, 이천 부발읍에 대규모 반도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하이닉스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 라인 증설이 절실하였으나 구리배출문제,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3만㎡ 이하) 규제 등으로 적기에 공장증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반도체 시장 우위 확보 및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고, 반월국가산업단지내 유포매직의 경우

도 생산시설 증강을 위한 공장증설이 시급했으나 대기업 증설규제에 묶여 증설투자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가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첨단업종 공장에 대한 규제는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도지사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역 국회의원·경제단체·언론계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해왔다.

### 주요 추진경위

- 대정부 정책건의(경기도→청와대 등 중앙부처) : '05. 6. 14
- 수도권발전대책 당정간담회에서 8개 첨단업종허용 발표 : '05. 11. 4
- 수도권성장관리지역내 4개 대기업 공장증설 요청 : '06. 9(기업환경개선대책)
- 수도권성장관리지역내 4개 대기업 공장증설 허용 : '06. 12. 7
  - ※ '07. 3. 22 개정(공포)
-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요청 : '07. 3. 10
- 수도권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 등 정책건의(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 '07. 3. 19
-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 등(경기도→산자부 등 중앙부처) : '07. 3~
-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건의 : '07. 12. 27
- 산업단지내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건의 : '08. 1. ~ 현재
-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확대 등 건의 : '08. 2. ~ 현재

## 나. 규제개선 내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8개 업종에 대하여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 내에서는 '06년말까지 신설과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증설이 시급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4대기업에 대하여 '07년말까지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내에서 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인 첨단 25개 업종에 한해 2007년 12월 31일 까지만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2010년 12월 31일 까지 허용기간을 3년 연장하였으며, 대기업 업종이 아닌 전자카드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대신 대기업의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및 광섬유·광학요소제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신·증설 허용업종으로 교체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평택지역으로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계기를 통해 첨단업종 96개 업종에

대한 평택지역 신·증설 허용을 강력히 건의하여 최종 61개 업종에 대한 공장 신·증설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그동안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에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앞세워 투자가 시급한 기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허용해 줌에 따라 적기에 투자를 못함에 따른 기업경쟁력 확보가 지난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언론 및 학계 관계인들이 하나로 뭉쳐총력을 기울인 결과 '08.10.3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공동으로 정부가 그야말로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과밀·성장관리권역내 산업단지내에서는 461개 제조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전면 허용되었으며, 산업단지외 지역도 96개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이 확대 허용되었고, 첨단업종의 업종은 기존부지내에서 증설 허용, 자연보전권역은 폐수 비발생 공장의 신·증설 허용 및 공장건축면적 산정 시 창고·사무실을 제외함에 따라 이중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획기적인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규제개선 주요 내용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서 61개 업종 대기업 신·증설 허용('05. 4. 1)
  - 평택지역에 2014년까지 61개 업종 대기업의 신·증설을 허용
  - 평택지역 기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증설을 자유롭게 보장
- 외국인투자기업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신·증설허용('05. 5. 2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별표2의 1호에서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내에서 25개 첨단업종 신·증설을 '07.12.31까지 허용기한 3년 연장
  - 전자카드제조업을 광섬유 및 광학요소제조업으로 교체, 기타 광학기기제조업을 기타 산업용유리제품 제조업으로 교체
- 8개 업종 국내 대기업에 대한 신·증설 허용('05. 12. 9)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별표2에서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내에서 '06말까지 8개 업종 신·증설 허용
- 4개기업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06. 12. 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별표2 개정
  - 인쇄회로판(LG전자), 방송및무선통신기기(팬택), 의약품 약제품(한미약품, 일동제약) 제조업 '07년말까지 증설 허용
- 외국인투자기업 25개 업종에 대한 신·증설 기간 연장('07. 12. 1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별표2의 1호에서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내에서 25개업종 신·증설을 '10.12.31까지로 허용기한 3년 연장
- 수도권 기업규제 획기적 개선('08. 10. 30) —— 개척이래 최대 성과
  - 과밀·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내 모든업종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 과밀·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외 지역의 첨단업종 공장 증설 허용 확대
  - 과밀·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외 지역의 첨단업종외 공장은 기존부지내에서 증설 허용 등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 1. 16)

## 다. 규제개선 효과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업의 30년 숙원이 해결되어, 우리나라 핵심 전략산업이며, 수출 효자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 LCD, 무선통신기기 등의 투자대기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계기로 신제품 개발, 생산량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로 세계 경쟁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졌고,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한 층 더 끌어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라인증설 및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향후 평택지역에 국내·외 다수 기업의 대규모 공장 신·증설 투자로 인해 수출 증대, 고용 창출,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연관 산업의 발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규제개선 주요 효과

- 대만에 투자 물색중인 3M을 화성 장안산업단지에 투자유치
  - '06. 7월까지 6천만불 투자, 500명 고용창출
- 파주LG필립스와 연계한 LCD부품 및 완제품 생산공장 집적화기반 마련
  - 투자효과('11년까지) : 1.8조원(47억불 수출증대, 7,000명 고용창출, LG 4개사 1조7,300억원 및 대덕900억원)
    - ※ LG전자 1조1000억원, LG화학3,300억원, LG마이크론2,600억원 및 대덕전자 900억원
- 평택지원특별법제정 대응으로 평택지역 61개업종 대기업 신·증설허용
  - 총5,500억원투자, 6.5억불의 수출증대, 1,500명의 고용창출 기대
    - ※ 경동보일러('10년까지) : 5천억원투자, 5억불 수출증대, 1,000명의 고용창출
    - ※ 한미약품('07년까지) : 500억원투자, 1억5천만불 수출증대, 500명의 고용창출
- 바이케이('07년까지) : 500억원 투자, 8,000억원 수출증대, 1,000명 고용창출
- LG전자,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07년까지) : 3,486억원 수출증대, 1,650명 고용창출
- 기타 쌍용자동차 3단계, 엠코, 한독약품, 만도 등 신·증설 추진
- 일양약품, 페어차일드코리아 등 도내 17개업체 1조 2,216억원 투자, 3천여명 고용 창출 기대

## 라. 향후계획

지금까지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규제개선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자연보전권역과 과밀·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외 지역에 대하여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 수변지역 등의 이중 삼중규제로 인하여 지역 낙후가 심하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심각하여 이에 대한 규제개선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피해사례조사,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수도권 입지규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주요 규제개선 추진과제

- 환경오염이 없는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전지역 허용 확대
-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제도 및 공장총량제 폐지
- 과밀·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조성 완화 등
  - 과밀억제권역 : 신규 조성불가 → 신규조성 허용
  - 자연보전권역 : 6만㎡ 이하 → 100만㎡ 이하 확대

담당자 : 산업정책과 방대혁 / ☎ 031-249-4607

## 1-3. 지방산업단지 조성

### 가. 현황

경기도 내에서 조성 완료 및 개발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총 93개소 9,272만 2,000㎡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가 4개소 5,133만 9,000㎡, 일반산업단지가 88개소 4,081만 6,000㎡이며, 농공단지가 1개소 11만 7,000㎡이다.

### 나.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51개소 6,714만 4,000㎡로 그 중 국가산업단지가 3개소 4,983만 2,000㎡이고, 일반산업단지가 47개소 1,719만 5,000㎡이며, 농공단지가 1개소 11만 7,000㎡이다. 이들 산업단지 내에는 3개소의 국가산업단지에 10,223개사 19만 4,151명과 47개소의 일반산업단지에 3,470개사 9만 3,935명, 1개소의 농공단지에 4개사 330명이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 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는 42개소 2,512만 8,000㎡이며 이 중 국가산업단지가 1개소 1,507만㎡이고, 일반산업단지가 41개소 2,362만 1,000㎡이다.

### 국가산업단지

단지명	위 치	면적(천㎡)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파주출판문화정보	파주시 교하면 문발, 산남, 서패, 신촌리 일원	1,507	'97 ~ '11	한국토지공사

### 일반산업단지

시군	단지명	위 치	면적(천㎡)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계	41개소	23,621		
수원	수원(3)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795	'07.8~'12	수원시장
부천	오정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90	'04~'09.6	한국토지공사
용인	덕성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1,015	'07~'11	한국토지공사
남양주	금곡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30	'02~'09	(주)금곡산업개발
	팔야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213	'06~'09	한국토지공사
	진관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142	'08~'10	한국토지공사
평택	진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486	'03~'10	평택시장
	오성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600	'04~'09	평택시장, 경기도시공사
	포승(2)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33	'07~'11	우양에이치씨(주)
	고덕 국제화	평택시 모곡동, 고덕면	3,966	'08~'13	경기도시공사
	서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1,380	'08~'11	서탄산업단지개발(주)
	한중테크노밸리	평택시 포승읍 회곡리	1,322	'08~'12	민관합동SPC
화성	장안첨단(2)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615	'05~'09.6	화성시장, 경기도시공사
	화성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970	'97~'09	삼성전자(주)
	화남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149	'02~'08	(주)대덕기업
	팔탄(한미약품)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52	'07~'09	한미약품(주)
파주	문산(당동)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문산리	641	'04~'08	파주시, 경기도시공사
	문산(선유)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13	'04~'09	파주시, 경기도시공사
	월롱(내포)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문산읍 내포리	840	'06~'10	파주시장, 경기도시공사
	신촌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193	'07~'10	파주자유로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축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299	'07~'10	파주운정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법원 (대능)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346	'08~'11	파주시장

시군	단지명	위 치	면적(천㎡)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김포	양촌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1,683	'03~'09	김포시장, 경기도시공사
	항공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337	'05~'09	(유)한국타임즈 항공
	통진(팬택)	김포시 통진읍 웅정리	34	'07~'10	(주)팬택
	학운(2)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633	'06~'12	김포시장
이천	장호원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60	'06~'09	이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양주	남면	양주시 남면 구암리, 상수리	209	'05~'09	양주시장, 경기도시공사
	구암	양주시 남면 구암리	84	'02~'11	뉴옵틱스
	홍죽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588	'06~'10	양주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성	무능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63	'03~'09	풍천산업
	개정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고지리	209	'06~'09	안성시장
	월정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60	'07~'10	안성시장
	장원(2)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60	'07~'10	안성시장
	안성(4)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800	'08~'11	경기도시공사
포천	봉화골(야미)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400	'06~'10	포천시장
오산	가장	오산시 가장동	514	'03~'09	오산시장, 경기도시공사
	가장(2)	오산시 가장동	605	'08~'11	한국토지공사
여주	강천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59	'05~'09	여주군
동두천	동두천II	동두천시 동두천동	187	'05~'09	동두천시장, 경기도시공사
연천	백학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99	'05~'09	연천군수, 경기도시공사

## 라. 산업단지 개발계획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와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 공업용지 공급 계획을 수립한 후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기초를 유지하고, 지역별 특성과 인프라 및 주변여건을 감안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클러스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내 첨단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의 핵심거점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마.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산업단지 조성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입주기업체에게 저비용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 도로, 녹지,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를 1996년부터 2008년까지 31개 단지에 932억 9천 만원을 지원했으며 2009년에는 5개 단지에 66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자 : 산업정책과 오정호 / ☎ 031-249-4614

## 1-4. 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

### 가. 아파트형공장 건립배경

도심지역에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입지 감소로 인하여 공장입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수도권지역에서는 공장총량제와 권역별 업종 제한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입지 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도심지역의 제한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장입지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84년 3월에 상공부고시(84-11)호에 의한 협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으며, '89년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설립근거가 마련되면서부터 아파트형공장 건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 나. 아파트형공장 현황

2008년도 현재 경기도에는 129개소의 아파트형 공장이 완공되어 11,009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으며 또한 34개소에 4,394개 업체 입주규모의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추진 중에 있다.

### 다. 아파트형공장 건립지원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입지 난을 덜어주고 도심지 유희인력의 흡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96년도부터 아파트형공장 설립 지원자금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으로는 아파트형공장 건설비의 75%이내(업체당 한도액 400억원)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56개업체에 5,852억원을 지원하였으

며, 2009년도에도 신규로 성남 등 6개소에 대하여 1,000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분양 및 '09년 준공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 아파트형공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남양주	광명	시흥	군포	이천	김포	안성	의왕	오산	동두천
계	163	15	36	2	18	20	9	4	2	3	21	17	1	2	1	8	2	2
가동	129	11	25	2	18	16	8	-	2	2	15	16	1	1	1	8	2	1
건축중	34	4	11	-	-	4	1	4	-	1	6	1	-	1	-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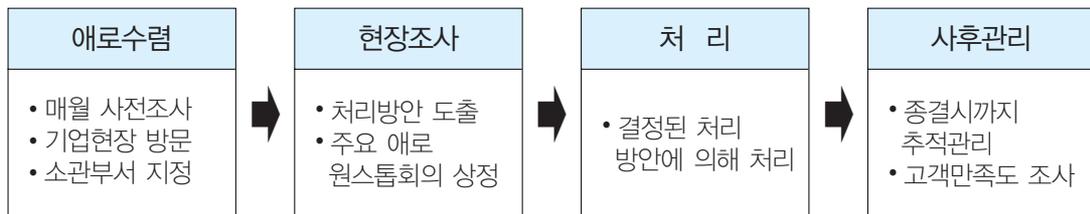
담당자 : 산업정책과 배은지 / ☎ 031-249-4644

## 2.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 2-1.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기업SOS<sup>1)</sup> 시스템' 구축

#### 가. 기업애로 처리 절차

기업SOS 시스템에 의한 기업애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나. 추진배경

기존의 기업애로 처리는 공장설립 등 법령에 근거한 서면 위주의 처리와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법령 해석과 행정 편의적인 집행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다수의 관계기관 및 부서가 연관된 복합애로의 경우에는 처리 주관부서의 기피, 칸막이 행정, 유관기관 간 협조부족, 책임전가 등으로 인한 지연처리와 사업시기 일실에 따라 기업인 불만을 야기하고,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접수된 애로사항 위주의 처리 행태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기업애로에 대한 해소 노력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긴요한 실정이었다.

1) 기업SOS : 기업 'Speed One-stop Solution' 의 약칭

## 다. 추진경위

2006년 10월 2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경제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도내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 22일 경제투자관리실에 기업애로 전담조직인 기업현장기동담당이 신설되어 타 시·도와 도내 시·군의 기업애로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연구기관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도내 경제관련 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4월 9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같은 해 4월 20일 기업애로의 수렴과 처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SOS 지원센터'를 경제투자실에 설치하였고 현재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 내로 변경하였다. 또한 도 및 시·군, 중기센터, 지역 상의가 참여하는 '기업현장기동반'을 구성하여 기업애로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을 본격 착수한 이후 현재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도 및 시·군, 유관기관 등 기업애로 처리와 관련된 105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인 '기업SOS 지원단'을 2007년 4월 26일 구성하였고 그해 5월에 지원단에게도지사 감사 서한문을 보냈으며 6월 20일 본격 출범 선언을 하였다.

2008년 5월 22일 제1차 기업애로 협약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지원단을 208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2008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파주 흥원연수원에서 기업SOS 지원단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여 수혜기업인 초청 사례청취, 시·군 기업애로 처리 추진사례 발표, 기업애로 업무처리를 위한 소양교육 등 기관간 협력과 기업애로에 대한 마인드를 강화하고 처리능력을 제고하였다.

처음으로 2007년 5월 22일 윈스톱 처리회의를 개최하여 '대성미생물' 진입로 개설, '(주)탑술' 하수처리 용량 증설, 마도산업단지 진입 고가도로 설치, 폐기물업체 비산먼지 대책, '신명산업' 공장부지 증설, 내유동 협동화단지 소화전 설치, '성경정밀' 주변 공업지역 재정비, '프라코' 도시가스 조기 설치 등 주요애로 8건을 처리하였다.

2007년 7월 27일 제2차 윈스톱 처리회의를 개최하여 '한일식품' 공장 증설, '대주' 사전환경성협의 관련 공장 이전, 'ASE코리아' 도시가스 체납 대비용 보증금 예치, '삼신이노텍' 공장 설립 승인 기간 연장, '마니커' 폐수를 동두천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등 주요애로 5건을 처리하였다.

제3차 원스톱 처리회의를 2007년 11월 22일 개최하여 안산데콤단지로 버스를 운행하게 하였으며 2008년 9월 5일 화성·오산시계 지하차도 가로등 관리 및 쓰레기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현재까지 원스톱 처리회의를 6회에 걸쳐 18건을 처리하였다.



제1차 원스톱 처리회의('07.5.22)



기업SOS 지원단 회의('07.6.20)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SOS 배너광고를 2007년 6월 8일 추진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372개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였고 12월에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경기도 ‘기업SOS’”란 제목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부하고 기업인 관련 각종 모임시 상영하도록 하여 기업 SOS 시스템에 대한 기업인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기업현장기동반 전용차량을 별도 디자인하여 적용하였다.

2008년 1월 기업SOS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브랜드명을 공모하여 2월에 로고 디자인을 착수하고 4월에 시안에 대하여 실무·전문가 보완작업을 거쳐 2008년 5월 2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2008년 8월 1일 브랜드 관련 홍보물인 스티커를 4천매, 마우스패드 2천개를 제작하여 시·군·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현장방문 시 홍보물로 사용하였다

기업애로의 주요처리 주체인 시·군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시·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처리실적을 평가하여 평가순위를 A(우수)·B(보통)·C(부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공개하였으며, 2007년도 평가결과 최우수(남양주), 우수(부천), 장려(용인)로 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2008년도에는 최우수(광주), 우수(부천, 용인), 장려(남양주, 안산, 파주)로 포상금 3천4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유공기관·개인을 표창하고 최우수 기관에게는 우승기, 2년간 기업 SOS 브랜드 사용권,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다양하고 푸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관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스템 발전을 도모하였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제도화하였

으며, 2008년 12월 1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업SOS大賞’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

2008년 5월 기존 오프라인 시스템에 따른 기관·부서간 협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을 구상하였고 2008년 6월 5일 온라인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N사와 6월 20일 계약하였고 2008년 11월 6일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출원하였다.

기업SOS넷 가동에 따라 기관 간 ‘기업현장 목소리’의 실시간 공유로 수요자인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안·서비스 환경이 확보되었으며, 앞으로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하여 기업SOS넷을 전국 모델로 표준화함으로써 도 위상 제고는 물론, 여성기업인 수혜실적 등 다양한 성별통계 환경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안을 도출하여 기업지원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성인지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 공모에서 기업SOS 시스템이 ‘전국 최우수 기업사랑 혁신사례’로 2007년 12월 13일에 선정되었으며 2008년 12월 8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전국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도·유관기관 기업애로 처리 협약(07.12.17)



전국 우수조례 선정(08.12.8)

일정별 세부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07년도

- 2. 22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시행
- 기업애로 처리 전담조직 신설 : 기업현장기동담당(경제정책과)

- 4. 9 :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4. 13 : 기업애로 사전조사(시·군 추천 500개 기업)
- 4. 20 : '기업SOS 지원센터' 설치(현판식)
- 4. 20 : '07 기업애로 수렴 현장방문 계획 수립 시달
- 4. 26 : '기업SOS 지원단' 구성(105개 기관, 133명)
- 4. 28 : 기업현장 방문 본격착수
- 5. 1 : 경기넷 기업애로상담 게시판 운영 개선
- 5. 1 : 홍보 리플릿 제작(1만부)
- 5. 15 : '기업SOS 지원단' 도지사 감사서한문 발송
- 5. 22 : 제1차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주요애로 8건)
- 5. 31 : 전용차량 운영(로고 디자인)
- 6. 8 : 시·군 홈페이지 배너광고 추진(7.20 전 시·군 완료)
- 6. 20 : '기업SOS 지원단' 회의 개최, 본격출범 선언
- 7. 11 : 중기센터 입주 유관기관 실무회의(경기신보 등 11개 기관)
  - 실무자간 협조체제 구축, 기업애로 처리협약 등 논의
- 7. 27 : 제2차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주요애로 5건)
- 8. 2 : 유관기관 정책실무자 회의(경기지방중기청 등 9개 기관)
  - 기관간 협력체계 및 협약 추진 방향 등 논의
- 8. 2 : '07 기업애로 처리 시·군 평가계획 수립
- 8. 20 : '07 기업SOS 지원단 워크숍 추진계획 수립
- 8. 27 : '기업SOS 지원단' 추가구성 : 13개 기관, 13명
  - 105개 기관, 133명 → 118개 기관, 146명으로 확대
- 9. 21 : 도·유관기관 상호간 협약체결 추진계획 수립(18개 기관)
  - 9. 27 : 도·유관기관 정책실무자 회의계획(10. 10. 15:00) 통보
- 9. 28 : '기업SOS 지원단' 추가구성(1개 기관 : 경인지방식약청)
  - 118개 기관, 146명 → 119개 기관, 147명으로 확대
- 10. 4~10. 5 : '07 기업SOS 지원단 워크숍 개최
- 10. 11 :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추진(372개소)
- 10. 17~19 : 행사부 '지방행정혁신 한마당(킨텍스)' 을 통한 홍보
- 11. 12 :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전국 최초)

- 11. 22 : 제3차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주요애로 2건)
- 11~12월 : 고객만족도 조사(애로 처리기업 대상) 및 시·군 평가
  - 시상 : 기관표창, 부서포상금 20백만원(최우수 10, 우수 6, 장려 4)
- 11~12월 : 기업SOS 홍보 동영상물 제작(3종 : 10분, 5분, 30초)
  - 컨셉 :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경기도 '기업SOS」
- 12. 13 : 전국 최우수 '기업사랑 우수사례상' 수상(산업자원부)
- 12. 17 : 도·유관기관 기업애로 처리 협약(전국 최초) : 18개 기관

○ 2008년도

- 1. 9 : 2008년도 기업SOS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1. 15 : 2008년도 기업애로 수렴 현장방문 추진계획 수립
- 1. 18 : 2008년도 시·군 기업애로 처리상황 평가계획 수립
- 3. 3 : 경발연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연구 착수(완료예정 : 8월말)
- 3. 5 : 조직개편에 따른 소속 변경(경제정책과 → 기업지원과)
  - 관련기능 통합으로 애로의 효율적인 처리 및 정책반영 기능 강화
- 3. 11 : 시·군별 전담조직 설치 권고(조직관리 부서 협의)
- 3. 23 : 행안부 차관보 보고(기업SOS 개요 및 국가시스템 문제점 등)
  - 3. 27 기업협력지원관 외 6인 경기도 방문(세무내용 청취 및 현장방문)
  - 4. 2 지방 우수사례 국정화시책 자료 제출
  - ※ 3. 11~3. 31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등에 자료 제공
- 4. 11 : 협약기관 정책실무회의(도 및 17개 기관 정책실무자)
  - 제1차 협약기관장회의 개최일정 및 상정안건 등 협의
- 4. 29 : 기업SOS 브랜드 개발(시스템 출범 첫돌과 병행하여 홍보)
  - '08. 1. 18~1. 25 : 브랜드명 공모(도 공무원 및 시·군, 유관기관 대상)
  - '08. 2. 27 : 로고 디자인 착수(정책기획심의관실 공공디자인담당)
  - '08. 3. 26~4. 28 : 로고 시안(16종)에 대한 실무검토 및 보완 진행
  - 1차보완(3. 26~4. 7), 직원의견 수렴(4. 7~4. 11), 전문가 2차보완(4. 14~4. 28)
- 4. 30 : '차세대 G4B' 관련 업무협의(지식경제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道の 기업SOS시스템 및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 벤치마킹, '차세대 G4B 구축 TF팀' 참여 요청
  - 지식경제부(정보통신활용과), 진흥원, G4B 구축 민간전문가 등 참여

- 5. 2 : 기업SOS 브랜드 특허청 출원(업무표장 : 42-2008-0000202)
  - '08. 5. 2 : 남양주시( 07평가 최우수기관)에 '09년말까지 사용권 부여
- 5. 13 : 브랜드 개발에 따른 광고 전문업체 컨설팅 의뢰
- 5. 22 : 제1차 기업애로 협약기관장 회의 개최(18개 기관)
  - 기업SOS 시스템 추진상황 보고 및 3개 안건 처리
- 5. 28 : 중기청장 보고(경기지방청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제공
- 6. 2 : 도 콜센터 기업관련 전화의 중기센터 일원화방안 마련
- 6. 5 : 온라인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용역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6. 20 :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업체 계약(네모소프트)
- 6. 23 : 최우수 시군에 대한 브랜드 사용기간 연장(1년 → 2년)
  -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예산 효율성 및 실질적인 사용기간 등 감안
- 6. 24 : 브랜드 광고 컨설팅 완료에 따른 리플릿 및 명함 제작
- 6. 25 : 행안부 '범지자체 기업협력추진단 워크숍' 수범사례 발표
- 7. 1 : '콜센터 기업관련 상담전화의 중기센터 일원화' 서비스 개시
  - 중기센터 내 상담 전용전화 설치, 전담직원 지정 운영
- 7. 7 : 정부합동감사 자료 제출 : 시스템 개요, 애로 처리상황 등
- 7. 8 : 기업SOS 영상물 제공(인재개발원) : 교육생 · 외부인 홍보
- 7. 14 : 지방중기청 이양자료 제출(행안부) : 현장애로 해소 강화 등
- 7. 24 : 브랜드 컨설팅 결과 발표, 기업SOS 지원센터 현판식
  - 표준 홍보도안 : 11종(기동차량, 플래카드, 스티커, 지원센터 현판 등)
- 7. 29 : 경발연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연구 자문회의 참석
  - 연구 진행상황 및 연차별 연구과제 등 검토
- 8. 1 : 브랜드 관련 홍보물 제작 : 스티커(4천매), 마우스패드(2천매)
- 8. 5 : 브랜드 관련 경기넷 기업애로 게시판 운영 개선
  - 표준 홍보도안 적용, 부서간 역할분담에 의한 연계운영 등
- 8. 19 : '08 상반기 기업애로 처리상황 보도자료 제공
  - 481개 업체 1,151건 처리(1,092건 처리완료 - 95%)
- 8. 21 : '기업SOS 시스템 발전방안 연구' 최종심의(경기개발연구원)
  - 연차별 연구 지속으로 국내 기업애로처리시스템 이론체계 정립 선도
  - (09) 온라인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발전방안, (10) 기업SOS의 지속가능 발전전략, (11) 온·오프라인 기업지원 통합서비스 구축방안 등

- 8. 24 : 경기도, 지방자치경영대전 기업분야 최우수상 수상
  - 기업SOS 등 도 기업관련 전반분야 응모
- 9. 3~9. 9 : 기반시설 관련 애로의 획기적인 해소대책 마련
  - '09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예산규모의 대폭 확대 등
- 9. 5 : 제4차 기업애로 원스톱처리회의
  - 화성·오산시계 지하차도 가로등 관리 및 쓰레기 방지대책 강구
- 9.10 : '기업SOS 시스템 발전방안' 수립
  - 그간 운영상황 종합분석을 통한 업그레이드 및 '09예산계획 등
  - 보도자료 제공 : '기업SOS, 국제적 수준의 대표브랜드 청사진 마련'
- 9. 18 : 경기도, 전국 '기업하기 좋은 도시' 大賞 수상(기업SOS 기여)
  - 한국언론인포럼·한국신문방송연구원 공동 주관
- 9. 25~26(2일간) : '08 기업SOS지원단 사례발표대회, 보도자료 제공
  - 노하우 공유, 기관간 교차평가로 우수기관 시상 및 연말평가 반영
- 10. 1 : 시·군단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군 권고(기관장 공람)
  - 전담조직·인력 확충, 조례 제정,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 ※시·군 자치행정국장 회의 시(10.6, 경기행정발전협의회) 안건 포함
- 10. 8 : '기업SOS 시스템 발전방안' 연구결과 발표(언론 브리핑)
  - 전담조직·인력 확충, 인센티브 강화 등 필요(경발연 박성훈 박사)
- 10. 8 : 도·중기센터 '기업SOS 시스템 발전방안' 연찬회
  - 참석 : 19명(기업지원과 6명, 경영상담팀 10명, 북부지소 3명 등)
- 10. 10 : '08 시·군 평가계획 발표
  - 평가항목·배점·일정, 성적순위 공개방법(3그룹, 1~15위) 등 확정
- 10. 15 :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김기선 의원)
  - 전담조직·인력 운용 개선, 기업SOS 대상 신설, 지속발전 도모 등
- 11. 4 : 정부합동감사반 언론브리핑('경기도와 공동으로 6건 처리')
- 11. 5 : 아주대학교 중소기업 산학협력 세미나 홍보
  - 기업SOS 개요·발전방안(비전), 홍보영상 상영 등(호텔캐슬, 150명)
- 11. 6 :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 시스템' 특허 출원
  - 출원번호 : 10-2008-110043(발명)
- 11. 11 :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도의회 가결

- 11. 14 : 특허청, 기업SOS 브랜드 출원 공고(2개월간) 결정
  - 심사결과 등록요건에 적합하여 일반공증을 위해 상표공보 게재
- 11. 19 : 기업SOS 지원단 확대(08-1차) 구성
  - 기존 119개 기관 + 43개 기관 ⇒ 162개 기관
- 12. 1 : '기업SOS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 전담조직 · 인력 운용 개선, 기업SOS 대상 신설, 지속발전 도모 등
- 12. 2 : 기업SOS 지원단 확대(08-2차) 구성
  - 기존 162개 기관 + 9개 기관 ⇒ 171개 기관
- 12. 8 :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 우수조례 상' 수상
  -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김기선 의원 발의)
- 12. 9 : 기업SOS 지원단 확대(08-3차) 구성
  - 기존 171개 기관 + 6개 기관 ⇒ 177개 기관
- 12. 11 :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 개발결과 최종보고회
  - 도 및 중기센터, 경기개발연구원(기업SOS 시스템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정책의 성인지 관련) 등
- 12. 12 : 도내 기업애로 담당공무원 "섬김이 대상(대통령)" 다수 수상
  - 수상(7) : 경기도(2) · 용인 · 남양주 · 파주 · 여주, 안산시(기관) 등
- 12. 15 : 08 시 · 군 평가결과 발표(그룹별 및 1~15위 순위 공개)
  - 최우수(광주시), 우수(부천 · 용인시), 장려(남양주 · 안산 · 파주시)
- 12. 16 : 기업SOS 지원단 확대(08-4차) 구성
  - 기존 177개 기관 + 19개 기관 ⇒ 196개 기관
- 12. 23 : 기업SOS 지원단 확대(08-5차) 구성
  - 기존 196개 기관 + 2개 기관 ⇒ 198개 기관
- 12. 23 : 온라인 통합처리시스템 기관관리자 교육(매뉴얼 제작)
- 12. 29 : 기업SOS 지원단 확대(08-6차) 구성
  - 기존 198개 기관 + 6개 기관 ⇒ 204개 기관
- 12. 31 : '08 기업애로 처리 우수기관 시상(도 중무식)

○ 2009년도

- 1. 2 : 중기센터 기업SOS 전담조직 신설
  - 조직명 : 기업SOS지원팀(팀장 외 5명)
- 1. 7 : 2009년도 기업SOS 발전계획 수립
  - 기업SOS지원센터 별도 설치(중기센터), 온라인 처리시스템, 기업SOS大賞 등
- 1. 9 : 기업SOS지원단 개소(도 경제투자실 내)
  - 기존의 기업SOS지원센터는 중기센터 이전 운영
- 1. 12 : 기업SOS지원센터 개소(도 중기센터 내)
  - 도·유관기관 협업을 위한 기업SOS 대표공간(센터장은 두지 않음)
- 1. 16 : '09 시·군 기업SOS 운영성과 평가계획 수립
  - 평가지표 세분화(3분야 24항목), 기업SOS 대상 운영, 정보공유 등
- 1. 16 : '09 기업SOS 현장기동반 운영계획 수립
  - 기업애로 사전조사, 수요자 중심의 검토·처리, 제2청 역할분담 등
- 1. 22 : 2월중 기업현장 방문계획 수립 통보
  - 1월까지 본청에서 전담했으나, 2월부터 경기북부지역은 2청 분담
- 2. 2 : 기업SOS 상표등록(특허청 결정)
  - 브랜드 인지도 확산방안 지속 강구 및 매 10년마다 갱신등록 필요
- 2. 11 : 기업SOS 포럼 개최(도 및 시·군, 유관기관 등 200여명)
  - 사례 발표(광주시), 시스템 개요 및 09운영계획 관련 정보 공유 등

**라. 기업애로 처리 실적**

'07년 4월말 시스템 출범 이후 '08년 10월말 까지 기업현장기동반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를 수렴한 결과, 총 1,653건이 접수되어 그중 1,574건(98%)이 완료되었다. 애로 내용은 공장주변 인프라 관련 애로가 437건(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지원 310건(19%), 공장설립 247건(15%), 판로·수출 157건(9%), 기술·인증 78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애로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는 복합애로는 59%인 973건이고, 애로 처리에 총 100개 기관이 관련되어 최초 접수에서 처리까지 평균 14.4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애로발굴 및 처리상황

(단위 : 건, 기간 : '07.4.28~'08.10.31)

구 분	합계	공장 설립	주 변 인프라	창업 벤처	자금 지원	판로 수출	기술 인증	세무 회계	인력 교육	기타
총 계	1653	247	437	4	310	157	78	14	184	222
처 리 중	79	10	60	-	-	-	-	-	2	7
완 료	1574	237	377	4	310	157	78	14	182	215

## 처리기간

(단위 : 건, '07.4.28~'08.10.31)

구 분	계	공장 설립	주 변 인프라	창업 벤처	자금 지원	판로 수출	기술 인증	세무 회계	인력 교육	기타	
평균소요기간	14.4일	19.9일	19.2일	8.5일	8.9일	8.4일	13.2일	22.0일	11.3일	14.9일	
애 로 건 수	계	1574(100%)	237	377	4	310	157	78	14	182	215
	5일 이내	495( 31%)	28	36	1	162	80	32	2	95	59
	6일~10일	258( 16%)	42	57	1	55	19	9	2	31	42
	11일~30일	672( 43%)	121	227	2	80	53	33	8	48	100
	30일 초과	149( 9%)	46	57	-	13	5	4	2	8	14

### 마. 향후 추진방향

2007년에 기업SOS 시스템이 처음으로 구축되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기업사랑 혁신 사례로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면 2008년은 기업SOS 브랜드 상표등록, 지원단 확대, 전국 우수조례 선정, 기업SOS넷 특허출원 등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다.

그러나 시스템이 기업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애로의 누수 없는 수렴과 수요자 중심의 상담을 하고, 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며 그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로 시스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이다. '기업SOS넷' 본격 출범으로 기업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애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이다.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SOS 大賞'을 신설하고 대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평가를 공정하고 전문성있게 운영할 것이다. 또한 기업애로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업SOS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하며 도 시스템과 연계한 시·군 시스템을 정착하여 처리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함으로 기업애로 에 대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자 : 기업지원과 안충기 / ☎ 031-249-4982



## 다. 발전 방향

현재 경기넷 기업정보에 링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경제 및 산업분야에 대한 통계 및 지표의 관리는 경기개발연구원 경제분석센터의 협조를 통해 최신의 자료를 게재하고 각종 언론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감으로써 시의성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과 정책담당자들에게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담당자 : 경제정책과 유경자 / ☎ 031-249-4566

## 2-3.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개최

### 가. 추진배경

경기도가 민선 4기 경제정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시작한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는 경기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과 도 경제정책 등에 관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 유관기관단체장, 기업인, 언론인, 외부 전문가 등 20~30여명의 인사가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 외자유치, 중소기업 육성, 첨단산업 육성, 무역진흥 등의 주제를 시의 적절하게 선정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 나. 개최결과

'08년은 경기도 경제정책을 시작으로 총9회에 걸쳐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관련 전문가로부터 도 경제정책에 대한 진단과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자문을 받아왔으며, 특히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 등 새로운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회차	토론주제	개최일
1회	2008년 경기도 경제정책	'08. 1. 11
2회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08. 2. 22
3회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08. 3. 24
4회	물류산업 동향 및 경기도 물류정책 방향	'08. 4. 28
5회	해양레저 제조산업을 선도할 경기도의 역할	'08. 5. 26
6회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	'08. 7. 3
7회	환경산업 육성 방안	'08. 8. 28
8회	건설산업 육성 방안	'08. 9. 29
9회	2009년 경제 및 산업 전망	'08.12. 19

## 다. 향후계획

지속적으로 경제환경 변화와 경제분야 핵심산업 관련 주제를 발굴하여 도 경제정책의 질과 효율성을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경제정책과 이호원 / ☎ 031-249-3212

### 3. 중소기업 ·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3-1. 중소기업 · 벤처기업 자금지원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2008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1조 3,200억원 규모로 운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가. 운전자금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하는 자금으로 1981년부터 2003년말까지 도 및 시·군비를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을 토대로 2008년말 현재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2,93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동안 연평균 2,633개 업체에 7,8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당 평균 2억9,749만원을 지원하였다.

운전자금 기금조성 현황

(단위: 억원)

합 계	도비	시군비	이자수익 등
2,937	786	1,947	204

운전자금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 평균
금 액	7,547	8,504	7,449	7,833
업체수	2,587	2,689	2,622	2,633

2008년도에는 업체당 5억원 한도로 대출기간은 1~4년으로 다양화하였으며, 4.65%~5.9%까지 연도별 차등금리를 적용운영하였다. 또한 도에서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협조용자를 병행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구조개선 촉진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장기 저리자금이다. 2003년부터 구조조정자금, APT형 공장 설치자금과 유통시설개선자금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국비대여금, 도비, 시·군비로 기금을 조성, 2008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7,138억원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원)

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이자수익 등
7,138	160	3,626	906	2,446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시설투자+신기술지원+벤처창업+APT형공장설치+유통시설개선+여성창업+소상공인창업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 평균
금 액	5,694	6,020	6,522	6,079
업체수	977	1,816	3,235	2,009

구조조정자금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지식기반·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신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투자자금·신기술 사업화자금·벤처창업자금이 있으며, 시설투자자금은 605개 업체에 3,500억원, 신기술사업화자금은 70개 업체에 339억원, 벤처창업자금은 173개 업체에 599억원 등 총 848개 업체에 4,437억원을 지원하였다.

APT형공장 설립자금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7개소에 9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창업자금은 49개 업체에 총 84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인의 기업 활동을 적극 육성하였다.

담당자 : 기업지원과 유희준 / ☎ 031-249-4590

## 3-2. 중소기업 신용보증확대

경기도는 도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보증을 확대공급하였다.

신용보증공급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분	2006(A)	2007	2008(B)	증가율(B/A)
보증공급액	6,930	7,628	10,018	144.5
지원업체수	13,807	15,155	33,527	242.8

국·도비와 시·군비, 그리고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등 총 3,484억원의 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보증재원 출연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계	1996~2005	2006	2007	2008
계	3,484	2,622	272	298	292
국비	521	507	8	6	-
도비	1,910	1,481	180	149	100
시·군비	714	442	74	79	119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119	-	4	55	60
기타(금융기관, 대기업 등)	220	192	6	9	13

또한 2008년에도 2개 지점(포천, 파주지점)을 신설하여 도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쉽게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정부정책인 뉴스타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에 대해 경기도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20,444개 업체 2,036억원의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맞춤형 신용보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담당자 : 기업지원과 곽선미 / ☎ 031-249-4639

### 3-3. 벤처기업 현황 및 육성 시책

#### 가. 현황

벤처기업은 '97년 이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07.8.28), 코스닥 활성화 등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으로 양적 성장을 이어 왔으나, 2000년 벤처 버블이 붕괴된 후 투자자의 신뢰상실과 자금난 등으로 벤처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01년 말 도내 벤처기업수가 2,425개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벤처 거품이 빠지면서 2004년 4월까지 계속 감소세를 이어져 왔으나, 벤처기업수가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하면서, 2005년 6월 새로이 벤처기업수가 갱신, 2007년 8월 이후 벤처기업수에서 서울을 제치고 전국 최대 시·도로 부상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1. 12월말 : 2,425업체 (정점) - 전국 11,392(도 점유율 21.2%)
- 2003. 04월말 : 1,939업체 (최저)
- 2007. 08월말 : 3,761업체 (최대) - 전국 13,412(도 점유율 28.0%)
- 2008. 12월말 : 4,455업체 (최고) - 전국 15,401(도 점유율 28.9%)

최근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고 있는 지식기반기업의 활성화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향상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벤처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 나. 벤처기업 육성시책

우리도의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 및 입지지원, 기술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창업 및 입지지원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학 등에 47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벤처빌딩 3개소(고양, 안양 북부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23개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4개 지구 운영(성남, 안양, 부천, 안산 등 4개 지역 10,956천㎡) 등 초기기업의 입지지원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벤처기업의 첨단기술지원을 위해서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208과제 지원), 중소·벤처기업 시제품개발 지원(32업체 3억원 지원), 산업디자인육성 및 활성화 지원(14억원)은 물론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신기술사

업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자금지원을 위한 벤처창업자금 및 신기술투자자금을 운영 기업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함은 물론 자금지원이 경영 및 기술지원과 연계 되도록 사후관리와 금융 지원 통합 상담회 등을 통하여 자금지원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특히 도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운동을 위해 벤처집적시설내 벤처기업에 한해 당초 1,000㎡이하 공장등록 허용면적을 2,000㎡로 확대하였으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업종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업 등 4종에서 8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9종), 정보통신업(6종) 등 15종이 추가되도록 건의하여 반영이 되었다

또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설유도를 위해 집적시설건립자에게 150억원까지 장기저리로 용자하여 첨단지식산업기업을 도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 다.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이중 삼중 규제로 수도권의 첨단기업의 입지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첨단의 무공해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및 육성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기업지원과 용석찬 / ☎ 031-249-4630

## 3-4.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시설확장 지원

### 가. 현황

경기도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도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 창업자 및 신규 창업자의 입주 공간 마련을 위하여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창업성공을 제고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 곳은 총 49개로서 대학 41개 센터, 연구소 등에 8개 센터가 있다. 이들 보육센터에는 799개의 우수 보육기업 및 3,893명의 인원이 고용되어 우수한 연구 인프라의 활용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창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확장개소('08. 11)



청강문화산업대학 확장개소('09. 5)

## 나. 운영비 및 시설확장비 지원

그 동안 도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재정자립 기반을 조기에 확립토록 하기 위한 운영비를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비는 2001년 35개 센터에 1억 7,500만원, 2002년 38개 센터에 5억 8,600만원, 2003년 41개 센터에 5억 9,500만원, 2004년 40개 센터에 5억 9,000만원, 2005년 및 2006년도에는 40개 센터, 2007년도에는 41개 센터에 6억원, 2008년도에는 42개 센터에 8억원, 2009년은 42개 센터에 6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2006년도에는 창업보육센터의 자립화 기반을 확립하고자 도비 30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경기공업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각각 10억원을 지원하여 총 12,258㎡의 입주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100여 업체의 신규 창업 및 57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루었다.

또한 2008년에는 창업보육센터의 시설확장사업비 18억원을 확보 4개 창업보육센터의 시설확장을 추진하여 7,639㎡ 확장, 40개 업체 입주공간 확보 및 22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2009년에도 창업보육센터의 시설확장사업비 13.5억원을 확보 4개 창업보육센터의 시설확장을 추진 25,370㎡ 확장으로, 129개 업체 입주공간 확보 및 628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 다.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도는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사업과 운영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창업성공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

담당자 : 기업지원과 김일수 / ☎ 031-249-4632

## 3-5. G-FAIR 개최

### 가. 현황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전국중소기업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G-FAIR(경기우수상품박람회)는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IT, 전기전자, 산업분야, 소비재 생활용품 등 관련 국내외 중소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첨단기술 홍보와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수출·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우수 중소기업 무역박람회이다.

### 나. 성과

2008년도에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KINTEX(한국국제전시장)에서 제11회 박람회가 개최되어 단순히 전시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시장개척과 투자유치는 물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부대행사로 마련하여 해외시장개척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590개 부스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해외바이어상담회, 대·중·소기업상담회, 해외유망시장 진출 전략세미나 등을 통해 수출상담 135백만달러, 내수판매상담 62억원 규모의 실적을 거뒀고 3만2천여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다녀갔다.



행정 1부지사 총회 유치발언



산동일보와의 인터뷰

### G-FAIR 개최현황

개 회 수	기간 · 장소	참 가 규 모	소요예산 (백만원)	참관인원 (명)	구매상담 (건)	창업상담 (건)	투자상담 (백만원)
제1회	1999. 6. 11~13 수원체육관	85개 기업, 단체 (67개 부스)	150 (도비)	10,000	108	224	3,100
제2회	1999. 10. 22~24 주택전시관	73개 기업, 단체 (61개 부스)	150 (도비)	6,100	1,146	183	1,980
제3회	2000. 7. 7~ 9 부천체육관	67개 기업, 단체 (61개 부스)	150 (도122,시28)	13,200	1,115	62	1,863
제4회	2001. 6. 22~24 안양체육관	106개 기업, 단체 (104개 부스)	200 (도150,시50)	15,700	889	646	2,991
제5회	2002. 6. 5~8 중기센터	128개 기업, 단체 (55개 부스)	167 (도137,시30)	14,500	300	-	1,505
제6회	2003. 5. 26~28 중기센터	99개 기업, 단체 (52개 부스)	200 (도150,시50)	18,000	968	-	4,360
제7회	2004. 10. 18~21 중기센터	98개 기업, 단체 (95개 부스)	365 (도300,시65)	20,000	3,072	-	2,400
제8회	2005.6.2~5 KINTEX	248개 기업, 단체 (417개 부스)	600 (도600)	50,000	10,500	-	40,000
제9회	2006.9.6~9 KINTEX	200개 기업, 단체 (435개 부스)	600 (도600)	23,000	4,900	-	47,700
제10회	2007.9.12~14 KINTEX	239개 기업 · 단체 (453개 부스)	630 (도600, 보조30)	30,000	6,212	-	-
제11회	2008.10.29~31 KINTEX	500개 기업 · 단체 (590개 부스)	1,412 (도800, 보조612)	32,000	9,451	-	-

## 다.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2009년도에는 타 시·도 우수중소기업 참가로 전국단위 전시회로 확대하며, 2010년 부터는 격년 단위로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G-FAIR를 10월에 동시 개최하고, 바이어상담회에도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국제적 수준의 박람회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담당자 : 기업지원과 용석찬 / ☎ 031-249-4630

## 3-6.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시상

### 가. 추진배경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중소기업 경영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기업 경영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매년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시상을 실시해 오고 있다.

### 나. 성과

2008년에는 시·군,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경기도내 소재 47개 기업에 대하여 경영실적과 공적을 심사하여 5개 분야 40개 기업을 선발하고 시상식(2008. 12. 18.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을 개최하는 등 1992년부터 지금까지 366개 기업을 시상하였다. 수상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2009년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다. 향후계획

2009년에는 창업성과, 생산성, 기술력, 수출,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경기도의 모범기업으로 적극 홍보하여 경영인을 위한 축제의 마당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3-7. 지식기반 유망기업 발굴 지원

경기도에는 58만 2천여 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이 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체이다. 이들 중소기업체가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1세기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건전성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특수 시책으로 도입하여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8년까지 도가 발굴한 유망 중소기업체 수는 3,353개 기업으로 자금, 기술, 수출,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경영의 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9년에는 21세기 국가경제를 선도할 주요산업(IT, NT, ET, BT, CT, ST)<sup>2)</sup> 등 기술 집약 첨단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자금, 기술, 인력, 판로, 교육,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기도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그 동안 유망중소기업 선정현황

구 분	계	'08년도	'07년도	'06년도	'05년도	'04년도	'03년도이전
계	3,353	279	251	269	252	256	2,046
1청사	2,757	220(79%)	201(80%)	220(82%)	207(82%)	210(81%)	1,699(83%)
2청사	596	59(21%)	50(20%)	49(18%)	45(18%)	46(19%)	347(17%)

※ 현재 인증 중인 업체 : 1,307업체(인증기간 5년) - 2,046업체 기 졸업

담당자 : 기업지원과 유현숙 / ☎ 031-249-4621

2) BT(Biology Technology, 생명 공학 분야), ET(Environment Technology, 환경 공학 분야),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 분야), NT(Nano Technology, 초정밀 분야), ST(Space Technology, 우주항공 분야), CT(Culture Technology, 문화·관광 컨텐츠 분야)

### 3-8.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경기도 5년 연속 종합 1위 달성

#### 가. 현황 및 성과

품질경영활동에 앞장서 온 우수업체와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고 경영자와 관리자, 현장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 품질혁신 의지를 굳게 다지며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4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참여한 분임조가 금메달 12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차지, 5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품질우수기업포상, 일본 도요타 생산시스템 연수(TPS),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품질경영컨설팅(OJT), 도내 품질경영관련 협의회(연구협의회, 교수협의회, 명장협의회) 활동 등을 지원하여 품질경영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나.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앞으로도 지역품질경영대회를 보다 내실 있게 실시함은 물론 품질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품질경영의 저변확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제34회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막식제



제34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막식  
축사 (한국표준협회 회장 최갑홍)

### 제34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수상내역

■수상 내역(28개) : 금 12, 은 11, 동 5

분야	부문	회사명	분임조명	수상내역
현장	대기업	쌍용자동차(주)	터 보	금
		기아자동차(주)	품질명장	금
		하이닉스 반도체	2 G	금
		쌍용자동차(주)	세계로	은
		기아자동차(주)	프라이드	은
		기아자동차(주)	참수리	동
	중소기업	하이닉스 반도체	매트릭스	동
		서진캠	목표필달	금
		화인텍	임전무퇴	금
공기업	일신화학공업(주)	씩쓸어	동	
	한국서부발전(주)평택발전본부	리사이클	금	
	한국동서발전(주)일산열병합발전처	바람돌이	은	
	한국가스기술공사	ENTERPRISE	은	
설비조립	대기업	한전 수원전력 신성남전력소	등불	은
		쌍용자동차(주)	미르	은
설비장치	대기업	삼성전자(주)화성사업장	선견지명	금
		가온전선(주)	블루오션	동
6시그마	대공기업	삼성전자(주)기흥사업장	Xpeed	금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RAM	동
	중소기업	유라하네스	나눔이	금
사무간접	대공기업	한국전력기술(주)	Triple Power Design	금
		중외제약	왕의정제	금
서비스	대기업	금호렌터카(주)	용트림	은
		삼성전자서비스	JUST ONE	은
		코오롱글로벌(주)스포렉스	지극정성	은
건설	공기업	한국농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그린(green)	은
운영사례	대기업	쌍용자동차(주)	최고봉	은
	중소기업	유라하네스	시나브로	금

담당자 : 기업지원과 김일수 / ☎ 031-249-4632

### 3-9.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 가. 배경 및 현황

세계 각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제품 경쟁력의 초점이 가격이나 품질에서 디자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볼 때에도 디자인은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사회적 발전 수준을 기증하는 척도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디자인분야의 지속적인 혁신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가 Good Design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디자인산업육성 및 활성화지원』을 통해 디자인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디자인개발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나. 주요 지원 시책 및 추진성과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개발에 투자하려해도 디자인분야 전문가 채용 및 고가장비 구입 등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직접투자가 어려운 실정인 점을 고려하여 도에서는 디자인 개발에서 시제품·홍보 동영상 제작까지 토탈지원이 가능한 디지털 첨단장비 운영 사업인 『경기디자인스튜디오(GDS)구축』에 '04년부터 '07년 까지 43억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08년에는 284개사의 767건 장비를 지원 하였고, 또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촉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및 『G-디자인개발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상품 개발촉진을

경기도 산업디자인분야 지원사업 현황

사 업 명	'09년		'08년		비 고
	예산	지원계획	예산	지원실적	
G -디자인개발 지원	800	130개사	875	108개사	-
디자인컨설팅·홍보동영상 제작지원	150	40개사	150	48개사	-
G - DESIGN FAIR 2009	200	1,500점	200	2,392점	-
경기디자인스튜디오 구축 운영	160	320개사 830건	175	284개사 767건	-
디자인시제품 제작지원	300	30개사	300	32개사	-
엔지니어디자인 인력양성지원	(270)	6개과정 220명	-352	6개과정 336명	노동부지원
총 계	1,610	-	1,700	-	

지원하고자 도비 17억원 시·군비 등 4억원 등 총 21억원을 투입하여 디자인개발 및 지역특화 산업을 중점지원 하였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상품화 실현과 디자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해온 『제13회 G-DESIGN FAIR 2008』의 경우 2008년 11월 5~8일까지 4일간 분당소재의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으며, 특히 '08년에는 기업지정테마 52개사 선정지원, 출품 작품 수가 2,392점으로 전년대비 1.6배에 이르는 등 명실 상부한 전국대회 수준의 전람회로 거듭났으며, 향후 국제적 수준의 공모 및 전시회로 도약하는 해가 되었다.

### 다. 발전방향 및 향후 계획

2009년에는 도·시군·기업체·대학·연구소·디자인전문업체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높은 수준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어 해당 시군의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G-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도비 800백만원과 시·군비 800백만원 등 총 2,133백만원을 투입하고, 아울러 고부가가치 상품화 실현과 디자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해 온 『G-DESIGN FAIR 2009』의 경우도 국제적 수준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의 양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13회 G-DESIGN FAIR 개막식



제13회G-DESIGN FAIR전시장

담당자 : 기업지원과 용석찬 / ☎ 031-249-4630

### 3-10. 도자기 기술개발 등 공예산업 육성

#### 가. 도자기 기술 개발

도자업체의 대부분이 종업원 10인 이하, 자본금 1억원 미만 정도의 영세업체로 자금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도자기 신소재 및 디자인 개발, 마케팅 자체 개발 능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바, 도자업체의 도자기 개발능력을 향상시켜 우수한 도자기제품 생산 및 도자판매 확대를 목표로 '98년도부터 경기도와 명지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전 2002 도자기 관광 상품개발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도자기 기술개발사업 확대계획에 의거 기존의 명지대학교 외에 청강문화산업대학을 포함하여 2004년까지 추진하였다.

2008년까지 53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제조기술과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기술개발은 명지대학교 한국도자기센터를 중심으로 이천, 여주, 광주지역 등 335개 도자기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신소재 소지 및 유약 233종을 개발하고 446종의 디자인 등을 개발했다. 또한 도자기 제조업체 종사자 전문교육 훈련사업으로 1,031명을 선발하여 제조기술(유약, 소지) 및 분석기기·디자인 개발교육을 실시하였다.

2008년에도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명지대학교와 도자기 업체에서 제조기술과 상품개발을 추진

도자기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구 분	신소재 개발(종)			디자인개발 (종)	전문교육 (명)	참여업체 (개소)	비 고
	소 계	소 지	유 약				
계	233	72	161	446	1031	335	
1998	15	5	10	21	85	25	
1999	15	5	10	31	53	25	
2000	15	5	10	29	68	25	
2001	20	7	13	38	100	32	
2002	41	12	29	72	250	55	
2003	26	8	18	60	177	53	
2004	24	7	17	100	115	48	
2005	26	8	18	33	60	26	
2006	23	7	16	31	71	24	
2007	28	8	20	31	52	22	
2008	23	7	16	30	20	22	

중에 있는데 22개 도자기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신소재 소지 및 유약 23종을 개발하고, 30종의 디자인 등을 개발하였다.

앞으로도 이천·여주·광주 지역 등 경기도 도자기 업체의 육성을 통해 경기도가 세계적인 도자기 메카로 명성이 알려지도록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나. 공예품대전 활성화

2008년 6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18일간 (재)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제38회 경기도 공예품대전』에는 총 519종 3,310점(목·칠분야 96종 611점, 도자분야 172종 1,388점, 금속분야 79종 333점, 섬유분야 36종 165점, 종이분야 78종 443점, 기타분야 58종 370점)이 출품되어 14명의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100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또한 우수작품(특선 이상) 48종을 선정하여 제38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출품한 결과 경기도가 단체부문 최우수기관(4연패)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2008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입상 현황

구 분	출품작	입상작	시 상 구 분			
			기관장	장 려	특 선	입 선
전 국	454종	246종	26종	50종	70종	100종
경기도	48(10.6%)	26(10.6%)	3(11.5%)	8(16.0%)	6(8.6%)	9(9.0%)

또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광명시, 화성시, 안성시, 하남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가평군에서는 공예품제조업체에 기술개발 보조금 및 민속 공예품전 개최, 공예품 디자인 개발,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총 3억 1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담당자 : 산업정책과 손석만 / ☎ 031-249-4609

## 4. 서민 경제생활 안정화

### 4-1. 재래시장 활성화

#### 가. 추진배경

재래시장은 서민의 애환이 서린 정겨운 장터이자 지역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1980년대까지 슈퍼마켓, 백화점, 전문점 등과 보완적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위주의 구조개편 및 유통 채널의 다양화와 소비자 구매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상권위축이 가속화 되었다.

전국의 대형 할인점 입점 및 매출액

구 분		전국			경기			전국대비
		1998	2002	증감	1998	2002	증감	증감율
재 래	입점수	1,608개	1,608개		150개	150개		
시 장	매출액	27조원	18.7조원	-31%	6.2조원	4.3조원	-31%	
대 형	입점수	93개	235개	153%	16개	48개	200%	47%
할인점	매출액	5.2조원	18조원	246%	2.1조원	7.5조원	257%	11%
백화점	입점수	89개	98개	10.10%	17개	19개	11.80%	1.70%
	매출액	10.8조원	17.6조원	62.90%	1.1조원	1.8조원	63.60%	0.70%

※ 1998년 이전대비 2002년 전국의 대형 할인점 입점은 153%, 매출액은 123%(16조원→35.6조원)증가, 경기도는 입점수는 200%, 매출은 191%(3.2조원→9.3조원)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 매출액은 31% (전국:27조원→18.7조원, 경기: 6.6조원→4.3조원) 감소

※ 자료 : “중소기업청, 「시장활성화종합계획」, 2003. 9”, “경기도,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 2004. 4” 경기도 내부자료 참고하여 재구성(무등록시장포함)

따라서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생계 및 실업증가 문제, 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전통적 유통기능 고사 등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0년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수립지시를 계기로 정부차원의 재래시장 지원시책이 추진되게 되었다.

## 나. 추진과정 및 계획

### 1)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추진과정

정부에서는 2000년 11월 1일 경제부처 합동대책으로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고, 2001년부터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국고보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게 되었다.

####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대책 주요 내용

- 기초단체별로 1개씩 지역대표시장을 선정하여 시설개선 등 시장현대화 촉진
- 시장전체를 전문화하여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관광·풍물시장으로 육성
- 시장 재개발·재건축 및 점포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을 개정,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크고 투자성격이 강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1. 3. 24 수원시 팔달문시장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재래시장에 최초로 12억원의 교부세 지원이 발단되어 국·도비 지원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초단체별 1개씩 지역대표시장을 선정하여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고, 시장전체를 전문화하여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관광·풍물시장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구상하였다.

또한, 제도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였으며 시·도별 재래시장활성화계획을 제출받아 2001년 11월 4일 “02년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어서 2002년 1월 26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2002년 3월 15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최초로 전국 재래시장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교부 되었다.

##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대책 주요 내용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활성화 연구용역비 국고보조 : 시도별 시범시장 4개씩 지원
  - 국고보조 및 부담기준 : 국비30%, 지방비40%, 자부담30%
  - 국고보조금 지원 : 12개시·도 55개시장 13,221백만원
- ※경기도 : 4개시장(안양중앙, 부천상동, 수원역전, 안성 일죽시장) 국비1,367백만원

그러나 일부시장에 한정된 소규모의 국고지원은 도내 재래시장을 활성화추진에는 미흡하였으며 지방비 및 자부담의 과다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특히, 2002년 7월 26일부터 재래시장 지원 업무가 산업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고, 중소기업청에서는 국비지원대상 재래시장에 무등록시장을 제외하는 업무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도내의 전통적인 골목시장은 국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도비지원과 함께 도비와 시·군비를 근간으로 하는 자체사업 추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으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의 과다로 지방비 위주의 지원사업은 한계성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2003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등록시장에 대하여도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2003년 하반기부터 무등록 재래시장에도 국고지원 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의 중요성 및 경쟁력 상실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7년 까지 전국 865개 시장에 대하여 국비 3,346억 원을 연차별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0월에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관내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근거로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포함하는 『경기도 재래시장활성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과정(요약)

- 2000. 2. 8 :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수립지시(대통령, 국무회의시)
- 2000. 11. 1 :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대책 수립확정(산업자원부 : 6개 경제부처 합동대책)
  - 기초단체별 1개씩 지역대표시장을 선정하여 시장현대화 추진(법률을 개정하여 재정지원 계획)
- 2000. 11. 14 : 시도별 재래시장활성화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시(산업자원부)
- 2001. 3. 19 : '03년까지 팔달문시장 등 9개 대표시장에 382억원 투입 시설개선 추진계획 제출(도)
- 2000. 11. 17 :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회의('01년부터 재래시장에 교부세지원 계획)
  - 2001.3.24 : 수원 팔달문시장에 교부세 12억원 지원(행정자치부)
- 2001. 11. 4 : 2002년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산업자원부)
- 2002. 1. 26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법』 제정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2007.3월까지 한시적 효력)
- 2002. 3. 15 : 재래시장 국고보조금 교부(산업자원부)
  - 전국 55개시장 국비 13,221,400천원(경기도 4개시장 국비1,366,500천원)
- 2002. 3. 15 : 재래시장 국고보조금 교부(산업자원부)
  - 전국 55개시장 국비 13,221,400천원(경기도 4개시장 국비1,366,500천원)
- 2002. 7. 26 : 재래시장 국고보조사업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 2002. 12. : 재래시장 지원업무 편람(지침) 시달(중소기업청)
  - 국비 보조대상 :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하지 아니한 등록된 재래시장(무등록시장 지원대상 제외)
- 2002. 7. 12 : 무등록시장에 대하여 국고보조 대상으로 추천가능여부 질의(건의)
  - 2003. 7. 29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집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무등록시장도 국비지원대상에 포함)
- 2003. 9. 29 : 시장활성화 종합계획 수립통보(중소기업청)
  - 2007년까지 전국 865개 시장에 대하여 국비 3,346억원을 연차별 지원,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추진
- 2004. 5. 7 : 경기도 『재래시장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시행
  - '07년까지 50개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추진 : 총사업비 1,025억원 (국고보조623억원, 자체402억원)
  - '07년까지 중소기업물류센터 5개소(권역별 1) 건립추진 : 총사업비 139억원(국고보조)
- 2004. 10. 22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정·공포(2014. 12까지 한시적 효력)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은 폐지(대체입법)
- 2005. 2. 28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제정
- 2006. 10. 27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전면개정
  -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로 확대
- 2006. 12. 4 : 경기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계획(2006-2010년)” 수립시행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전면개정에 따른 경기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10년까지 시설현대화사업 70개시장 119억원(국비 72억, 지방비 37억,자부담 10억)
  - '10년까지 경영혁신지원사업 93개시장 26억원(국비 16억, 지방비 8억,자부담 2)
  - '10년까지 특화육성사업 10개시장 50억원(도비 25억, 시군비 25억)

## 2) 경기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계획(2006-2010년)」

2010년까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대표시장의 자생력 강화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 생산물 판매 거점 확보로 지역경제의 중심기능을 구축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래시장 종합지원계획이다.

재래시장활성화 지원계획(2006-2010년) 추진목표





## 다. 사업추진 실적

### 1)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이전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체계적인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중앙정부와 도에서는 21개의 주요시장에 대하여 고객센터, 주차장, 아케이드, 도로, 냉난방시설, 건물대수선 등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2001~2002년 재래시장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개소	계	국비	교 부세			지 방 비			기타 (민자)	비고
				소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2001	4	11,680	-	2,300	2,300	-	8,458	3,532	4,926	922	
2002	17	26,408	1,367	2,600	-	2,600	21,098	10,061	11,037	1,343	
계	21	38,088	1,367	4,900	2,300	2,600	29,556	13,593	15,963	2,265	

※ 2001년 : 교부세사업(2), 도자체사업(2), '02년 : 국고보조사업(4), 도자체사업(13)

※ 2002년 주차장사업(2) 별도 : 도 출자분 25,234백만원(도출자 8,200, 지방공사 17,034)

### 2)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이후

2003년 수립된 중앙정부의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토대로 경기도 『재래시장활성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준년도인 2003년도는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2개시장에 총사업비 16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중 12개소에서 아케이드, 주차장, 냉난방 시설, 도로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4년도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가 성숙된 단계로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시행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친 국비지원과 함께 자부담 비율을 10%로 소급하여 하향 조정하였다.

경기도는 2004년 국고보조 사업으로 21개 시장에 258억 7,800만 원, 자체사업으로 12개 시장에 71억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17개 시·군 33개 시장 61개 사업에 대하여 총 329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다.

### 3)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2005년도에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중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내용이 주로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상인교육장 설치,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등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17개 시장 23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다.

2005년 재래시장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개소	계	국비	지방비			기타 (민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시설현대화	12	15,728	9,400	5,645	2,350	3,295	683	
경영현대화	17	2,390	1,417	654	280	374	319	
계	29	18,118	10,817	6,299	2,630	3,669	1,002	

2006년 재래시장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개소	계	국비	지방비			기타 (민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시설현대화	11	12,840	8,183	4,386	1,797	2,589	271	
경영현대화	16	3,708	2,224	1,120	556	564	364	
계	27	16,548	10,407	5,506	2,353	3,153	635	

### 4)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2006.10.2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6년도에는 도내 상점가 2개소에 대한 상점가활성화연구용역비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 시작하여, 상점가 1개소에 8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 재래시장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개소	계	국비	지방비			기타(민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시설현대화	15	23,022	14,187	7,404	3,453	3,951	1,431	
경영현대화	13	1,333	840	380	200	180	113	
계	28	24,355	15,027	7,784	3,653	4,131	1,544	

## 5) 중소기업도매물류센터 건립

중소기업도매물류센터는 2003년 교부세 지원을 시점으로 경기 남부권역(수원) 1개소를 먼저 추진, 2005. 7. 5.일 착공하여 2006. 1. 19일에 준공하였다. 또한 2005년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경기 북부권역(동두천)에서도 추진하여 2006. 11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민자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민자 분담액을 일부 시비로 대체(산업자원부 승인)하고 2008. 11. 17.일 착공하여 2009.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치 및 규모	계	국비 (교부세)	지방비			기타 (민자)	추진상황
				계	도비	시군비		
경기남부중소 유통물류센터	수원시 서둔동 9-3 (부지 4,621㎡, 건축 1,144.69㎡)	3,866	1,300 (800)	1,566	633	933	1,000	완료
경기북부중소 유통물류센터	동두천시 상패동 122-2 (부지 5,600㎡, 건축 1,500㎡)	3,334	1,000	2,034	667	1367	300	추진중

## 6)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개최

재래시장박람회는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장특성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등 시장 활성화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시장간 정보공유체제 구축과 특산품의 판매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상인들의 사기진작과 경쟁력강화방안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 11월 서울 aT센터에서 처음 개최된 후, 2005년도에는 부산 BEXCO, 2006년 고양 KINTEX에 이어 2007년에는 서울 aT센터에서 2007.11.15일부터 11.18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으며 전국 16개 시·도 138개 시장 191개 점포가 참가, 총 17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2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기도는 6개시장 7개 점포가 참가하여 일반 시민들의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성공하였으며 재래시장에 대한 비전과 전망제시 및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 등 의식전환 계기를 부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7) 경기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한 2008년 경기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를 수원시 팔달문시장 거리축제와 병행하여 2008.10.24일부터 10.26일까지 3일간 수원시 화성행궁앞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재래시장 상품전시, 시장그리기 미술대회, 먹거리장터 운영 등으로 1만 7천명(1일 평균 6천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총 57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재래시장을 알리기 위한 행사목적은 달성하였고 참여업체 주변 인근상권 매출증대에 기여하였다.

## 라. 사업추진 효과

### 1) 매출 부문

종합시설개선 시장은 사업 전에 비해 매출이 7.6% 증가, 미실시 시장은 15.3% 감소

구분	종합개선	일부개선	미실시	평균
매출증가 점포비율(%)	48.4	12.7	8.4	19.4
매출감소 점포비율(%)	14.9	32.2	53	29
변화없음 점포비율(%)	36.7	55.1	38.6	51.6

### 2) 고객수 부문

종합시설개선 시장은 일일방문고객 수가 10.9% 증가, 미실시 시장은 14.6% 감소

구분	종합개선	일부개선	미실시	평균
고객증가 점포비율(%)	46.2	12.5	9.9	18.6
고객감소 점포비율(%)	16.3	33.4	54.3	30.3
변화없음 점포비율(%)	37.5	51.1	35.8	51.1

### 3) 만족도 부문

고객만족도는 종합개선시장이 미실시시장보다 18.2배 높고, 상인만족도는 종합개선시장이 미실시 시장보다 25.1배 높게 나타남.

### 4) 빈점포 부문

시설개선 후 빈점포율은 종합개선 시장이 3.0%인 반면 미실시시장이 18.6%로 종합개선시장에 비해 6.4배 높게 나타남

※ 자료 :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2006.12.)『중소기업청』

## 5)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추진상황

'05. 3. 25 경기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회의시 『중소도시 재래시장 시범 특화발전방안 제안(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래시장의 고유한 차별성을 살리고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마케팅 포인트』로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영세상인 가계안정 도모하고자 시작되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05. 11월 재래시장 특화육성방안 연구용역 발주(경기개발연구원)하여 '06.7월 특화육성방안 연구용역 완료하였고, '06. 11월 '06년 특화시범사업으로 수원 지동시장[9억원(도비 50%, 시비 50%)]을 '07. 6월 '07년 특화육성사업으로 의정부 제일시장[6억원(도비 50%, 시비 50%)]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금년도부터 우리 도에서는 전통시장의 경영혁신을 위해, 전국 최초로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사업(안양 중앙시장과 안양대, 안양 남부시장과 성결대, 용인 중앙시장과 명지대)을 추진하여 경영현대화 및 특화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대학에는 시장에 전문적·기술적 마케팅방법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장은 학생들에게 현장실무·실습장으로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6) 재래시장활성화 과제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은 공용시설인 골목형아케이드,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전기·소방·상하수도 시설 등 시장외부의 공용시설 공급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과 건물 리모델링, 부설주차장, 냉·난방시설, 천장 및 조명 등 시장내부의 시설개선을 통한 활성화방안 모색 등 2개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전자는 공공재의 공급확대를 통한 활성화 대책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비 소요액이 과다하며 투자효과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후자는 시장내부시설 개선으로서 사업비 투자금액에 비하여 활성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익시설의 개선사항으로 점포주의 자산증식 효과를 초래하므로 부정적인 측면이 내재하여 보조금 지원시장에 대하여 점포임대료 인상억제 및 임대기간 보장 등 세입자 지원시책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또한 상인 스스로 시장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력이 취약하고 상인고령화로 혁신의지 및 공동사업 수준이 낮으므로 상인회 구성 및 등록을 유도하고, 자구노력이 우수한 시장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상인조직의 결속력 및 자구지지를 높이고, 시장별 공동창고 배달센터, 쿠폰발행, 홍보행사 등 공동사업을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점포경영, 상품진열, 친절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영기법 및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영현대화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 마. 향후계획 및 전망

### 1) 단계별 사업추진 실현

재래시장활성화 5개년 계획에 의거 1단계사업(시장 내 아케이드, 화장실, 소방전기 등) 완료 시장에 대하여 2단계 사업(시장외부 주차장, 도로, 이벤트 공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3단계 사업(홈페이지 구축, 공동브랜드, 쇼핑몰 구축, 정보 네트워크 등 경영현대화)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2) 시장의 특성별 육성 지원

시장별 강점을 발굴하고 경쟁력 취약요인을 찾아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맞춤형 지원하는 등 시장별 특화 및 맞춤형 지원을 하고 상권의 크기, 시장 특성 및 전문성에 따라 지원내용을 달리하여 육성 전략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 3) 2009년 신규사업 추진

2009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도내 15개 시·군 19개소에 총사업비 221억원(국비 146, 도비 33, 시군비 32, 기타 10)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현대화사업은 전국적으로 국비예산 30억원이 확정되어 중소기업청 대상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지원계획(전국) : 1,749억원(부담비율 60:15:15:10)
- 경영현대화사업 국비 지원계획(전국) : 287억원(부담비율 60:15:15:10)
- 특화육성사업 도비 지원계획 : 20억원(부담비율 50:50)

###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개정·시행에 따른 관련시책 추진

2006년 10월 27일 전면개정 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기존 지원대상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로 확대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른 각 시·도 및 시·군·구의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상점가 지원에 따른 시·군별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이 영세한 시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지방 시장의 전통의 뿌리에 기반을 둔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으로 2009년도에 동 법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 5) 향후전망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07년 경기도 자체사업 계획에 의한 예산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나, 경기회복 및 국고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기조에 맞추어 연차별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정책과 상인들의 의지가 결합하여야 가능하나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시장시설 개선비용 부담의지, 상품특성화 전략,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카드기 사용, 품질보장, 신선도유지 등) 및 전자상거래망 구축, 경영현대화를 위한 노력 등 상인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상도(商道)가 요구된다.

또한 재래시장이 주변의 대형할인점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이 아닌 시장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고 새로운 경쟁시장에 대비하는 상인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담당자 : 경제정책과 김완수, 정혜영 / ☎ 031-249-4583, 4591

## 4-2. 소비자 권익신장 및 알권리 충족

### 가. 소비자 주권 찾기

인터넷과 휴대폰 등 통신수단의 발달, 복잡·다양한 물품·용역의 출현 및 각종 허위기만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10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소비자행정을 선도하였다.

설치 초기에는 경기도 소비자보호조례에 근거해 상담실장 1명과 전문상담원 5명으로 운영하다가 2003년 1월, 전임계약직 3명(본청 2명, 2청 1명)의 정원을 승인받아 소비자교육, 언론을 통한 정보제공,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 3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기구 설치, 소비자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2008년 6월 경기도 소비자기본조례를 개정하였다.

종류	부수	일자	내용	소요예산(천원)	배부처
팜플릿	5,000	1.1	- 군장병이 알아야 할 소비생활 상식	4,004	도내 군부대
잡지	1,392	3. 5	- 소비자시대(한국소비자원 발간)	2,320	유관기관
CD	100	3.27	- 소비자정보 교육 영상물	9,790	유관기관
포스터	300	6.3	-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물	-	민간단체
포스터	1,500	7.3	- 학원수강료반환기준	1,500	시·군,유관기관
포스터	1,000	10. 7	-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1,800	노인기관
수첩	4,500	10.28	- 미성년(고교생)소비자피해예방	4,950	도내 고교
다이어리	400	12.15	- 소비자에게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3,124	유관기관
리플릿	500	12.19	- 리콜제도	500	유관기관

2008년도 소비자보호 역점시책으로는 소비자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어 소비자교육용 영상물(바로 아는 것, 소비자주권시대로 가는 지름길)을 제작해 소비자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홍보물(수첩·포스터·다이어리)을 제작해 배부하기도 했다.

## 나. 소비자 알권리 충족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08년에는 “고교생의 소비생활관련 법규 인지도”, “소비자정보센터이용만족도”, “학원이용실태”, “노인소비실태” “식품관련 소비자의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언론을

순번	실태조사	기간	주요 내용	응답자
1	고교생소비생활관련법규 인지도	'07.12~ '08.1	○ 미성년자성년기준연령인지도 미흡 ○ 청약철회제도 인지 미흡 ○ 인터넷·휴대폰거래 피해보상 미흡	925
2	소비자정보센터이용만족도	'07.11~ '08.2	○ 소비자정보센터 인지도 60.4% ○ 이용만족도 71.6%	1,000
3	학원이용실태	'07.11~ '08.5	○ 학원수강료 비싸다 46% ○ 중도해지시 수강료 미환급 82.2%	1,000
4	노인소비실태	'08.4~ '08.8	○ 특수판매 상술 경험 30% 상회 ○ 소비자교육수강경험 12.8% 불과	782
5	식품관련 소비자의식	'08.7~ '08.11	○ GMO식품 인지도 학생 38.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지도 20%대 적정도에 대해서는 22.6%	995

통해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소비자피해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새롭게 등장한 신종상술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TV 18회, 라디오 29회, 신문 312회 등 언론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도 했다.

- 보도자료제공 : 22건
- 시·군 홍보자료 제공 : 15건
- 매체별 보도 : 인터넷방송(4회), TV(18회), 라디오(29회), 중앙신문(27회), 지역신문(285회), 인터넷신문(122회), 경기도청홈페이지(19회)
-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 소비자뉴스(1,254건) 공지사항(85건), 시·군소식(264건), FAQ(118건), 관련자료(34건)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취약한 대학생, 노인, 고등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특수판매의 악덕상술 유형,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노인 21회 2,414명, 청소년 47회 17,726명, 민간소비자단체 회원 7회 334명, 지역주민 6회 180명 등 총 81회에 걸쳐 20,654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06년 및 '07년 지역소비자 행정평가에서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07상반기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으로 평가받았다.

## 다. 소비자물가

2007년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4%상승하여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상승되었으나 전도시 연평균(2.5%)과는 유사한 수준의 상승을 보였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공업제품과 교통요금, 도시가스, 납입금, 학원비 등 공공 및 개인서비스 부문 등이 올라 연평균 2.4%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 연도별 소비자 물가동향 - 전년대비

(단위: %)

구 분	경 기 도					전국	서울
	전체	수원	부천	의정부	고양		
2007	2.4	2.6	2.1	2.4	2.4	2.5	2.6
2006	2	2.4	2.4	2.1	2.2	2.2	2.1
2005	2.8	2.7	3	2.1	2.7	2.8	2.6
2004	3.5	3.5	3.1	4.1	3.5	3.6	3.9
2003	3.4	3.6	2.9	3.4	3.6	3.6	3.8

담당자 : 경제정책과 손철욱, 양현영 / ☎ 031-249-5322, 4593

## 4-3.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 및 소비 절약

### 가. 에너지 수급 전망

에너지 수급 관리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일부 역할만을 맡고 있어 각 시·도가 일부 에너지원의 수요관리업무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에너지 수급상황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관리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 최종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단위 : 천TOE<sup>3)</sup>)

구 분	연평균						증가율		
	1991	2000	2001	2006	2007	2011	'91~'00	'01~'06	'07~'11
합 계	8,472	17,058	17,058	23,026	23,578	30,136	8.10%	6.20%	5.00%
석 유	6,160	9,371	9,371	10,759	10,832	13,480	4.80%	2.80%	4.50%
석 탄	571	412	412	419	378	542	-3.60%	0.30%	7.40%
도시가스	178	2,714	2,714	4,158	4,251	5,781	35.40%	8.90%	6.30%
전 력	1,495	3,774	3,774	6,305	6,717	8,272	10.80%	10.80%	4.30%
열에너지	2	609	609	845	861	1,267	88.80%	6.80%	8.00%
기 타	66	178	178	540	538	794	11.60%	24.90%	8.10%

※ 자료 : 지역에너지통계연보(지식경제부), 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

3) TOE : TOE(Ton of oil Equivalent)의 에너지 단위로서, 원유1톤이 갖고 있는 열량

## 나. 에너지원별 수요관리

### 1) 전력

2008년말 경기도의 전력사용량은 전국 38만 5,070Gwh의 21.3%인 8만 1,848Gwh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발전용량은 전국의 8.2%인 593만kW이며 변전설비는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154KV 이상 변전소 5개소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09년도 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연도별 전력 사용량

(단위 : GWH)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 기	48,583	53,909	57,940	62,759	68,750	73,310	78,107	81,848
전 국	257,731	278,451	293,599	312,095	332,412	348,719	368,605	385,070
점유비율(%)	18.9	19.4	19.7	20.1	20.7	21	21.2	21.3

※ 자료 : 전력통계속보(한국전력공사)

### 2) 석유

2008년도의 석유제품 소비는 8,459만 6,000배럴로서 전국 소비량의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이 고유가 체제로 유지되면서 1998년도 석유제품 소비가 1997년보다 24.7%의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2002년도는 경제위기 극복으로 인한 경제활동성화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 95%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2004년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 국가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으

연도별 석유제품 소비 현황

(단위 : 천bbbl<sup>4)</sup>)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 국	670,278	719,657	742,557	743,666	762,868	762,941	752,329	761,411	763,965	786,784	760,641
경 기	68,154	78,592	82,711	85,669	90,116	90,929	86,752	86,806	90,765	91,268	84,596
비율(%)	10.17	10.92	11.13	11.51	11.81	11.91	11.53	11.4	11.88	11.6	11.12

※ 자료 : 한국석유공사

4) 석유량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bbbl은 159ℓ

로 '03년 대비 약4.5% 감소되었으나, '05년 이후 운행차량 증가 등으로 점진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나, '05년 이후 운행차량 증가 등으로 점진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나, '08년에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소비 감소로 '07년 대비 7.3% 감소되었다.

### 연도별 석유판매업(주유소) 설치 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등록업소수	1,995	2,000	2,000	2,018	2,007	2,051	2,118	2,191	2,304	2,423	2,423
증감률 (%)	△1.5	0.25	-	△0.9	△0.54	1.02	3.26	3.44	5.16	5.16	5.16
영업업소수	1,816	1,853	1,889	1,937	1,943	1,959	2,047	2,121	2,230	2,362	2,362
증감률 (%)	4.67	2.04	1.94	2.54	3.09	1	4.49	3.61	5.14	5.92	5.92

또한, 석유판매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에 대한 품질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기 및 불시에 시중유통 석유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불량 석유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품질이 저하된 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5,427업소 1만 4,020건을 검사한 결과 91개 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품질검사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연도별	검사실적		적발실적		행 정 처 분 내 역(개소)			
	업소수	건수	업소수	건수	사업정지	과징금부과	경고	기타
2002	5,802	12,388	55	120	23	28	4	
2003	6,355	15,141	64	108	9	47	3	5
2004	5,977	15,528	89	138	6	47	1	34
2005	6,468	17,203	110	140	4	58	1	47
2006	6,586	16,624	114	196	12	63	11	28
2007	6,269	16,611	61	113	9	45	6	1
2008	5,427	14,020	91	154	4	62	21	4

### 3) 가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유가상승 및 환경오염 공해문제가 부각되면서 청정에너지 공급의 필요성에 따라 경기도의 가스보급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급형태로는 용기로 구입 사용하는 LPG와 배관에 의해 사용되는 LNG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소비 형태도 가정 취사용으로 주로 사용되던 것이 냉·난방 및 상업·산업용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한편, 가스의 수요는 에너지의 다원화로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도시연료의 안정 공급 측면과 주민생활의 편의성 제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차원에서 높이가 평가되고 있는 반면,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는 관계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어 사전 가스안전대책의 강구가 요망된다. LNG의 공급은 도시가스 보급확대 시책과 그 특성으로 인해 수요가 매년 급신장하고 있어 1989년 6,139만 2,000m<sup>3</sup>에서 2007년 42억 16만m<sup>3</sup>로 약 67배가 증가하였으며 공급가구도 11만 4,033가구에서 344만 2,484가구로 약 29배로 급신장하였다.

도시가스 보급 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공급가구	전국	8,691,061	9,496,426	10,170,908	10,844,762	11,515,147	12,116,369	12,680,800	13,311,222
	경기	2,113,829	2,433,869	2,641,252	2,826,061	3,011,517	3,152,987	3,283,018	3,442,484
	비율(%)	24.3	25.6	26	26	26.1	26	25.9	25.9
판매량 (천m <sup>3</sup> )	전국	12,867,085	14,090,741	14,980,206	15,667,367	17,290,247	17,685,248	18,182,480	19,238,889
	경기	2,798,097	3,116,858	3,358,358	3,546,002	3,931,514	3,967,688	4,073,733	4,200,155
	비율(%)	21.7	22.1	22.4	23	22.7	22.4	22.4	21.8

※ 자료 : 2008 도시가스사업통계(한국도시가스협회)

경기도의 도시가스 공급권역은 수원시 등 31개 시군으로 총 6개 도시가스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8년말 현재 80.3%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2009년까지 80.5%로 확대 공급할 계획에 있다.

주요 공급설비로서는 2008년 말 현재 공급자 배관 6,750km이며, 48,394km의 사용자 시설을 합하여 총 55,144km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고 정압기 6,072개소 등의 공급설비가 있다.

LPG는 가정 취사용, 수송용(관용 및 영업용 택시 등), 영업용 등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스로 경기도는 1990년 44만톤에서 2008도에는 151만톤이 소비됨으로써 1990년보다 243%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의 수요증가 추세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도시가스 공급 현황

공급지역	공급업체	가구수(천가구)			가 스 사용량	배 관		정압기
		총가구	공급가구	공급율		공급자배관	사용시설	
수원시 등 31개 시군	6개사	4,184	3,283	78.5	4074 백만㎥/년	6,401km	45,929km	5,802 개소

### 4) 연탄

경기도 내 연탄사용 가구는 가구 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계속 늘어오다가 1988년을 분수령으로 매년 전년 대비 15% 정도씩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정 연료의 사용을 선호하는 태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싸고 불편한 연료임으로 기피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연탄사용가구 추이

(단위 : 천가구)

연도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총가구	2,508	2,829	2,847	2,944	3,052	3,191	3,394	3,592	3,748	3,910	4,068	4,184
연탄사용 가구	226	51	45	30	25	23	18	18	18	16	14	11
%	10	2	1.6	1	0.8	0.7	0.5	0.5	0.5	0.4	0.3	0.3

### 2008 연탄 생산량

(단위 : 장)

월 별	공 장 수	3.6kg	7.5kg
합 계	2 개 소	48,167,010	349,341
1 월	2 개 소	6,786,548	4,860
2 월	"	5,744,342	4,860
3 월	"	7,564,488	4,860
4 월	"	330,600	0
5 월	"	192,510	0
6 월	"	606,610	0
7 월	"	653,570	0
8 월	"	1,215,286	315,429
9 월	"	2,956,921	4,752
10 월	"	6,732,890	4,860
11 월	"	8,844,824	4,860
12 월	"	6,538,421	4,860

## 다. 에너지 소비 절약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에 의거 지역 에너지사업 추진, 전시회 참여, 웅변대회 및 수기공모 등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부각될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소비급증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단계별 에너지절약대책의 이행에 도 산하 전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고 각 부문별 실행방안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범도민적 운동으로 확산, 절약 운동의 생활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고유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부분별 주요 추진실적

부문별	시책(사업명)		실적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전시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 2008. 9. 29~10. 2(코엑스)</li> <li>참가 : 33개 업체(26,843명 참관)</li> </ul>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 : 2008.10. 3(에너지관리공단)</li> <li>참가 : 200명(연사 81, 참관인 119)</li> </ul>
	지역에너지(에너지절약)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용 : 12,688백만원(국비 8,660, 지방비 4,028)</li> <li>장소 : 수원시 등 21개 시·군 27개 사업</li> </ul>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용 : 26,599백만원(국비 15,768, 지방비 10,831)</li> <li>장소 : 양평군 등 13개 시군(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시설원예농가 지열설비 시설 등)</li> </ul>
	교육 및 홍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사랑단 운영('08년 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20개교 600명 참여</li> </ul> </li> <li>에너지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 4회 30명</li> <li>해외 연수 : 4명(스위스, 독일, 네델란드, 미국, 캐나다, 호주)</li> </ul>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배포 : 11,740점(순난로, 카렌다 등)</li> <li>에너지절약 캠페인 개최 : 2회</li> </ul>	
산업부문	산업체 자발적 협약(VA)확대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결업체 : 52개 사업장(유효협약업체수 : 331개)</li> </ul>
수송부문	공영주차장 경차 주차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개 시·군 : 50%~60%</li> </ul>
	공공기관 고연비차량 보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개 시·군 1,028대</li> </ul>
	승용차 부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제 실시(전 기관)</li> </ul>

담당자 : 녹색에너지정책과 노성식 / ☎ 031-249-4826

## 4-4. 가스·전기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 가. 가스 안전관리

도내의 가스 취급업소는 6만 4,150개소가 있으며 2008년 가스사고는 LPG가 전체 사고의 70%로 (39건 중 27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용에 많은 주의를 요하고 있다.

가스취급시설현황

(단위 : 개소)

계	LPG충전소	LPG집단공급시설	고압가스냉동제조	판매업소	저장시설	사용시설	기 타
64,150	345	122	2,291	1,014	645	59,458	275

경기도에서는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총 6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부적합업소 120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위해 요인을 제거하였다.

가스사고 예방활동 실적(2008)

시 설 검 사	제 품 검 사	시 공 감 리
86,287건	42,287천개	903,7km

※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가스사고의 유형을 보면 77%가 취급부주의 및 고의에 의한 사고이며, 불량제품 사용이 18%, 제반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5%를 차지하고 있어 가스공급자와 사용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가스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사용하여야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 연도별 가스사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70(25)	157(25)	186(43)	90(21)	109(18)	112(20)	123(25)	209(39)
가 스 별	LPG	135(21)	118(17)	159(30)	71(15)	88(17)	90(16)	99(20)	146(27)
	일반가스	17( -)	8( 1)	13( 4)	5( 2)	5( -)	6( -)	13( 3)	24( 2)
	도시가스	18( 4)	21( 7)	14( 9)	14( 2)	16( -)	16( 4)	11( 2)	39(10)
원 인 별	취급 부주의	36(11)	49( 7)	62(17)	46( 5)	61(10)	54( 9)	72(17)	70(12)
	시설미비	35( 5)	36(12)	27( 5)	9( 4)	30( 4)	35( 8)	24( 4)	26( 2)
	불량제품 사용	15( 5)	17( 1)	21( 3)	6( 0)	9( 3)	7( 1)	11( 1)	14( 7)
	기타(불법·고의 등)	84( 4)	55( 5)	76(18)	29(12)	9( 1)	16( 2)	16( 3)	99(18)

※ 주 : ( )내는 경기도의 사고건수임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2008년 통계부터 고의사고가 포함되어 가스사고 발생량이 증가

따라서,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검사기관 및 가스공급자는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검사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유통구조를 현대화에 따른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가스사용 및 관리의 안전성 향상 등 가스안전관리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가스안전의 대국민 교육과 홍보, 점검을 통하여 가스사고로부터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가스안전 교육실적

(단위 : 명)

계	법 정 교 육		순회계몽 교육	비 고
	정 기	특 별		
66,922	930	33,916	32,076	순회계몽은 시·군 현지교육임

※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적

점검회수	점검업소	적합업소	부적합업소	비 고
6회	17,175개소	17,055개소	120개소	부적합업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 나. 전기 안전관리

경기도에서는 전기사고 우려가 높은 재래시장 등 취약 전기시설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을 개수토록 하고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및 국민 기초생활보장가구 중 자력으로 불량 전기시설을 개수하기 어려운 곳을 선정하여 등기구 등 자재비

3,2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아 무료로 점검·보수하였다. 또한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발전소를 한전기술진과 합동으로 연 2회 점검하여 고장으로 인한 정전사고를 예방하였다.

###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무료 보수 실적

대 상	실 적				점검·보수내용
	2005	2006	2007	2008	
취약 전기시설 안전점검 (재래시장, 지하상가 등)	5회 3,840개소	5회 4,040개소	5회 4,150개소	5회 4,35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연불량, 누전상태</li> <li>- 차단기, 개폐기 교체 등</li> <li>• 배선상태 불량</li> <li>- 배선교정 및 전선교체</li> <li>• 불량 형광구 교체</li> </ul>
사회복지시설 무료점검 보수 (고아원, 양로원, 농가주택 등)	385개소	559개소	408개소	668개소	
도서낙도 자가발전기 순회 점검	2개시·군 3개 도서	2개시·군 3개 도서	2개시·군 3개 도서	2개시·군 3개 도서	

담당자 : 녹색에너지정책과 남병섭 / ☎ 031-249-4821